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Survey on the Korean Women Farmers

2003.11

연구기관
한국여성개발원

농림부 도서관



0009694

농 립 부

7
90
3-251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Survey on the Korean Women Farmers

2003년 11월

연구기관
한국여성개발원

농 립 부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Survey on the Korean Women Farmers

2003년 11월

연구책임자 : 김 영 옥 (한국여성개발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이 선 (한국여성개발원 전문연구원)

이 연구보고서는 농림부의 용역의뢰를 받아 한국여성개발원이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 농림부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9
3. 연구의 한계	12
II. 일반적 특성 및 가구 특성	13
1. 인적특성과 가구특성	15
2. 농가 경영주 현황	17
3. 농사현황	19
4. 예금액 규모	25
III.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 현황 및 의식	29
1. 농업종사경력 및 향후계획	31
가. 농업종사경력	31
나. 농업시작연령	33
다. 향후 농업계획	34
2. 농업노동 분담현황	39
3. 노동시간	43
가. 농업노동시간	43
나. 가사노동시간	46
다. 농외노동시간	48
라. 총노동시간	50
마. 총노동시간 대비 농업노동시간 비율	51
4.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55

5. 컴퓨터 이용 현황	59
6. 여성농업인 의식	63
가. 농업인 정체성	63
나. 농업관	68
다. 여성농업인 의식	73
IV. 여성농업인의 복지실태	83
1. 건강복지	85
가. 건강검진	85
나. 산후조리	86
2. 보호노동 및 보육	88
가. 요보호 가구원 현황	88
나. 보육 현황	88
3. 연금가입	90
4. 문화향수	94
가. 문화행사 참석 현황	94
나. 문화시설 이용 현황	95
5. 조직가입 및 활동	98
V.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	105
1. 농촌 거주의향	107
가. 향후 농촌거주의향	107
나.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108
2. 교육현황	109
가. 교육경험과 교육수요	109
나. 교육 참석 빈도	113
다. 교육 참석시 불편사항	114
3. 여성농업인 제도인지 및 이용현황	116
4. 여성농업인을 위한 필요 사업	119

VI.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23
1. 연구개요	125
2. 주요 결과	126
3. 정책시사점	141
가. 여성농업인력 개발정책의 방향	141
나. 여성농업인 의식증진의 방향	146
다. 여성의 농외소득 제고	147
라.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의 본격적 실시	149
참고문헌	153
부 록	155
[별첨 1] 표본오차(Sampling Error) 공식	157
[별첨 2] 표본크기별 표본오차 예시	157
[별첨 3] 설문지	158

표 목 차

<표 I-1> 조사표 내용	8
<표 I-2> 표본추출 개요	9
<표 I-3> 지역별-영농형태별 농가수 분포	10
<표 I-4> 지역별 시와 군지역의 조사구 분포	11
<표 I-5> 지역별 시와 군지역의 표본조사구 배분	11
<표 II-1> 조사대상자 인적 특성과 가구특성	16
<표 II-2> 경영주의 성별 연령분포	18
<표 II-3>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여부별 가구형태	19
<표 II-4> 영농형태별 가구내 농업종사자 수	20
<표 II-5> 경영주의 성별 주영농형태	22
<표 II-6> 여성농업인의 연령, 학력별 주영농형태	22
<표 II-7> 조사농가의 소유농지와 경작지의 규모분포	24
<표 II-8> 총소유 농지중 여성소유 농지의 비중 분포	25
<표 II-9> 주요 특성별 총예금액중 본인예금액 비중의 분포	27
<표 III-1> 주요특성별 농업종사경력	32
<표 III-2> 연령대별 농업시작연령	34
<표 III-3> 연령대별, 주영농형태별 생산규모 변경계획	35
<표 III-4> 연령대별 관련분야 진출의사	38
<표 III-5> 주요특성별 농업노동 기여도	40
<표 III-6> 경지경영면적별 농업노동 기여도	41
<표 III-7> 시기별 농업노동시간	43
<표 III-8> 연령대별 평균노동시간	44
<표 III-9> 주영농형태별 평균노동시간	45
<표 III-10> 경지경영면적별 농업노동시간	45
<표 III-11> 시기별 가사노동시간	46
<표 III-12> 가족규모 및 유형별 가사노동시간	47

<표 III-13>	연령대별 농외노동시간	50
<표 III-14>	시기별 총노동시간	50
<표 III-15>	연령대별 총노동시간	51
<표 III-16>	연령대별 총노동시간 대비 농업노동시간 비율	53
<표 III-17>	농업노동기여도별 총노동시간 대비 농업노동시간 비율	54
<표 III-18>	농촌 거주/이농의사별 노동시간	55
<표 III-19>	연령대별 의사결정 참여도 평균점수	58
<표 III-20>	주영농형태별 의사결정참여도	58
<표 III-21>	가구유형별 가구원수별 의사결정참여도	59
<표 III-22>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컴퓨터 이용현황	61
<표 III-23>	컴퓨터 교육참여 경험과 컴퓨터 이용 현황	61
<표 III-24>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농업관련 컴퓨터 이용 의사	63
<표 III-25>	컴퓨터 이용의사와 교육희망	63
<표 III-26>	주요특성별 농업인 정체성	65
<표 III-27>	농업인 정체성과 노동시간	66
<표 III-28>	농업종사경력 및 농업노동기여도와 농업인 정체성	67
<표 III-29>	농업인 정체성과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68
<표 III-30>	농업인 정체성과 농촌거주/이농 의사	68
<표 III-31>	주요특성별 농업관	70
<표 III-32>	농업종사경력 및 농업노동 기여도와 농업관	71
<표 III-33>	농업관과 노동시간	72
<표 III-34>	농업관과 의사결정 참여도	72
<표 III-35>	여성농업인 정체성과 농업관	73
<표 III-36>	농업관과 농촌거주/이농 의사	73
<표 III-37>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2002)」의 관련항목 조사 결과	77
<표 III-38>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여성농업인 의식	78
<표 III-39>	여성농업인 진취성 척도점수와 관련변수의 상관관계	80
<표 III-40>	농업노동기여도와 여성농업인 진취성 척도점수	81

<표 III-41>	여성농업인 정체성 및 농업관과 여성농업인 진취성 척도점수	81
<표 IV-1>	연령대별 건강검진 현황	86
<표 IV-2>	연령대별 산후조리기간	87
<표 IV-3>	요보호 가구원 현황	88
<표 IV-4>	6세미만 아동의 보육 방식	89
<표 IV-5>	연령대별, 혼인상태별 연금가입 현황	92
<표 IV-6>	연령대별, 혼인상태별 연금가입률	93
<표 IV-7>	문화시설 이용률 및 이용횟수	96
<표 IV-8>	연령대별 문화시설 이용률	97
<표 IV-9>	연령대별 조직 가입 및 활동 현황	99
<표 IV-10>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가입조직수	103
<표 IV-11>	가입조직수와 관련변수의 상관관계	104
<표 V-1>	농촌거주 의향	108
<표 V-2>	주요 특성별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109
<표 V-3>	지난 3년간의 교육경험 여부	111
<표 V-4>	향후 교육수요	112
<표 V-5>	주요특성별 교육참석 빈도	114
<표 V-6>	교육 참석시 불편사항	116
<표 V-7>	여성농업인의 관련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117
<표 V-8>	여성농업인의 관련제도 이용현황	118
<표 VI-1>	여성농업인의 연령집단별 특성	142
<표 VI-2>	여성농업인의 정보화능력 현황 및 개발가능성	146
<표 VI-3>	여성농업인의 의식 수준	147
<표 VI-4>	여성농업인의 복지실태 및 관련 요구	149

그 립 목 차

<그림 I-1> 본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6
<그림 II-1> 여성농업인의 겸업일 유형	17
<그림 II-2> 농가 경영주의 가구원 상태	18
<그림 II-3> 경영주의 성별 혼인상태 (단위: %)	19
<그림 II-4> 가구별 농업종사자 수	20
<그림 II-5> 주영농 형태	21
<그림 II-6> 농가의 소유농지 및 경작지의 평균규모 (단위: 평)	23
<그림 II-7> 총예금액과 본인예금액의 분포	26
<그림 II-8> 총 예금액 중 본인예금액 비중	27
<그림 III-1> 농업종사경력	31
<그림 III-2> 농업시작연령	33
<그림 III-3> 생산규모 변경계획	34
<그림 III-4> 규모 축소/확대 계획 분야	36
<그림 III-5> 신규진출계획 분야	37
<그림 III-6> 관련분야 진출의사	38
<그림 III-7> 농업노동 기여도	39
<그림 III-8> 분야별 농업노동 기여도	42
<그림 III-9> 여성농업인과 기혼취업여성의 노동시간	48
<그림 III-10> 전·겸업별 노동시간	49
<그림 III-11> 총노동시간대비 농업노동시간 비율	52
<그림 III-12> 농업경영 의사결정참여도	57
<그림 III-13> 컴퓨터 이용 현황	60
<그림 III-14> 농업관련 컴퓨터 이용의사	62
<그림 III-15> 농업인 정체성	64
<그림 III-16> 농업관	69
<그림 III-17> 여성농업인 의식	75

<그림 IV-1>	건강검진 현황	85
<그림 IV-2>	산후조리기간	87
<그림 IV-3>	여성농업인과 일반 여성의 보육시설 활용도	89
<그림 IV-4>	농촌보육시설의 주요 요건	90
<그림 IV-5>	연금가입 현황	91
<그림 IV-6>	여성농업인과 전체 여성의 문화행사 참석률	94
<그림 IV-7>	연령대별 문화행사 참석률	95
<그림 IV-8>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관련 조직 가입률	98
<그림 IV-9>	가입조직수	102
<그림 V-1>	향후 농촌거주의향	107
<그림 V-2>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109
<그림 V-3>	여성농업인의 교육경험과 교육수요	110
<그림 V-4>	교육 참석 빈도	113
<그림 V-5>	교육 참석시 불편사항	115
<그림 V-6>	여성농업인의 관련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현황	117
<그림 V-7>	여성농업인을 위한 필요사업 수요	119
<그림 V-8>	각 정책사업에 대해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필요성	121
<그림 V-9>	각 정책사업에 대한 연령, 학력별 요구도	122
<그림 VI-1>	여성농가인구와 농업종사자(2002년)	127
<그림 VI-2>	산업별 남성취업자 대비 여성취업자 비율의 추이	128
<그림 VI-3>	성별 농업취업자 수의 추이	128

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2006-2010년)의 수립을 앞두고 그간의 여성농업인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변화 속에서 여성농업인이 농업구조의 선진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요구를 발굴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본연구는 체계적이며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여성농업인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려는데 주목적이 있다.

□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 수행에 대한 중간점검

여성농업인 육성 정책은 1998년 3월 농림부에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고,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이 수립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2001-2005년)은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 지위향상, 삶의 질 제고를 통한 건강한 농촌 가정의 구현과 농업·농촌사회의 발전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15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1차 계획 기간의 중반에 이른 이 시점에서 그간의 성과를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대·내외 환경변화는 중간조정의 필요를 더하고 있다.

□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수요의 파악

현재 우리 농업의 가장 큰 도전은 농산물시장의 개방이며, 이에 따라 농업을 하나의 건전한 산업으로 발전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있다. 세계 각국의 농업정책은 가급적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을 줄이고 농업을 더욱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즉 농업이 산업으로서의 경쟁력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농가호수의 감소, 경영능력을 갖춘 가족농과 농업경영체의 성장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노령화되어 있는 자급농

의 경우 사회안전망의 확충 등을 통해 지원하게 되고, 농정은 산업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으로서의 농업정책으로 나누어 그 성격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해 질 것이다.

대내적으로는 일부 농산물의 공급과잉, 품목간 불균형에 따른 가격불안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장개방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면서 농수산물 시장의 주도권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농업정책도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를 고려하는 농정으로 변화되어 갈 것이며 농업경영도 수요지향적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식품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장·가공부문의 역할이 증대되고, 유통경로의 전문화·다양화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처럼 세계적 흐름은 농업을 생산과 가공, 유통과 무역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종합산업으로 보는 것이고, 따라서 그 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성장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인력개발 또는 미래농업을 담당할 인력구조 확보 등에 대한 관심은 자율적 시장경제원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WTO 무역체제에서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다. 15세 이상의 농가 여성인구 중에서 농업참여자 비율이 80.0%로(통계청, 「2002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동일연도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8.8%(통계청, 「2002년 경제활동인구연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월등히 높다.¹⁾ 또한 농업종사자 중 여성 인구 비중은 50.7%로 여성이 우리나라 영농인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영농형태도 논벼 위주에서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발달, 상품의 포장과 마케팅 등 농업경영에 있어서도 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므로 농업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고,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 물론 두 수치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는 지난 1년간에 농업활동에 종사한 자, 「경제활동인구연보」는 지난 1주일간 유급노동과 무급노동(16시간 이상)에 종사한 자를 취업자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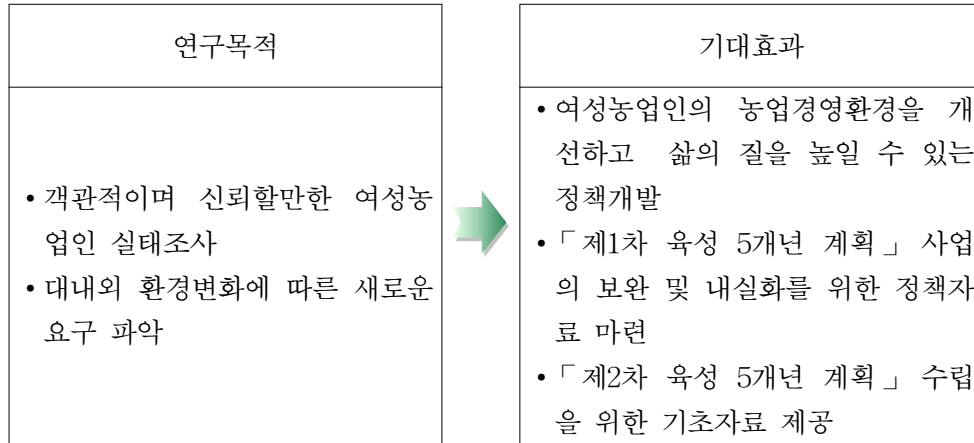
□ 객관적이며 신뢰할만한 기초자료의 필요

그간 여성농업인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김이선: 1997, 정기환: 1997, 김영옥·김이선: 1999), 각각의 연구목적에 따라 나름대로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지역 또는 특정대상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만큼,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담아내지 못하였다. 연구내용에 있어서도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이 협업종사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파악해내기가 까다로운 주제들, 예컨대 농업생산에 대한 기여도, 농가자산중 여성소유 비중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드물었다.

여성이 참여하는 영농작업은 육체적으로 과도한 노동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규정된 근무시간이 없으며 계절적으로 진폭이 크다는 점에서 도시의 근로여성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다. 또한 농촌의 지역사회는 도시에 비해서 대면적인 인간관계가 많고 가부장적인 전통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남아 있어서 여성농업인에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담을 주고 있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의 삶과 노동, 여건에 대한 객관적이며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통계자료가 절실히 요청된다.

한얼경제사업연구원(1999)의 「여성농업인 실태 조사」는 여성농업인의 경제생활, 농업노동, 보건·복지·교육 부문 실태 및 요구, 지역활동 및 남녀평등의식, 농업 및 농촌 정책에 대한 의견 등을 다루고 있다. 최종 회수된 1,300여개 설문지가 분석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의 선발, 조사방법 등에서 신뢰도가 낮아 조사결과의 해석에는 상당한 한계점이 있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이 조사는 전국 농협의 농가주부모임의 회원을 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엄밀한 의미의 여성농업인 정의와 일치하지 않으며, 무작위 표본추출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본 조사결과가 전국의 여성농업인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 나타난 이러한 한계점들은 곧 본연구 수행의 도전 과제이다. 본 연구는 첫째,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요구를 파악해 낼 수 있도록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다. 둘째, 우리나라 여성농업인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조사를 설계하고자 한다. 특히 후자의 과제는 제한된 예산과 일정이라는 제약조건 하에서 결코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림 I-1> 본 연구의 목적과 기대효과

2. 연구내용과 연구방법

가. 연구내용

서론인 제 I 장에서는 연구목적에 이어 연구내용과 연구방법을 설명한다. 본고는 실태보고서인 만큼 조사표에 연구내용이 담겨있다. 본 실태분석의 조사표 내용은 <표 I-1>과 같다. 조사표는 가구현황,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 현황, 의사결정관여도, 농업에 대한 인식, 복지관련 실태, 조직활동, 정책요구 등의 영역에서 총 50여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무작위 층화추출된 1,500여 농가의 여성농업인이다.

제II장에서는 조사대상 농가의 가구특성을 분석한다. 경작지의 소유면적과 여성농업인 명의의 경작지 규모, 영농규모, 주영농형태, 가구의 예금액과 여성농업인 명의의 예금액 규모, 농가 가구원 사항 등에 대해 차례로 살펴본다.

제III장에서는 여성의 영농현황과 의식의 특성을 분석한다. 여성농업인의 농업 진입시기와 영농경력을 분석하며, 향후 농업에 대한 계획을 살펴본다. 그리고 농가의 전반적인 농업노동, 분야별 농업노동에서 여성농업인의 기여도를 분석하며 농업주기별로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을 농업노동, 가사노동, 농외노동으

로 분류해 분석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 정도를 파악한다. 이와 함께 농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참여도를 파악하여 농가의 농업노동과 경영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이 차지하는 위치를 가늠한다. 그리고 농업정보화와 관련된 여성농업인의 인적 자본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컴퓨터 사용실태를 분석한다. 또한 농업인으로서, 여성으로서, 여성농업인으로서 여성농업인의 의식 수준을 파악한다.

제IV장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 실태를 살펴본다. 먼저 여성농업인의 건강 관련 복지 수준을 건강검진과 산후조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일반 여성들의 건강복지 수준과 비교한다. 또한 보호노동과 보육 현황, 농촌보육시설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며, 연금가입 현황을 파악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문화복지 수준을 위해 문화행사 참석과 문화시설 이용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주요 조직 참여 현황을 파악한다.

제V장은 그동안의 여성농업인 관련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정책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부분이다. 여성농업인 정책을 평가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척도는 해당정책이 현장 여성농업인들의 조건과 요구에 부합하는지, 접근은 용이한지, 이들이 직면해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실효성을 지니는지 등일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설문문항을 개발함에 있어 이 점을 고려하고자 노력하였다. 향후 농촌거주의향, 농촌을 떠나고 싶어 하는 이유, 지난 3년간의 교육훈련 수혜 실태와 향후 교육요구, 여성농업인 관련 각종 정책과 시설에 대한 인지도와 활용현황 등에 대해 살펴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VI장에서는 이제까지의 주요 결과에 기초하여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을 위한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도출한다.

<표 I-1> 조사표 내용

구분	조 사 항 목	
가구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사규모 (논/밭/과수원/하우스 등) • 주영농형태 • 경영주 • 예금액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현황 및 의식	• 농업종사경력 및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종사경력 - 향후 농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 규모 확대/축소 계획 ·신규농사 및 창업의향
	• 농업노동분담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노동 기여도 - 분야별 농사일 작업비중
	• 노동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기별 노동시간 ·농업노동시간 ·가사노동시간 ·농외노동시간
	• 의사결정 참여도	- 농업경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도
	• 컴퓨터 이용현황	- 컴퓨터 이용현황
	• 여성농업인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 정체성 - 농업관 - 여성농업인 진취성, 성역할의식
복지 실태	• 건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검진 현황 - 출산/산후조리 현황
	• 보호노동 및 보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호를 요하는 가구원 현황 - 보육 현황 - 보육시설 요구사항
	• 연금가입 현황	- 국민연금, 개인연금 가입현황
	• 문화복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행사 참석 현황 - 공공 문화시설 이용현황
	• 조직 가입 및 활동 현황	-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관련조직 가입 및 활동 현황
정책수요	• 농촌 거주의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농촌거주의향 -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 교육현황	- 교육 경험여부, 교육 참석빈도, 불편사항
	• 관련정책 인지 및 시설이용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 인지 - 제도 이용여부

나.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층화 무작위 추출된 농가의 여성농업인실태를 분석한다.

1) 표본추출

☐ 모집단 정의

현재 농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여성전체를 목표모집단으로 규정할 수 있지만 실제조사를 위해서는 조사대상 여성 농업인의 접촉가능성과 조사편이성을 고려하여 2000년 통계청에서 실시했던 농업총조사에서 사용되었던 농업 조사구와 행정리를 1차추출단위로 하고 1차추출단위에서 농가를 추출하기 위해서 농가를 조사모집단으로 정의하였다. 조사단위는 표본농가에 거주하는 15세 이상의 여성 농업인으로 정의하였다. 2000년 농업총조사에서 사용한 농업조사구 수는 35,146개이고 총 농가수는 1,383,468가구이며 1차추출단위인 농업조사구를 추출한 후에 각 조사구별로 10개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조사하기 위해서 농가수가 20가구이상인 조사구만을 조사대상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28,787개 조사구이지만 농가 수는 1,224,895가구로 전체의 88.5%이므로 목표 모집단을 대변하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앞으로 모집단분석이나 표본추출법의 연구는 28,787개 조사구로 제한될 것이다.

<표 I -2> 표본추출 개요

구 분	내 용
모집단	전국(제주 제외)의 농가
표본크기	1,521가구 (유효표본)
표본추출방법	지역을 고려한 층화후 무작위 추출법 (Stratified Sampling)
표본오차	±2.5% (신뢰수준 95%)

주: 표본오차 공식 및 표본크기별 표본오차 예시는 부록을 참조할 것.

□ 모집단 분석

여성 농업인의 사회 경제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모집단을 지역별-영농형태별로 층화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조사의 경제성과 시간적인 제한을 고려하여 지역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지역층은 8개 도 지역으로 나누고(광역시는 인근 도지역에 포함하였음) 이를 다시 시부와 군부로 나누었다. 영농형태는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축산', '전작'과 '기타'로 8개 층으로 구분하였다. 8개 지역에 대해서 영농형태별로 층화한 모집단의 농가 수를 정리하면 아래 <표 I-3>과 같다. 여기서 '논벼'의 농가가 전체의 58.57%인 787,429가구이고, 그 다음이 '채소'농가로서 전체의 17.04%인 229,109농가이다.

<표 I-3> 지역별-영농형태별 농가수 분포

단위: 가구

구분	경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논벼	98,846	35,402	46,092	122,941	99,315	159,571	117,648	107,614	787,429
과수	8,288	1,501	11,949	11,031	4,022	11,639	53,440	18,396	120,266
채소	25,999	15,152	15,885	27,908	18,729	39,548	44,887	41,001	229,109
특작	2,722	2,647	6,610	5,823	3,832	3,543	9,774	1,995	36,946
화훼	3,759	219	195	526	521	684	269	1,542	7,715
축산	15,187	4,451	4,946	9,923	6,265	8,349	11,078	11,145	71,344
전작	10,606	17,945	6,068	7,710	4,063	20,135	11,144	8,711	86,382
기타	569	127	387	763	670	1,125	868	654	5,163
합계	165,976	77,444	92,132	186,625	137,417	244,594	249,108	191,058	1,344,354

지역별로는 경북이 249,108농가로 전체의 18.5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는 전남이 244,594농가로 전체의 18.19%를 차지하여 두 지역을 전체의 36.72%를 차지하고 있어서 농업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생각할 수 있다. 농가수의 분포도 중요하지만 8개 지역에서 1차 표본추출단위는 조사구이므로 조사구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강원도, 전남과 경남이 시 지역에 비해서 군 지역의 조사구 수가 월등하게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 조사구 수에서는 전남과 경북이 각 5,223개와 5,195개로 전체의 36.19%를 차지하고 있다.

<표 I-4> 지역별 시와 군지역의 조사구 분포

단위: 가구

구분	경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시 지역	1,779	638	479	1,808	1,556	1,190	2,976	1,745	12,171
군 지역	1,636	1,037	1,624	2,076	1,606	4,033	2,219	2,385	16,616
합계	3,415	1,675	2,103	3,884	3,162	5,223	5,195	4,130	28,787

□ 표본배분 및 조사구 추출

전체 조사 농가수가 1,500가구이고 각 가구당 1명을 조사하므로 한 조사구 당 몇 농가를 조사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1차 추출단위의 표본크기는 결정된다. 면접조사인 점을 감안하여 조사비용과 조사실행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한 조사구에서 10개 농가를 표본으로 선정한다는 원칙에서 표본조사구를 150개로 정하고 150개 표본조사구의 지역별 배분은 다음과 같다.

<표 I-5> 지역별 시와 군지역의 표본조사구 배분

단위: 가구

구분	경인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합계
시 지역	9	4	4	9	8	7	15	9	65
군 지역	9	5	7	11	8	20	12	13	85
합계	18	9	11	20	16	27	27	22	150

표본 조사구들은 각 도지역내에서 시지역과 군지역을 층으로 분리한 후에 각 층에서 조사구들을 영농형태(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축산, 전작, 기타)순으로 정렬한 후에 계통추출 한다. 선정된 표본조사구내에서 표본농가는 조사구내의 농가들의 영농형태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확률로 추출한다. 최종적으로 각 도지역내에서 표본농가의 영농형태 분포는 <표 I-3>에 주어진 도 지역별 영농형태의 분포와 같도록 표본농가를 선정한다. 경인지역(서울포함)을 예로 들면 180개 표본농가의 영농형태별 분포는 논벼-100, 과수-10, 채소-25, 특작-5, 화훼-7, 축산-18, 전작-13, 기타-2 농가이다.

2)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면접원의 직접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Face-to face Personal Interview)방식이며, 이를 위해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만들었다. 조사는 2003. 8. 13 ~ 9. 1까지 2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하여 2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부의 연습면접을 실시하여 조사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여 실사과정이 표준화(Standardization)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면접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을 포괄적으로 교육하였다.

다음으로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Supervisor)가 매시간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앞에서 검토하여 그 즉시 면접원 교육을 행하는 통제시스템(Quality Control System)으로 실사를 통제, 관리함으로써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중 20% 이상을 무작위 추출, 본 연구소 검증원이 전화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부를 무효로 하고 예비표본에서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3. 연구의 한계

본 연구의 대상은 농가가 아니라 여성농업인이다. 그러나 여성 농업인의 실태 현황에 관한 자료가 없는 관계로 전체 농가(제주 제외)를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표본 추출된 농가에는 본 조사에서 정의한 대로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농사일을 한 15세 이상의 '여성농업인'이 없을 수 있다. 이에 본 조사에서는 분석가능한 표본수 확보를 위해 이들 농가를 건너뛰고, 대체 응답자를 찾기 위해 다음 농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동일가구에서 여성농업인이 2명 이상일 경우, 그 가구를 대표할만한 여성 1명만 조사하였다. 누가 가구를 대표하는지는 중장년층 여부와 농업인 종사정도를 갖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결과는 모든 농가를 표본추출 대상으로 하는 통계청의 '농업총조사,'농업기본통계조사' 등 공식통계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II. 일반적 특성 및 가구 특성

1. 인적특성과 가구특성

조사대상인 여성농업인의 인구학적 특성을 압축하면 **평균연령은 58.2세이며 초등학교 졸업의 저학력자이며 유배우자**라고 할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연령은 21세에서 85세에까지 이르고 있는데,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40세 미만 여성의 비중이 5.7%에 그치고, 60세 이상이 절반을 넘는다. 70세 이상의 고령여성이 14.1%이다. 또한 초등학교 졸업자가 77.1%이고 중졸이 13.5%, 고졸이 8.9%, 전문대졸이상인 0.5%로 여성농업인의 학력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남편이 있는 여성이 81.3%이고 남편이 없는 여성이 18.7%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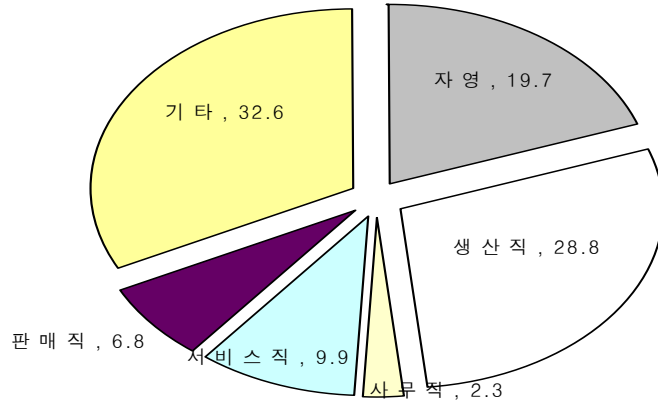
농가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가구원수가 2명인 가구가 44.6%로 가장 많지만 1인 가구가 11.6%, 5명이상 가구가 15.4% 등 다양하게 분포한다. 가구형태 역시 부부가구가 41.6%로 주류이나, 단독가구와 3대 가구(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포함)의 비중이 각각 10%를 넘는다.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2대 가구가 전체의 29.5%에 그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 속에서, 이르면 중학교부터 시작되는 자녀들의 유학 등이 더해진 농촌가구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사대상 가구에서 전업농이 73.2%이고, 겸업농이 26.8%이다. 전국농가를 대상으로 한 통계조사에서는 가구원이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농 비중이 67.3%로 1990년대 후반 이래 증가추세로 나타난다(통계청, 「2002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전업농의 증가추이는 농가내 농업이외의 일을 할 수 있는 가구원의 감소와 농업의 규모화 및 전문화에 힘입은 결과라 할 수 있다. 본조사에서 전업농 비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본조사가 무작위 추출된 표본농가중 여성농업인이 없는 농가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로 추정된다. 즉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만을 조사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전업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추출되었을 것이다.

<표 II-1> 조사대상자 인적 특성과 가구특성

구분	내역	명	%	구분	내역	명	%
연령	39세 이하	86	5.7	가구원수	1명	176	11.6
	40대	257	16.9		2명	679	44.6
	50대	412	27.1		3-4명	432	28.4
	60대	552	36.3		5명이상	234	15.4
	70대이상	214	14.1		계	1521	100.0
	계	1521	100.0		가구형태	단독가구	176
학력	초졸	1172	77.1	부부가구		633	41.6
	중졸	206	13.5	부모자녀가구		449	29.5
	고졸	135	8.9	3대가구		243	16.0
	전문대졸	8	0.5	기타		20	1.3
	계	1521	100.0	계		1521	100.0
혼인상태	유배우	1237	81.3	농가유형	전업가구	1113	73.2
	무배우	284	18.7		겸업가구	408	26.8
	계	1521	100.0		계	1521	100.0

여성농업인중 겸업종사자, 즉 지난 1년간 농사이외의 일에 1개월 이상 종사한 적이 있는 여성이 총 132명으로 전체 여성의 8.7%에 그친다. 이들이 종사한 일의 유형을 보면 생산직 근로자가 2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영업으로 19.7%이다. 서비스직이 9.9%, 판매직이 6.8%이며 사무직은 2.3%에 그친다. 이로써 여성농업인 가장 많이 하는 겸업일은 생산직과 자영업인 것을 알 수 있다.



주: 겸업종사자 132명에 대한 결과임.

<그림 II-1> 여성농업인의 겸업일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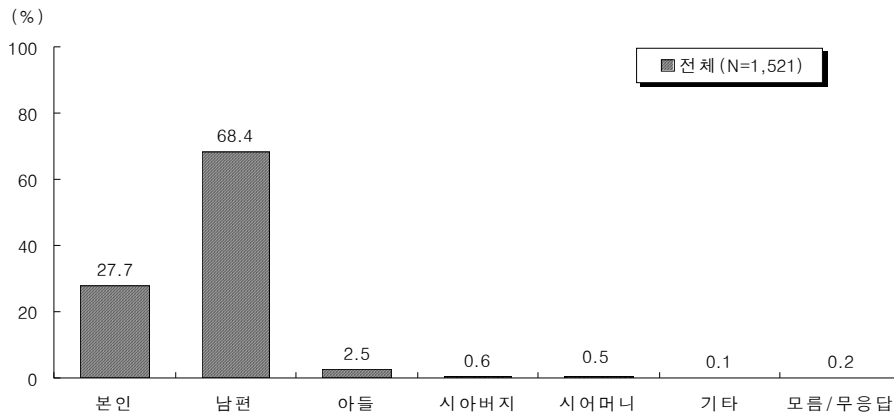
2. 농가 경영주 현황

<그림 I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사대상 농가에서 농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총괄하는 경영주가 남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4%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을 경영주로 여성 농업인은 27.7%로 나타났다. 나머지 3.9%는 아들, 시부모가 경영주라고 응답하였다.

본인을 경영주로 응답한 421명의 여성농업인은 대체로 고연령이며 무배우자인 것을 알 수 있다(<표 II-2>, <그림 II-3> 참조). 이들 여성의 70%가 60세 이상이며, 61%가 무배우자이다. 반면 남성경영주의 경우 50~60대 연령층의 비율이 60% 이상이지만, 여성에 비해 연령층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편이다. 또한 97.5%가 유배우자이다.²⁾ 이처럼 여성경영주의 대다수는 독신가구 고령여성인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는 남성경영주에 의해 대표되고, 여성이 경영주인 농가는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농가인 것이다. 참고

2) 본 조사대상 농가에서 60세 이상의 경영주중 여성은 38.2%를 차지한다(「2002년 농업기본통계 조사결과」에서는 이 비율이 20.5%로 본 조사결과보다 낮다). 70세 이상인 경우 경영주중 절반이 여성이다.

로 1,521명의 전체 조사대상 여성중 유배우 여성과 무배우 여성은 각각 81.3%, 18.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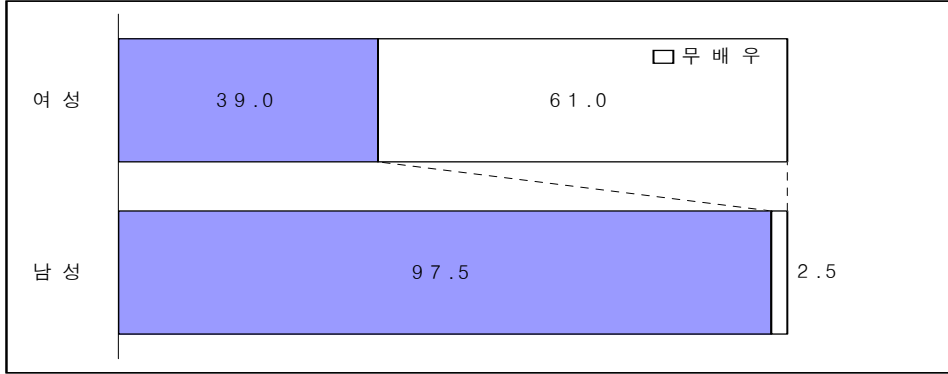


<그림 Ⅱ-2> 농가 경영주의 가구원 상태

<표 Ⅱ-2> 경영주의 성별 연령분포

단위: 명(%)

경영주	39세 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 이상	계
남성	79 (7.2%)	216 (19.7%)	329 (30.0%)	366 (33.4%)	107 (9.8%)	1,097 (100.0%)
여성	7 (1.7%)	40 (9.5%)	82 (19.5%)	186 (44.2%)	106 (25.2%)	421 (100.0%)
계	86 (5.7%)	256 (16.9%)	411 (27.1%)	552 (36.4%)	213 (14.0%)	1,518 (100%)



<그림 II-3> 경영주의 성별 혼인상태 (단위: %)

<표 II-3> 여성농업인의 경영주 여부별 가구형태

단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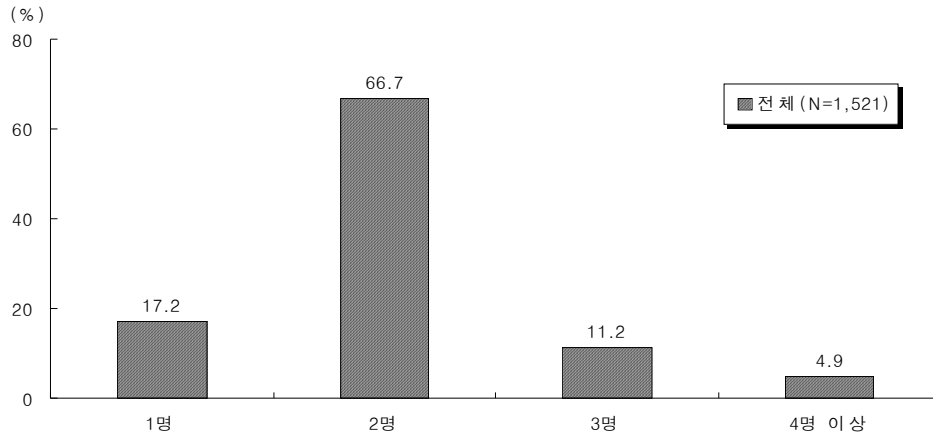
	독거가구	부부	2세대	3세대	계
경영주 아님	0(0.0)	545(50.2)	358(33.0)	183(16.9)	1,086(100.0)
경영주	176(42.7)	87(21.1)	89(21.6)	60(14.6)	412(100.0)

3. 농사현황

1) 농가내 농업종사자 수

농가내 농업종사자의 수는 <그림 II-4>와 같이, 전체 농가의 2/3(66.7%)가 2명으로 응답하였고, 농업종사자가 1인인 농가가 17.2%, 3명인 농가가 11.2%, 4명 이상인 농가가 4.9%로 분포한다.

영농형태별로 농가내 농업종사자 수를 보면 일반밭작물과 채소농가에서 여성농업인 혼자 농사를 짓는 농가의 비율이 2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4> 가구별 농업종사자 수

<표 II-4> 영농형태별 가구내 농업종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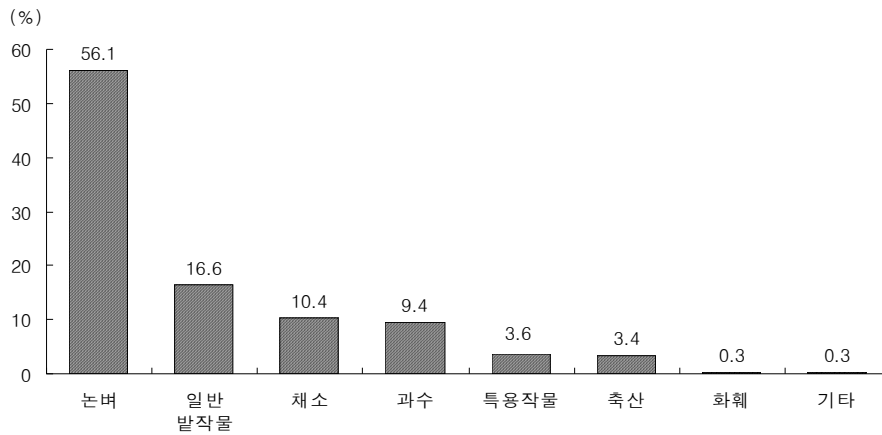
단위: %(가구)

	1명	2명 이상	계
논	14.3	85.7	100.0(854)
과	10.5	89.5	100.0(143)
채	23.4	76.6	100.0(158)
화	0.0	100.0	100.0(5)
일반밭작물	29.4	70.6	100.0(252)
특용 작물	14.8	85.2	100.0(54)
축	9.8	90.2	100.0(51)
기	0.0	100.0	100.0(4)
전	17.2	82.8	100.0(1,521)

2) 주영농 형태

조사대상 농가에서 지난 1년간 판매금액이 가장 큰 주영농 형태는 논벼가 56.1%, 일반 밭작물 16.6%, 채소 10.4%, 과수 9.4%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2002년 농업기본통계조사」에서 농가의 영농형태는 논벼가 55.1%, 일반 밭작물이 6.1%, 과수가 10.7%, 채소가 18.8%, 축산 5.5%, 특용작물이 2.6%로 분포한다.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우리 조사에서는 주 영농형태가 일반밭작물인 농가의

비중이 높은 반면, 채소농가의 비중이 적다. 이것은 본조사가 표본지역의 대상 농가 중에서 여성농업인이 없는 농가를 제외시켰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본조사에서는 여성농업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일반밭작물을 주 영농형태로 하는 농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대표되고 있다.



<그림 II-5> 주영농 형태

농가 경영주가 여성일 때, 그 농가의 주영농형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 보았다. <표 II-5>와 같이 여성경영주 농가는 상대적으로 전작농가와 채소농가가 많은 반면, 논벼, 과수, 축산농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경영주 농가는 자가소비 중심의 전통적 영농형태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것은 첫째 여성경영주의 노령 및 저학력과 무관치 않은 결과이지만, 둘째 동일연령과 학력의 경우에도 여성이 해당 영농기술과 필요한 자본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라 하겠다.

<표 II-5> 경영주의 성별 주영농형태

단위: 가구(%)

경영주	논벼	과수	채소	화훼	전작	특작	축산	계
남성	647 (59.2%)	115 7(10.5%)	105 (9.6%)	5 (0.5%)	134 (12.3%)	41 (3.7%)	46 (4.2%)	1,093 (100.0%)
여성	203 (48.9%)	28 (6.7%)	53 (12.6%)	0 (0.0%)	116 (27.6%)	13 (3.1%)	5 (1.2%)	421 (100.0%)
계	853 (56.3%)	143 (9.5%)	158 (10.4%)	5 (0.3%)	250 (16.5%)	54 (3.6%)	51 (3.4%)	1,514 (100.0%)

주: 기타 영농형태인 7가구 제외함.

여성농업인의 연령별로 농가의 주 영농형태가 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연령층에 관계없이 논벼농가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농촌상황에서 젊은 층이라고 볼 수 있는 40대까지의 여성농업인들에서 채소, 화훼, 특작, 축산 등을 주 영농형태로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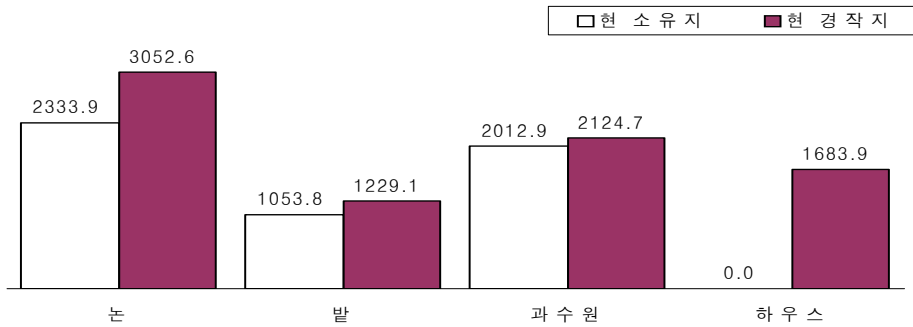
<표 II-6> 여성농업인의 연령, 학력별 주영농형태

단위: 가구(%)

		논벼	과수	채소	화훼	전작	특작	축산	계
연령	-39세	44 (51.2%)	6 (7.0%)	15 (17.4%)	2 (2.3%)	10 (11.6%)	4 (4.7%)	5 (5.8%)	86 (100.0%)
	40대	121 (47.3%)	33 (12.9%)	30 (11.7%)	2 (0.8%)	38 (14.8%)	11 (4.3%)	21 (8.2%)	256 (100.0%)
	50대	218 (52.9%)	45 (10.9%)	43 (10.4%)	1 (0.2%)	67 (16.3%)	18 (4.4%)	20 (4.9%)	412 (100.0%)
	60세-	471 (61.7%)	59 (7.7%)	70 (9.2%)	0 (0.0%)	137 (18.0%)	21 (2.8%)	5 (0.7%)	763 (100.0%)
학력	초졸이하	685 (58.5%)	104 (8.9%)	115 (9.8%)	2 (0.2%)	202 (17.3%)	40 (3.4%)	23 (2.0%)	1171 (100.0%)
	중졸	92 (44.9%)	29 (1.9%)	25 (12.2%)	0 (0.0%)	34 (16.6%)	6 (2.9%)	19 (9.3%)	205 (100.0%)
	고졸이상	77 (54.6%)	10 (7.1%)	18 (12.8%)	3 (2.1%)	16 (11.4%)	8 (5.7%)	9 (6.4%)	141 (100.0%)
계	854 (56.3%)	143 (9.4%)	158 (10.4%)	5 (0.3%)	252 (16.6%)	54 (3.6%)	51 (3.4%)	1517 (100.0%)	

3) 영농규모 및 농지 소유상태

농사규모를 살펴보면, 현재 경작지의 평균규모가 논 3,053평, 밭 1,229평, 과수원 2,125평, 하우스 1,684평으로 나타났다. 논, 밭, 과수원의 경우 경작지 면적이 소유지 면적보다 크다. 이러한 현상은 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논 소유지의 평균이 2334평으로 약 700평 이상을 추가적으로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것을 알 수 있다. 영농의 대규모화 추이를 엿볼 수 있다.



주: 평균값은 해당 농지가 있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것임.

<그림 II-6> 농가의 소유농지 및 경작지의 평균규모 (단위: 평)

조사대상 농가의 농지 소유실태는 <표 II-7>과 같다. 우선 우리나라 농가의 77.4%, 69.0%가 크기와 상관없이 각각 논과 밭을 소유하고 있으나, 과수원이 있는 농가는 11.9%로 나타난다.

전체 1,521 가구중 논이 전혀 없는 가구가 344가구로 22.6%를 차지한다. 그리고 0.5ha(약 1,500평) 미만의 영세농이 35.6%, 0.5~1ha가 21.0%이다. 논을 2ha(약 6천평) 이상 소유한 농가는 전체의 5.8%에 이른다.

밭을 전혀 소유하지 않은 농가는 472가구(31.0%)이며, 밭 소유 면적은 논에 비해 월등히 작다. 전체 농가의 절반(56.5%)이상이 1,500평 미만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과수원의 경우 훨씬 더 줄어들어 전체 농가의 88.1%가 과수원을 소유하지 않는다. 그러나 과수원이 있는 농가의 경우 그 면적은 밭면적보다 크고 다양하게 분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총소유농지를 산출해보면 논, 밭 등 농지가 전혀 없는 농가는 105가구(6.5%)이고, 나머지 93.5%는 다양한 크기의 농지를 소유한다. 0.5ha 미만 농가가 전체의 32.5%, 0.5~1ha가 27.5%이다. 2ha 이상을 소유한 농가는 10.5%이다. 전체농가가 소유한 농지는 평균적으로 2,788평으로 나타난다. 농가가 실제로 경작하는 농지는 소유한 농지규모보다 크다. 평균적으로 3,822평을 경작하고 있으므로, 약 1천평 정도를 임차하여 농사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조사농가의 경작지를 <표 II-7>의 마지막列에 제시된 전국통계치와 비교하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표 II-7> 조사농가의 소유농지와 경작지의 규모분포

단위: 가구(%)

	본 조사				경작지	전국농가의 경작지 (2002년)
	소유농지					
	논	밭	과수원	계		
없다	(22.6)	(31.0)	(88.1)	105(6.5)	9(0.6)	20,000(1.6)
- 0.5ha 미만	(35.6)	(56.5)	(5.9)	494(32.5)	488(32.1)	433,000(33.8)
0.5 - 1ha 미만	(21.0)	(7.0)	(3.0)	419(27.5)	379(24.9)	344,000(26.9)
1 - 2ha 미만	(14.9)	(4.1)	(2.4)	343(22.6)	388(25.5)	306,000(23.9)
2ha 이상	(5.8)	(1.3)	(0.6)	160(10.5)	257(16.9)	177,000(13.8)
계				1,521(100.0)	1,521(100.0)	1,280,000(100.0)
평균				2,788평	3,822평	

주: 전국통계는 통계청의 「2002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임.

여성농업인은 경영주 아니면 협업배우자의 지위를 갖고 농업에 종사한다. 따라서 이들이 생산자본의 소유자라는 지위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농지의 일부라도 여성농업인 명의로 된 농가는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논, 밭, 과수원을 소유한 농가중 여성농업인 소유의 농지가 있는 비율이 각각 19.3%, 16.4%, 12.7%이다. 그런데 이들 농가의 상당수가 소유농지 전체를 여성명의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독거노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소유한 면적은 절대규모에서는 영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여성농업인은 대다수가(80% 정도) 전혀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다. 가구가 소유한 전체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는 여성이 약 10% 정도가 되고, 나머지 10%는 농지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여 농지중 여성이 소유한 농지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논, 밭, 과수원별로 각각 14.5%, 15.1%, 11.2%이다. 전혀 농지가 없는 105가구를 제외하고, 1,416가구에서 논, 밭 등 여성이 소유한 농지의 비중은 14.9%이다.

전체 1,521가구가 소지한 농지의 평균규모가 2,788평인데, 1,521명의 여성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한 농지의 평균규모는 292평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가구가 갖고 있는 경지의 10.5%만이 여성농업인의 이름으로 등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8> 총소유 농지중 여성소유 농지의 비중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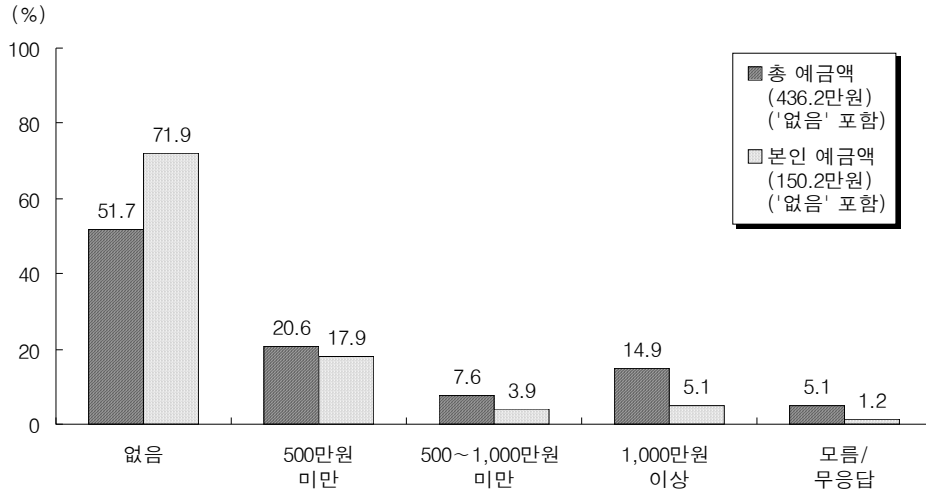
단위: 명(%)

	논	밭	과수원	총소유 경지
0	950(80.7)	877(83.6)	158(87.3)	1,106(78.1)
-50% 미만	63(5.4)	16(1.5)	3(1.7)	116(8.2)
50-100% 미만	29(2.5)	10(0.9)	1(0.5)	39(2.8)
100%	135(11.5)	146(13.9)	19(10.5)	155(10.9)
계	1,177(100.0)	1,049(100.0)	181(100.0)	1,416(100.0)
평균비중	14.5%	15.1%	11.2%	14.9%

주: 해당농지가 없는 농가 제외. 예컨대 총소유 경지의 경우 전혀 농지가 없는 105명을 제외한 1,416명을 대상으로 산출함.

4. 예금액 규모

농가의 총 예금액 평균은 4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여성농업인 본인 예금액은 150만원으로 나타났다. 예금액의 분포를 보면 예금액이 '없다'라고 한 응답자가 51.7%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그 중 본인 예금액이 '없다'고 한 여성 농업인은 71.9%로 매우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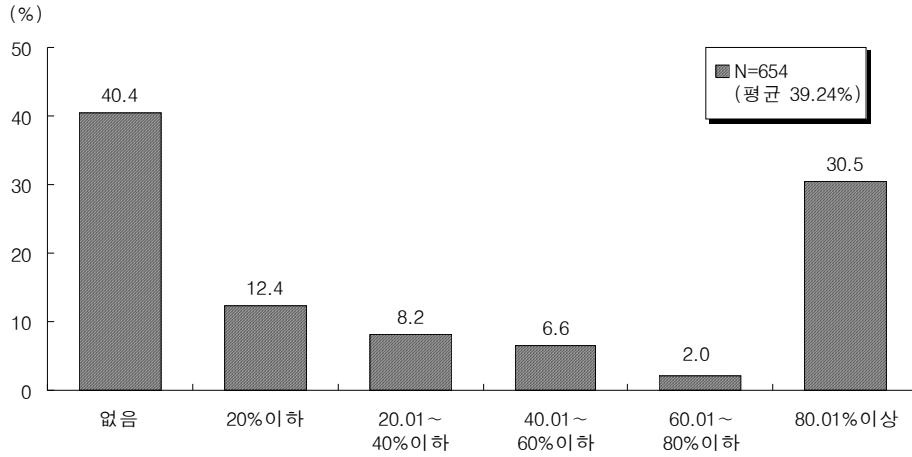


<그림 II-7> 총예금액과 본인예금액의 분포

예금액이 있다고 응답한 654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의 총예금중 여성농업인의 예금이 있는지 여부와 여성예금액 비중을 살펴보았다. <그림 II-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명의로 예금이 없는 가구가 40.4%이다. 나머지 가구들의 여성예금 비중은 다양하게 분포하는데 여성예금액 비중이 80% 이상인 가구가 3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이것은 대부분 여성독거노인가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실제로 여성농업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의 예금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여성독거가구에서 본인의 예금비중은 97.3%이어서 비독거가구의 여성예금액 비중인 20-30% 수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겸업종사자일 경우 본인의 예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여성전업농의 경우 대체로 협업배우자의 형태로 결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본인 명의의 현금소득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비농업부문에의 취업은 여성의 현금소득에 대한 접근을 높인다.

예금이 있다고 응답한 농가의 예금액중 여성명의로의 평균 예금액 비중은 39.2%이다.



<그림 II-8> 총 예금액 중 본인예금액 비중

<표 II-9> 주요 특성별 총예금액중 본인예금액 비중의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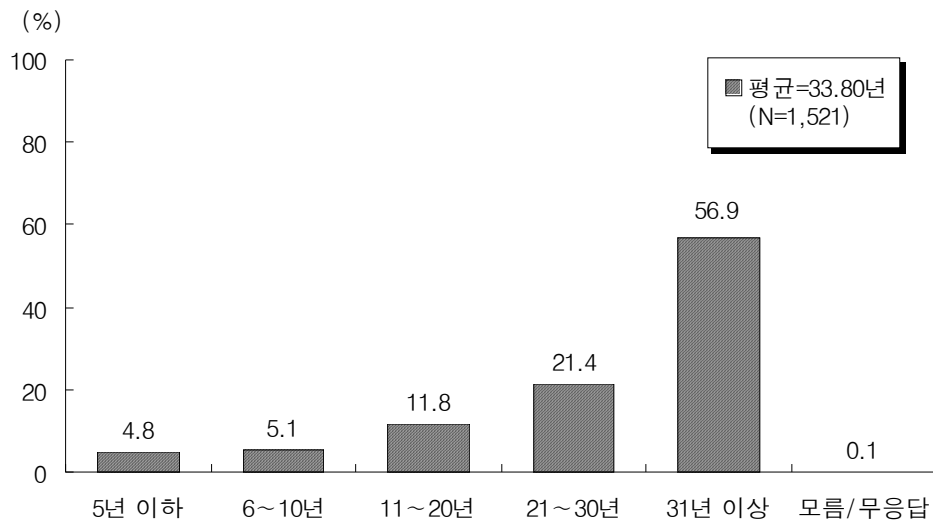
		0%	20% 이하	20.01-40% 이하	40.01-60% 이하	60.01-80% 이하	80.01% 이상	계	평균
전체		40.4	12.4	8.2	6.6	2.0	30.5	100.0(654)	39.2
연령별	39세 이하	36.0	38.0	8.0	2.0	6.0	10.0	100.0(50)	21.8
	40대	42.5	14.1	10.3	10.4	2.8	19.8	100.0(106)	31.9
	50대	47.6	11.0	10.4	6.1	1.8	23.2	100.0(164)	32.4
	60대	40.4	9.2	5.8	5.8	1.6	37.1	100.0(240)	44.1
	70세 이상	27.7	7.5	8.7	7.5	0.0	48.9	100.0(94)	56.2
겸업종사 기간	없음	42.7	11.0	8.1	6.4	2.3	29.5	100.0(579)	38.4
	1개월미만	33.3	66.7	.0	.0	.0	.0	100.0(3)	4.0
	1개월이상	22.2	20.1	9.7	8.3	.0	38.9	100.0(72)	47.6
가구원수	1명	2.1	.0	.0	1.1	.0	96.8	100.0(95)	97.4
	2명	53.6	9.0	9.7	7.2	1.7	18.6	100.0(289)	27.6
	3~4명	38.6	18.2	10.2	9.1	1.7	22.1	100.0(176)	33.4
	5명 이상	41.5	24.5	8.5	5.4	5.3	14.9	100.0(94)	27.2

Ⅲ. 여성농업인의 농업종사 현황 및 의식

1. 농업종사경력 및 향후계획

가. 농업종사경력

여성농업인 가운데 56.9%가 31년 이상의 장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해 왔으며, 21.4%는 21-30년 동안 종사해온 것으로 나타나 약 78%의 여성농업인이 20년 이상의 농업종사경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5년 이상의 비교적 짧은 영농경험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 여성농업인의 4.8%였으며 이외에 5.1%는 6-10년간 농업에 종사해왔다.



<그림 Ⅲ-1> 농업종사경력

여성농업인의 평균 농업종사시간은 33.80년이며,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의 노인층 여성농업인들이 평균 48.14년, 60대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40.58년 동안 농업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나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해

왔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농업인의 긴 농업종사경력은 여성농업인력의 노령화 현상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1> 주요특성별 농업종사경력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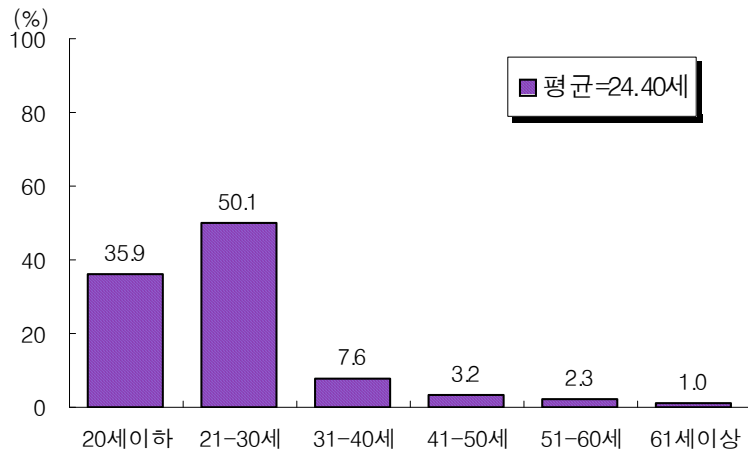
	5년이하	5-10년	11-20년	21-30년	31년 이상	모름 /무응답	계	평균 (년)
■연령별■								
39세이하	27(31.4)	28(32.6)	31(36.0)	-	-	-	86(100.0)	(9.35)
40대	13(5.1)	22(8.6)	107(41.6)	114(44.4)	1(0.4)	-	257(100.0)	(20.00)
50대	11(2.7)	10(2.4)	25(6.1)	170(41.3)	195(47.3)	1(0.2)	412(100.0)	(30.99)
60대	17(3.1)	15(2.7)	11(2.0)	27(4.9)	482(87.3)	-	552(100.0)	(40.58)
70세이상	5(2.3)	3(1.4)	5(2.3)	14(6.5)	187(87.4)	-	214(100.0)	(48.14)
■지난1년간 영농종사기간■								
3~6개월미만	8(14.8)	5(9.3)	8(14.8)	10(18.5)	22(40.7)	1(1.9)	54(100.0)	(29.36)
6개월 이상	65(4.4)	73(5.0)	171(11.7)	315(21.5)	843(57.5)	-	1467(100.0)	(33.97)
■지난 1년간 겸업종사기간■								
종사한적없음	64(4.7)	58(4.2)	151(11.0)	285(20.8)	813(59.3)	1(0.1)	1372(100.0)	(34.61)
1개월미만종사	3(20.0)	-	1(6.7)	6(40.0)	5(33.3)	-	15(100.0)	(26.47)
1개월이상종사	6(4.5)	20(14.9)	27(20.1)	34(25.4)	47(35.1)	-	134(100.0)	(26.34)
■영농형태별■								
논벼	34(4.0)	37(4.3)	87(10.2)	156(18.3)	540(63.2)	-	854(100.0)	(35.40)
과수	3(2.1)	6(4.2)	17(11.9)	46(32.2)	71(49.7)	-	143(100.0)	(32.76)
채소	11(7.0)	14(8.9)	18(11.4)	41(25.9)	74(46.8)	-	158(100.0)	(30.74)
화훼	2(40.0)	-	1(20.0)	1(20.0)	-	1(20.0)	5(100.0)	(13.00)
일반밭작물	15(6.0)	14(5.6)	31(12.3)	46(18.3)	146(57.9)	-	252(100.0)	(34.22)
특용작물	6(11.1)	1(1.9)	9(16.7)	14(25.9)	24(44.4)	-	54(100.0)	(30.24)
축산	2(3.9)	5(9.8)	15(29.4)	21(41.2)	8(15.7)	-	51(100.0)	(23.33)
■농가특성별■								
전업 농가	39(3.5)	45(4.0)	118(10.6)	213(19.1)	698(62.7)	-	1113(100.0)	(35.65)
겸업 농가	34(8.3)	33(8.1)	61(15.0)	112(27.5)	167(40.9)	1(0.2)	408(100.0)	(28.76)

취업유형별로는 지난 1년간 영농종사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여성농업인의 경우 평균 33.97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비해 영농종사기간이 3-6개월 미만인 여성농업인은 평균 29.36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연간 영농종사기간이 긴 여성농업인이 보다 긴 농업종사경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년간 농외겸업을 한 적이 없는 여성농업인이 겸업자에 비해 농업종사경력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 농가의 특성별로는 전업농가 소속 여성(평균: 35.65년)이 겸업농가 소속 여성(평균: 28.76년)보다 농업종사경력이 길며, 논벼, 일반밭작물, 과수 등을 주로 하는 농가의 여성이 화훼나 축산 등을 주로 하는 농가 소속 여성보다 농업종사경력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나. 농업시작연령

여성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한 연령대를 보면, 20세 이전에 이미 농업을 시작한 여성농업인이 전체의 35.9%, 21-30세에 시작한 경우가 50.1%로 대다수의 여성농업인이 20대에서 30대에 농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31-40세에 시작한 여성은 7.6%, 41세 이후에 시작한 경우는 6.5%였다. 평균적으로는 24.40세에 농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2> 농업시작연령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50.5%가, 60대에서는 41.1%가 20세 이전에 이미 농업을 시작한데 비해, 39세 이하와 40대 층에서는 20대 이전에 농업을 시작한 여성농업인이 각각 20.9%, 19.9%로 고연령층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비해, 50대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20대에 농사를 시작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30대에 들어서 비로소 농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39

세미만층과 40대에서는 10% 이상을 차지해 고연령층에 비해 저연령층에서 비교적 늦게 농업을 시작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 연령대별 농업시작연령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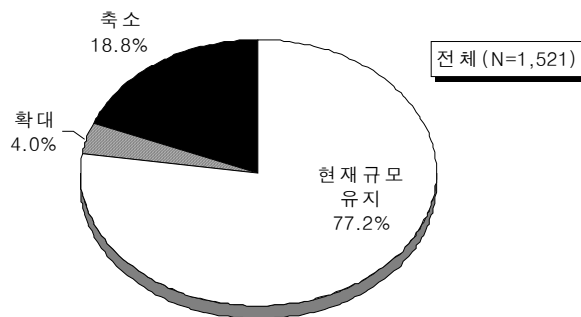
	농업시작연령						계	평균(세)
	20세이하	21-30세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39세이하	18(20.9)	59(68.6)	9(10.5)	-	-	-	86(100.0)	(25.02)
40대	51(19.8)	164(63.8)	32(12.5)	10(3.9)	-	-	257(100.0)	(25.16)
50대	142(34.5)	222(53.9)	26(6.3)	16(3.9)	6(1.5)	-	412(100.0)	(23.78)
60대	227(41.1)	254(46.0)	29(5.3)	10(1.8)	26(4.7)	6(1.1)	552(100.0)	(24.24)
70세이상	108(50.5)	63(29.4)	19(8.9)	12(5.6)	3(1.4)	9(4.2)	214(100.0)	(24.86)

$\chi^2=156.92$ $df=20$ $p=.000$

다. 향후 농업계획

(1) 생산규모 변경계획

앞으로 농업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77.2%의 여성농업인이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22.8%는 농업규모를 변경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가 18.8%로 확대하겠다는 여성농업인에 비해 현저히 많았다.



<그림 III-3> 생산규모 변경계획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16.3%, 40대에서는 9.3%가 확대계획이 있다고 응답해 50대(3.6%), 60대(1.3%), 70세이상(0.5%)의 응답율에 비해 현저히 높았다. 이로서 소수의 여성농업인만이 앞으로 농사규모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비교적 젊은 연령층이 그나마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연령층에서는 축소계획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현저히 많았다.

주영농형태별로는 논벼와 채소, 특작을 주로 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에게서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여타의 작물을 주로 하는 경우보다 많았다. 이에 비해, 확대 계획은 화훼농가와 축산농가 소속 여성농업인에게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축소 계획은 과수와 전작을 주로 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에게서 두드러졌다. 여타의 농업분야와 비교해 전작이나 과수재배는 기계화가 진척되지 않은 채 주로 여성노동력에 의존하여 농사를 지으며 따라서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이 큰 특징이 있다. 이러한 점이 여성농업인으로 하여금 농업규모를 축소할 계획을 갖게 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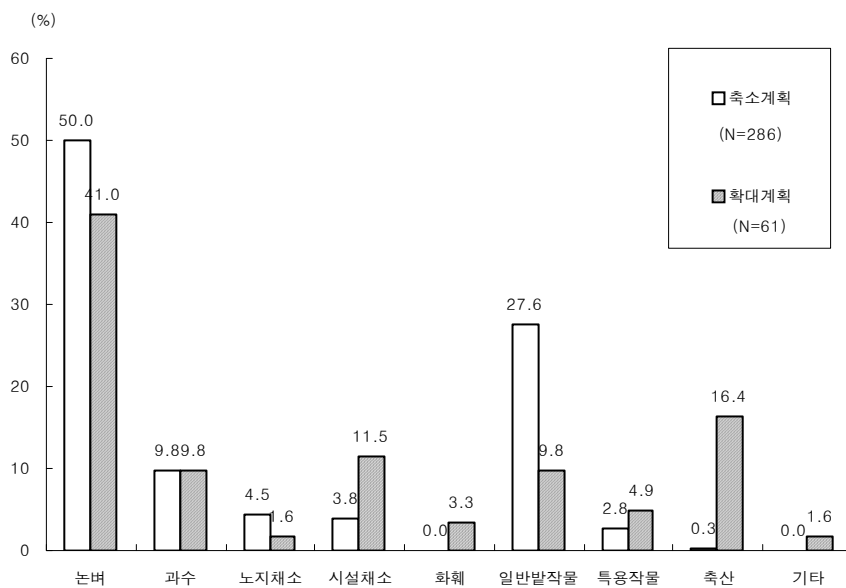
<표 III-3> 연령대별, 주영농형태별 생산규모 변경계획

단위: 명(%)

	현재규모유지	확대	축소	계	
■연령별■					
39세이하	60(69.8)	14(16.3)	12(14.0)	86(100.0)	$\chi^2=76.11$ df=8 p=.000
40대	185(72.0)	24(9.3)	48(18.7)	257(100.0)	
50대	333(80.8)	15(3.6)	64(15.5)	412(100.0)	
60대	432(78.3)	7(1.3)	113(20.5)	552(100.0)	
70세이상	164(76.6)	1(0.5)	49(22.9)	214(100.0)	
■영농형태별■					
논벼	671(78.6)	36(4.2)	147(17.2)	854(100.0)	$\chi^2=39.35$ df=12 p=.000
과수	101(70.6)	5(3.5)	37(25.9)	143(100.0)	
채소	130(82.3)	5(3.2)	23(14.6)	158(100.0)	
화훼	2(40.0)	2(40.0)	1(20.0)	5(100.0)	
일반밭작물	187(74.2)	6(2.4)	59(23.4)	252(100.0)	
특용작물	43(79.6)	1(1.9)	10(18.5)	54(100.0)	
축산	38(74.5)	6(11.8)	7(13.7)	51(100.0)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 있는 경우 어떤 농업분야를 축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50.0%의 여성농업인이 논벼생산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으며, 27.6%는 전작규모를 축소하겠다고 했다. 그 다음으로는 과수(9.8%), 노지채소(4.5%) 등의 순이었다. 확대계획이 있는 경우 41.0%가 논벼생산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축산, 시설채소, 과수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업유형별로 축소계획과 확대계획을 비교해 보면, 일반밭작물과 논벼, 노지채소 등의 전통적인 영농형태에 대해서는 확대계획보다 축소계획이 많아 여성농업인이 이 분야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축산과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 등에 대해서는 축소계획보다 확대계획이 많아 전통적인 작물에 비해 그 전망을 비교적 밝게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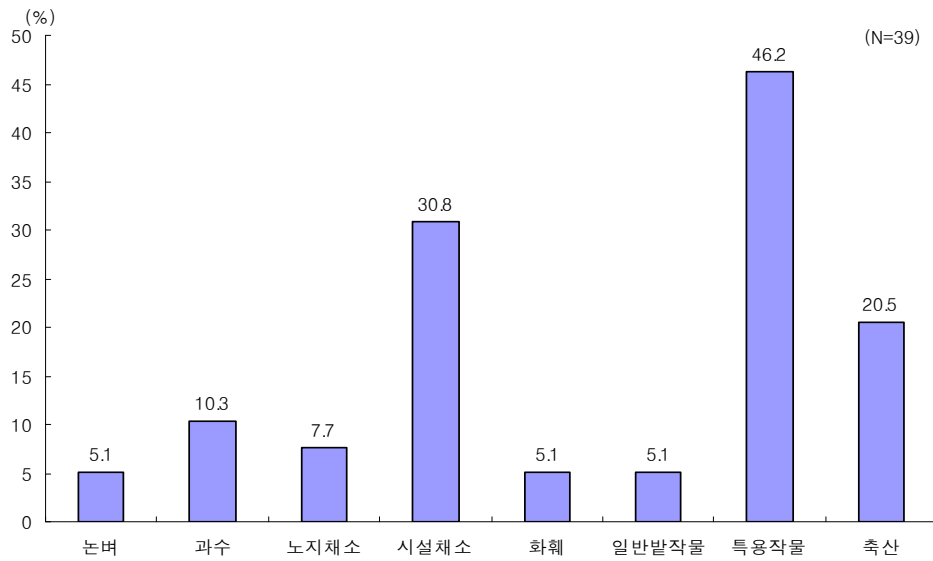


<그림 III-4> 규모 축소/확대 계획 분야

(2) 농업 및 관련분야 진출계획

현재 하고 있는 농업 이외에 새로운 농업생산 분야에 진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6%만이 진출의사를 밝혔다. 이 경우 진출하고 싶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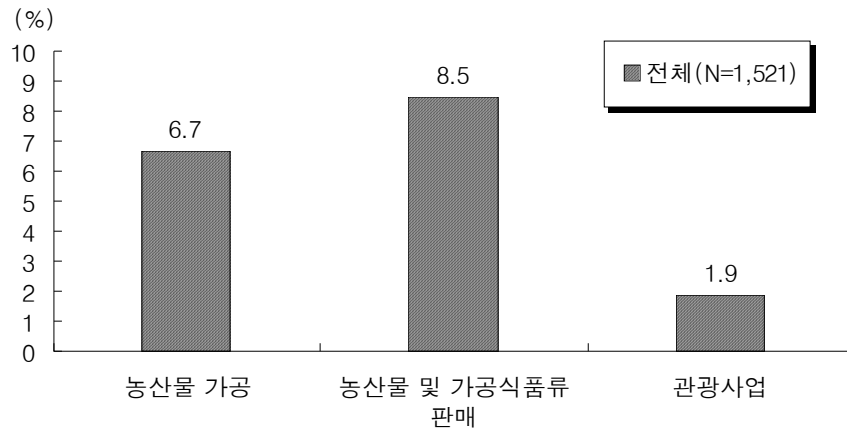
농업분야를 복수응답으로 물은 결과, 특용작물에 진출하겠다는 여성농업인이 4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시설채소(30.8%), 축산(20.5%), 과수(10.3%)의 순이었다. 이에 비해, 노지채소나 논벼, 일반밭작물, 화훼 등에 진출하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소수에 불과했다.



* 복수응답임.

<그림 Ⅲ-5> 신규진출계획 분야

농산물 가공과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 농촌관광 등의 관련분야에서 일하거나 창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11.1%가 이 가운데 어느 한 분야라도 진출의사가 있다고 응답해 농업생산분야 보다는 가공 및 유통 등의 관련분야에 진출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에 진출하고 싶다는 여성농업인이 8.5%였으며, 농산물 가공분야에 6.7%, 농촌관광분야에는 1.9%가 진출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6> 관련분야 진출의사

연령대별로는 40대의 여성농업인 가운데 24.9%가 진출의사가 있었으며 39세 이하에서는 19.8%, 50대에서는 14.1%가 관련분야에 진출하고 싶다고 응답해 비교적 저연령층의 여성농업인이 농산물 가공 및 유통 등의 관련분야에 진출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 연령대별 관련분야 진출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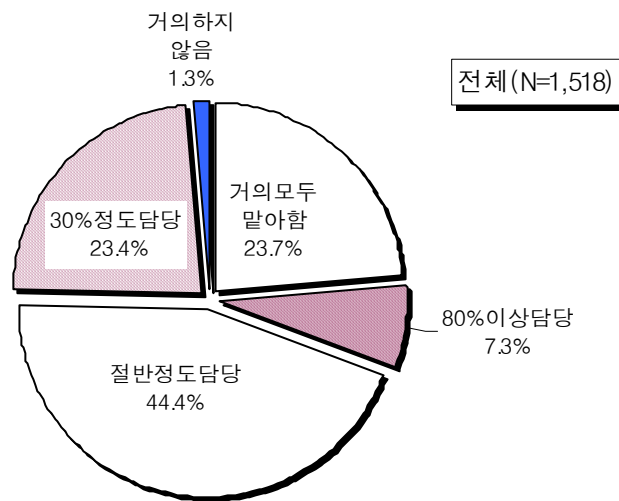
단위:명(%)

	진출의사		계
	있다	없다	
39세이하	17(19.8)	69(80.2)	86(100.0)
40 대	64(24.9)	193(75.1)	257(100.0)
50 대	58(14.1)	354(85.9)	412(100.0)
60 대	28(5.1)	524(94.9)	552(100.0)
70세 이상	2(0.9)	212(99.1)	214(100.0)
계	169(11.1)	1352(88.9)	1521(100.0)

$\chi^2=102.5$ $df=4$ $p=.000$

2. 농업노동 분담현황

해당 가구의 농업노동 전체에서 여성농업인 본인이 담당하는 정도에 대해서는 44.4%의 여성농업인이 ‘절반정도 담당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3.7%는 ‘거의 모든 농사일을 맡아한다’, 7.3%가 ‘80% 정도 담당하다’고 응답하여 75%가량의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 전체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0%정도 담당한다’는 경우는 23.4%, 거의 하지 않는다는 경우는 1.3%였다.



<그림 Ⅲ-7> 농업노동 기여도

<표 III-5> 주요특성별 농업노동 기여도

단위: 명(%)

	거의 전담	80%이상	절반정도	30%정도	거의하지 않음	계	
■연령별■							
39세이하	7(8.1)	5(5.8)	30(34.9)	40(46.5)	4(4.7)	86(100.0)	$\chi^2=187.60$ df=16 p=.000
40 대	25(9.8)	20(7.8)	144(56.3)	63(24.6)	4(1.6)	256(100.0)	
50 대	61(14.8)	34(8.3)	231(56.1)	83(20.2)	3(0.7)	412(100.0)	
60 대	168(30.5)	36(6.5)	224(40.7)	120(21.8)	3(0.5)	551(100.0)	
70세이상	98(46.0)	15(7.0)	45(21.1)	49(23.0)	6(2.8)	213(100.0)	
■영농형태별■							
논 벼	174(20.4)	58(6.8)	353(41.4)	255(29.9)	3(1.5)	853(100.0)	$\chi^2=125.20$ df=24 p=.000
과 수	23(16.8)	10(7.0)	80(55.9)	30(21.0)	-	143(100.0)	
채 소	48(30.6)	18(11.5)	69(44.0)	21(13.4)	1(0.6)	157(100.0)	
화 훼	-	-	3(60.0)	2(40.0)	-	5(100.0)	
전 작	100(36.7)	20(7.9)	104(41.3)	26(10.3)	2(0.8)	252(100.0)	
특 작	12(22.6)	-	33(62.3)	7(13.2)	1(1.9)	53(100.0)	
축 산	2(3.9)	4(7.8)	31(60.8)	11(21.6)	3(5.9)	51(100.0)	
■농가특성별■							$\chi^2=27.77$
전업 농가	256(23.1)	62(5.6)	521(46.9)	261(23.5)	10(0.9)	1110(100.0)	df=4
겸업 농가	103(25.3)	48(11.8)	153(37.5)	94(23.0)	10(2.5)	408(100.0)	p=.000

이 가운데, ‘모른다’는 응답과 무응답을 제외하고 연령대별로 비교해보면,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46.0%가 ‘거의 모든 일을 맡아한다’고 응답하여 현저히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이는 단독가구 중 상당수가 이 연령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연령층에서는 ‘30%정도 담당’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적지 않은데, 이 경우는 가구 내에 조사대상이 된 여성농업인 이외에 다른 농업종사자가 있는 경우로 보인다. 반면, ‘절반정도 담당’하는 비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

이에 비해, 40대, 50대 60대에서는 각각 56.3%, 56.1%, 40.7%가 ‘절반 정도 담당한다’고 응답하여 그 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30% 정도 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참여정도는 연령층에 따라 특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20대 중반에 농업을 시작한 이후 30대까지는 비교적 제한

된 수준에서 농업노동에 기여하다가 40대 들어 농업노동 기여도가 증가해 전체 농업노동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게 되며, 이러한 경향은 50대까지 계속된다. 60대들어, 특히 70세 이후에는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농사를 담당하고 가구 내에 다른 농업종사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업노동 참여정도를 줄여 나가는 경향이 현저하다.

농가의 주요 영농형태별로는 전작과 채소를 주로 하는 농가 여성이 거의 모든 농사일을 맡아하거나 80%이상 담당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이에 비해, 특용작물, 과수, 화훼, 축산 등을 주로 하는 농가 여성에게서는 ‘절반정도 담당한다’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다. 이에 비해 30% 정도 하는 경우는 논벼를 주로 짓는 농가와 화훼농가 여성에게서 비교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특성별로는 겸업농가 소속 여성농업인이 전업농가 여성에 비해 거의 모든 농사일을 맡아하거나 80% 이상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절반정도 하는 경우는 전업농가에서 보다 많았다. 이처럼 겸업농가에서는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력의 핵심이며, 전업농가에서는 농업노동의 절반 정도를 기여하고 있다.

현재 해당농가에서 경영하고 있는 경지면적별로는 1500평 미만 농가에서는 거의 모든 일을 맡아한다는 여성농업인이 46.3%로 1500평 이상의 경지를 경영하는 농가에 비해 그 비율이 현저히 높았다. 이에 비해 1500평 이상의 경지경영 농가에서는 약 50%의 여성농업인이 절반 정도의 농업노동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1500평 미만의 소규모 농가와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표 III-6> 경지경영면적별 농업노동 기여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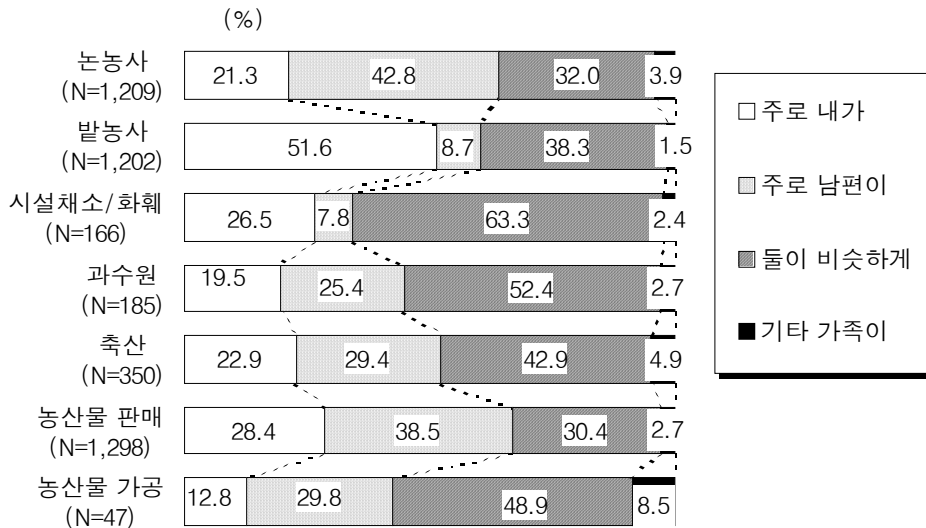
	거의 전담	80%이상	절반정도	30%정도	거의하지 않음	계
경지경영없음	2(22.2)	-	2(22.2)	5(55.6)	-	9(100.0)
1500평미만	225(46.3)	43(8.9)	134(27.6)	78(16.1)	6(1.2)	486(100.0)
1500-3000평미만	81(21.4)	29(7.7)	169(44.6)	93(24.5)	7(1.9)	379(100.0)
3000-6000평미만	40(10.3)	27(6.96)	218(56.2)	102(26.3)	1(0.3)	388(100.0)
6000평이상	11(4.3)	11(4.3)	151(59.0)	77(30.1)	6(2.3)	256(100.0)
계	359(23.7)	110(7.3)	674(44.4)	365(23.4)	20(1.32)	1518(100.0)

$\chi^2=265.94$ $df=16$ $p=.000$

농업 분야별 생산과 판매, 가공 등에서 여성농업인 자신과 남편, 그 외의 다른 가구원 가운데 누가 주로 노동을 담당하는지 아니면 여성농업인과 남편이 비슷하게 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논농사의 경우는 42.8%가 남편이 주로 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32.0%는 여성농업인과 남편이 비슷하게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밭농사의 경우 51.6%의 여성농업인 자신이 주로 한다고 응답해 남편이 주로 한다는 응답이 많은 논농사의 경우와는 대조를 보였다. 시설채소/화훼, 과수, 축산은 여성농업인과 남편이 함께 한다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이 각각 63.3% , 52.4%, 42.9%로 부부노동력 중심의 노동력 구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업분야별로 핵심 노동력이 서로 비교되는데, 논농사일은 남편이 주로 하는데 비해, 밭농사는 여성농업인이 주로 담당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논/밭=남/여의 영역구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설채소나 화훼, 과수원, 축산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농업노동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농산물 판매에 대해서는 38.5%가 남편이 주로 하는 것으로, 30.4%는 부부가 함께 하는 것으로 응답했으며 28.4%는 여성농업인 자신이 주로 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는 48.9%가 부부가 함께 한다고 응답했으며 29.8%는 남편이 주로, 12.8%는 여성농업인 자신이 주로 한다고 응답했다.



<그림 III-8> 분야별 농업노동 기여도

3. 노동시간

농업노동은 계절성을 띠며, 그에 따라 농업인의 노동시간은 기간별로 편차가 매우 큰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을 알아보기 위해 우선 소속농가에서 주로 하는 농업이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되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14.4%는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85.6%는 구분이 있다고 응답했다. 농번기/농한기의 구분이 있는 경우 농번기 기간은 6-9개월이라는 응답자가 58.6%, 3-6개월이 21.0%, 9개월이상이 16.1%였으며, 3개월 미만이라는 응답자는 3.4%에 불과했다.

가. 농업노동시간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을 보면, 농번기에는 약 60%의 여성농업인이 10-14시간 정도 농업노동을 하고 있으며 15시간 이상 농업을 하는 여성들도 3.7% 있었다. 이외에 26.6%는 5-9시간, 10.1%는 4시간 이하의 시간 동안 농업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한기에는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을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4시간 이하만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9%의 여성농업인은 5-9시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며 10시간 이상 하는 경우는 0.8%에 불과했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43.8%의 여성농업인이 10-14시간, 40.2%는 5-9시간동안 농업노동을 하였으며,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이 4시간 이하인 경우는 15.1%, 15시간 이상은 경우는 0.9%였다.

<표 Ⅲ-7> 시기별 농업노동시간

단위: 명(%)

	하지않음	4시간이하	5-9시간	10-14시간	15시간이상	계
농번기	-	131(10.1)	346(26.6)	776(59.6)	48(3.7)	1301(100.0)
농한기	824(63.3)	378(29.0)	90(6.9)	10(0.8)	-	1302(100.0)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	33(15.1)	88(40.2)	96(43.8)	2(0.9)	219(100.0)

평균 농업노동시간은 농번기에는 9시간 32분이었으며, 농한기에 농업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하루 평균 3시간 13분 동안 하여 농한기의 농업노동시간은 농번기의 약 1/3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 평균 8시간 25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농번기의 경우 50대 여성농업인이 하루 평균 10시간 14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여 농업노동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그 다음이 40대로 9시간 49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였다. 농한기에도 농업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 연령대에서 농업노동시간이 비교적 길었으며,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40대가 9시간 13분, 50대가 9시간 6분 동안 농업노동을 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농업노동시간이 길었다. 반면, 39세 이하의 저연령층과 70세 이상의 노년층 여성농업인들의 농업노동시간은 비교적 짧았다.

<표 III-8> 연령대별 평균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농번기, 농한기 구분 있음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농번기 노동시간			농한기			농업	가사	농업 +가사
	농업	가사	농업 +가사	농업	가사	농업 +가사			
전체	9:32 (N=1301)	2:38 (N=1292)	12:10	3:13 (N=478)	3:20 (N=1294)	6:33	8:25 (N=219)	2:59 (N=219)	11:24
■연령별■									
39세이하	8:04	3:34	11:38	2:31	4:32	7:03	7:16	4:00	11:16
40대	9:49	2:55	12:43	3:10	3:51	7:01	9:13	3:09	12:22
50대	10:14	2:28	12:42	3:47	3:14	7:01	9:06	2:48	11:54
60대	9:29	2:34	12:03	2:59	3:13	6:12	8:14	2:46	11:00
70세이상	8:37	2:35	11:11	3:04	2:56	6:00	5:07	2:48	7:55

주영농형태별로는 농번기 농업노동시간은 특작을 주로 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11시간 31분으로 가장 긴 시간동안 농업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과수농가의 여성농업인으로 하루 평균 10시간 47분 동안 농업노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 주영농형태별 평균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농번기, 농한기 구분 있음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농번기 노동시간			농한기					
	농업	가사	농업 +가사	농업	가사	농업 +가사	농업	가사	농업 +가사
논벼	9:27	2:38	12:05	3:14	3:22	6:35	8:17	2:40	10:57
과수	10:47	2:45	13:32	2:59	3:20	6:19	9:30	2:35	12:05
채소	9:01	2:45	11:46	2:52	3:20	6:11	8:41	2:59	11:40
화훼	9:00	3:30	12:30	-	4:30	4:30	5:40	5:00	10:40
전작	9:05	2:36	11:41	3:26	3:20	6:46	6:53	2:41	9:34
특작	11:31	2:20	13:50	3:24	3:09	6:33	9:20	2:56	12:16
축산	-	-	-	-	-	-	8:11	3:33	11:44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은 경지경영면적에 따라서도 서로 비교되는데, 농번기와 농한기, 농번기/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 모두 경지가 넓을수록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표 Ⅲ-10>경지경영면적별 농업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농번기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사례수 (명)	평균시간	사례수 (명)	평균시간
경지경영없음	(4)	8:45	(5)	5:00
-1500평미만	(425)	8:30	(62)	6:28
-3000평미만	(334)	9:31	(45)	8:41
-6000평미만	(325)	10:17	(63)	9:34
6000평이상	(213)	10:30	(44)	9:41
전체	(1301)	9:32	(219)	8:25
	F=20.50 df=4 p=.000		F=11.38 df=4 p=.000	

나. 가사노동시간

여성농업인 대부분은 농업노동과 함께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가사노동시간은 농업주기에 따라 농번기에는 52.9%가 1-2시간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4시간 하는 경우도 39.3%가 되어 거의 대부분의 여성농업인들이 하루 1-4시간 정도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5-6시간 하는 여성농업인은 6.4%, 7시간 이상 하는 경우는 0.7%였다. 이에 비해 농한기에는 53.4%가 3-4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29.4%는 1-2시간 동안 가사노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5-6시간 하는 여성농업인도 13.8%나 되어 농번기보다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영농형태가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43.8%가 3-4시간동안, 42.9%가 1-2시간동안 가사노동을 하고 있으며, 12.3%는 5-6시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1> 시기별 가사노동시간

단위: 명(%)

	하지않음	1-2시간	3-4시간	5-6시간	7시간이상	계
농번기	10(0.8)	689(52.9)	511(39.3)	83(6.4)	9(0.7)	1302(100.0)
농한기	8(0.6)	383(29.4)	695(53.4)	180(13.8)	36(2.8)	1302(100.0)
구분없음	-	94(42.9)	96(43.8)	27(12.3)	2(0.9)	219(100.0)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농번기에는 하루 2시간 38분이었고 농한기에는 3시간 20분으로 농번기에 비해 평균 42분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평균 가사노동시간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농업노동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농번기 가사노동시간은 39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이 3시간 34분으로 타연령층에 비해 많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투입했다. 그리고 농한기와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도 이 연령층의 여성농업인이 가장 긴 시간동안 가사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노동시간은 40대층과 50대층에서 가장 긴데 비해, 가사노동시간은 39세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8>.

가사노동은 가족규모와 유형에 따라서도 비교되는데, 농업주기와 관계없이 가

족규모가 클수록 여성농업인은 긴 시간동안 가사노동을 하고 있으며, 가족유형이 단독가구와 같이 단순한 가구보다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사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이 가사노동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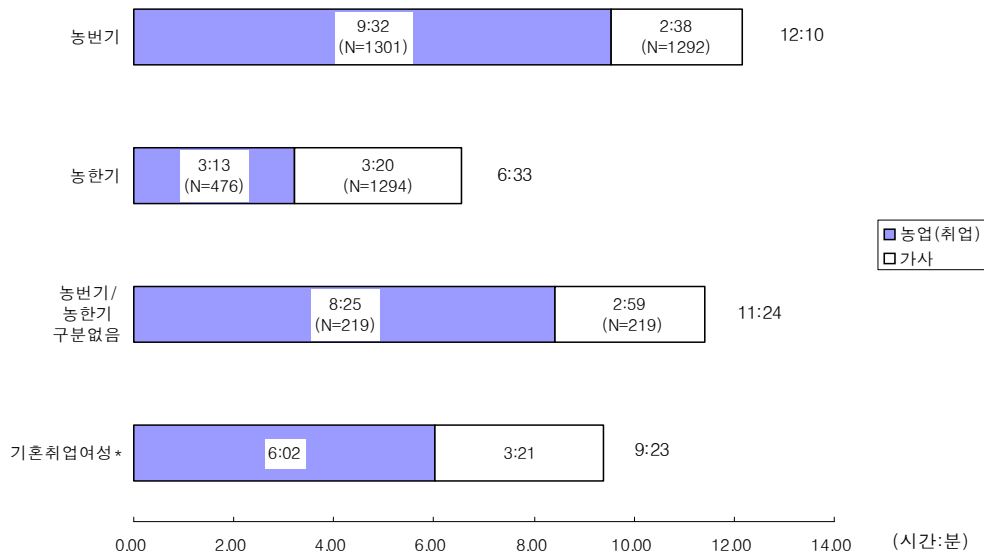
<표 Ⅲ-12> 가족규모 및 유형별 가사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가구원수 1인	2:13	2:36	1:56
2인	2:35	3:16	2:58
3-4인	2:47	3:37	2:59
5인이상	2:58	3:44	3:21
	F=14.582 df=3 p=.000	F=24.114 df=3 p=.000	F=4.977 df=3 p=.002
가구유형 단독가구	2:13	2:36	1:56
부부가구	2:35	3:17	2:54
부모자녀가구	2:46	3:35	3:08
3세대가구	2:56	3:38	3:10
기타	2:50	3:40	3:30
	F=9.999 df=4 p=.000	F=16.435 df=4 p=.000	F=3.376 df=4 p=.011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을 종합해 보면, 농번기에는 농업노동에 하루 평균 9시간 32분, 가사노동에 평균 2시간 38분을 투입하고 있으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친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10분에 달했다. 이에 비해, 농한기에는 평균 농업노동시간이 3시간 13분으로 줄어들고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20분으로 늘어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치면 하루 평균 6시간 33분 정도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이 8시간 25분, 가사노동시간이 2시간 59분이었으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친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24분이었다.



* 기혼취업여성의 노동시간은 통계청(2000), 「1999 생활시간조사보고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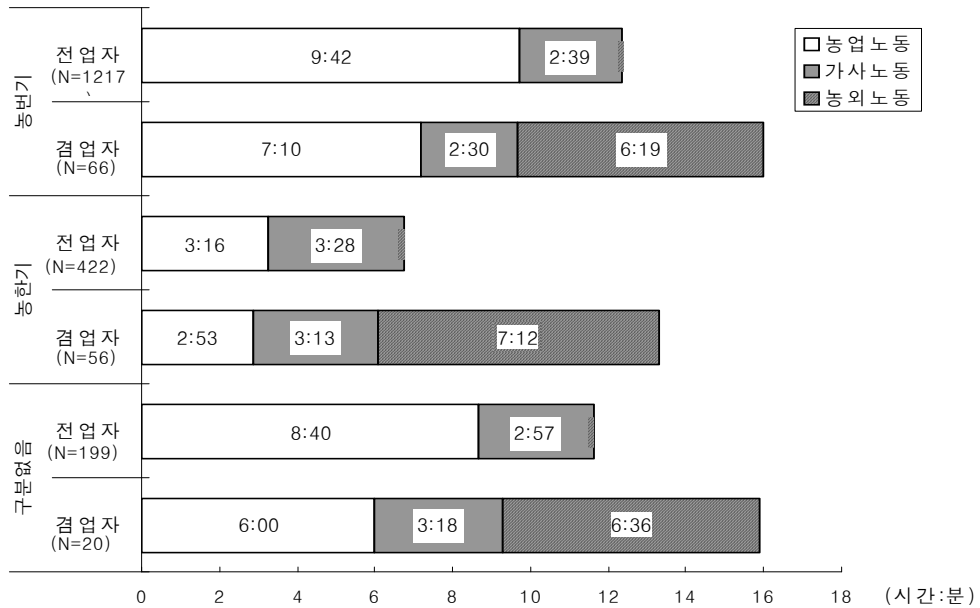
<그림 III-9> 여성농업인과 기혼취업여성의 노동시간

전체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6시간 2분을 취업노동에 투입하고 3시간 21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여 총 노동시간이 9시간 23분에 이르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한기를 제외하고는 하루 2시간 이상, 길게는 3시간 30분 정도 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기혼취업여성과 비교해 여성농업인들은 취업노동시간은 현저히 긴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짧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 농외노동시간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에 더해 농외노동까지 하는 겸업자가 포함되어 있다. 주영농형태가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있는 농가의 경우 농번기에는 93.5%의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만을 하고 있으며 6.5%는 농업노동을 하면서 농외노동에도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그리고 농한기에 농업노동을 하

는 여성농업인(N=478) 가운데에는 88.3%는 농업노동만을, 11.7%는 농업노동과 농외노동을 함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0> 전·겸업별 노동시간

이들 겸업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을 농업전업자와 비교해보면, 겸업자의 경우 농업노동시간은 현저히 적지만, 농외노동시간이 기간에 따라 적게는 하루 평균 6시간 19분에서 길게는 7시간 12분에 이르며, 결과적으로 전체노동시간은 농업 전업 여성농업인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외취업은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겸업취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 증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겸업자의 농외노동시간을 연령대별로 보면, 농번기의 경우에는 40대 겸업자의 농외노동시간이 6시간 50분으로 가장 길고 그 다음이 39세미만 겸업자로 6시간 24분을 농외노동에 투입하였다. 이에 비해, 농한기의 농외노동시간은 모든 연령대에서 농번기보다 증가하였으며, 특히 50대 겸업자의 농외노동시간이 7시간 41

분으로 가장 길었고 농번기에 비해 1시간 38분 가량 시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3> 연령대별 농외노동시간

단위: 시간:분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39세이하	6:24	7:00	7:00
40대	6:50	7:00	6:16
50대	6:03	7:41	7:15
60대	6:14	6:56	10:00
70세이상	5:40	6:40	5:40
전체	6:19 (N=84)	7:12 (N=56)	6:36 (N=20)

라. 총노동시간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이에 더해 농외노동을 하는 경우에는 농외노동시간까지 합쳐 여성농업인의 총노동시간을 보면, 농번기에는 54.8%가 하루 평균 10-14시간의 일을 하며 28.8%는 15시간 이상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한기에는 53.6%가 하루 평균 4시간 미만의 일을 하며 33.5%는 5-9시간, 10.5%는 10-14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55.7%가 하루에 10-14시간 일을 하고 23.3%는 15시간 이상, 18.3%는 5-9시간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4> 시기별 총노동시간

단위: 명(%)

	4시간미 만	5-9시간	10-14시간	15시간이 상	계	평균 (시간: 분)
농번기	16(1.2)	197(15.1)	714(54.8)	375(28.8)	1302(100.0)	13:25
농한기	698(53.6)	436(33.5)	137(10.5)	31(2.4)	1302(100.0)	6:59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6(2.6)	40(18.3)	122(55.7)	51(23.3)	219(100.0)	13:03

연령대별로는 농번기와 농번기/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40대 여성농업인이 가장 긴 시간동안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한기에는 39세 미만 연령층의 총노동시간이 가장 길었다. 이에 비해, 농번기와 농한기, 농번기와 농한기 구분이 없는 경우 모두 70세 이상의 노동시간이 가장 짧았다.

<표 Ⅲ-15> 연령대별 총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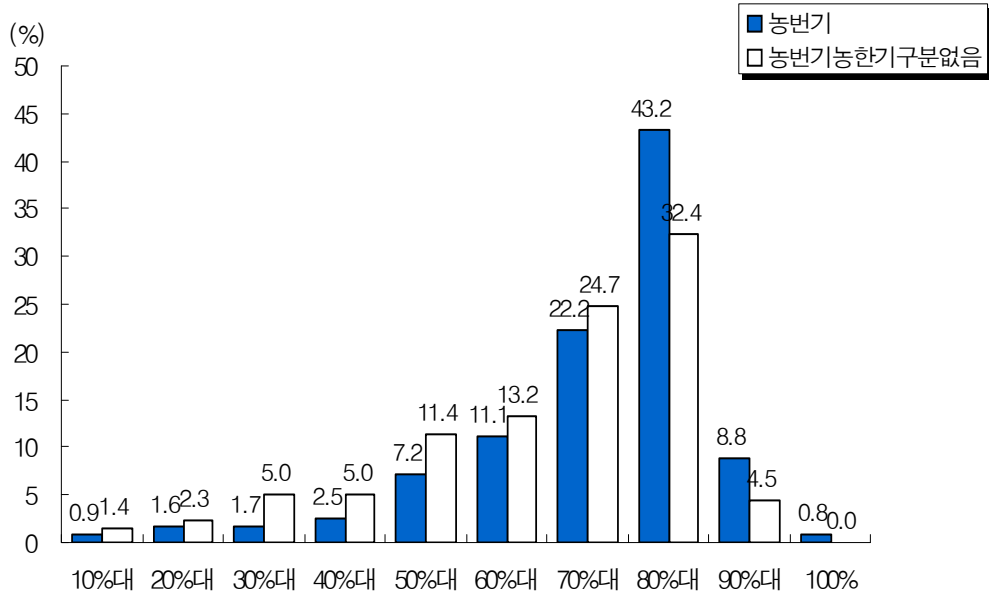
단위: 시간:분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39세미만	13:04	8:41	12:40
40대	13:56	8:28	14:00
50대	13:49	7:24	13:25
60대	13:20	6:23	12:38
70세이상	12:29	5:49	10:05
	F=14.82 df=4 p=.000	F=23.23 df=4 p=.000	F=13.91 df=4 p=.000

마. 총노동시간 대비 농업노동시간 비율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대부분의 경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으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농외노동까지 포함한다. 이 가운데 농업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을 알아보기 위해 총노동시간 중 농업노동시간의 비율을 살펴보았다. 먼저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되는 경우에는 농번기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³⁾, 그 기간 동안 총노동시간 대비 농업노동시간 비율은 최소 11.1%에서 100%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적으로는 총 노동시간의 74.9%를 농업노동에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최소 11.8%에서 최대 94.7%까지 분포되어 있었으며, 평균적으로는 총 노동시간의 69.0%를 농업노동에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농한기에는 많은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을 하지 않아 분석에서 제외했다.



<그림 III-11> 총노동시간대비 농업노동시간 비율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있는 경우 43.2%의 여성농업인이 농번기 총노동시간 중 80%정도를 농업노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22.2%는 70.0-79.9% 정도의 시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고 있어 약 65%의 여성농업인이 총노동시간의 70-80%대를 농업노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60.0-69.9%의 시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는 여성농업인은 11.1%, 50.0-59.9% 정도 투입하는 여성농업인은 7.2% 정도였다. 그리고 90.0% 이상의 시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는 여성농업인도 8.8%나 되었으며 전적으로 농업노동만을 하는 여성농업인도 소수 있었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32.4%가 총노동시간의 80.0-89.9% 정도를 농업노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24.7%는 70.0-79.9%정도를 투입하여 총 57.1%가 총노동시간의 70-80%대를 농업노동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13.2%의 여성농업인은 총노동시간의 60.0-69.9%를, 11.4%는 총노동시간의 50.0-59.9%를 농업노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총 노동시간의 30-40%대를 투입하는 여성농업인은 각각 5.0% 정도였다. 그리고 주영농형태가 농번기와 농한기

의 구분이 없는 경우 4.6%의 여성농업인이 총노동시간의 90% 이상을 투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농업노동시간 비율을 비교해보면, 먼저 농번기의 경우 39세 미만이 여성농업인은 총노동시간의 62.5%를,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총노동시간의 60.9%를 농업노동에 투여하고 있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총노동시간 대비 농업노동시간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령대는 가사노동시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길고 농외취업을 할 경우 농외노동시간도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업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은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50대와 60대의 여성농업인은 농번기나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나 모두 농업노동에 투여하는 시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39세 미만의 연령대와 비교해 이 연령대에는 자녀양육을 비롯한 가사노동의 부담으로부터 다소 벗어나 농업노동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표 III-16> 연령대별 총노동시간 대비 농업노동시간 비율

	농번기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39세미만	62.5%	60.8%
40대	71.7%	68.5%
50대	77.8%	73.0%
60대	76.2%	71.9%
70대	74.1%	58.4%
전체	74.9%	69.0%
	F=18.02 df=4 p=.000	F=4.40 df=4 p=.002

<표 III-17> 농업노동기여도별 총노동시간 대비 농업노동시간 비율

	농번기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거의 전담	75.3%	70.0%
80%정도	74.6%	67.3%
절반정도	78.0%	72.2%
30%정도	70.8%	60.5%
거의하지않음	41.2%	42.6%
	F=32.37 df=4 p=.000	F=5.78 df=4 p=.000

농업노동 기여도별로 농업노동시간의 비중을 비교하면, 농가의 전체 농업노동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50% 정도 참여하는 여성들이 농번기의 경우에는 전체 노동시간 중 74.6%,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72.2%를 농업노동에 투여하고 있어 농업노동에 집중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농가의 농업노동을 거의 전담하는 여성농업인이 총노동시간 중 농번기에는 75.3%,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70.0%로 농업노동시간 비중이 높았다. 이에 비해, 30% 정도 담당하는 여성은 농번기에는 총노동시간의 70.8%,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총노동시간의 60.5%를 농업노동에 투여하여 농업노동 기여도가 절반이상인 여성농업인에 비해 농업노동에 집중하는 비율이 떨어졌다. 특히, 농업노동을 거의 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은 농번기에는 총노동시간의 41.2%,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총노동시간의 42.6%를 농업노동에 투여해 농업노동보다는 가사노동이나 농외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의 농업노동에 따른 육체적 부담이 여성들로 하여금 이농을 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에서 농촌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지 여부에 대한 응답별로 평균농업노동시간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대와는 달리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들 보다 오랜 시간 동안 농업노동을 하고 있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노동시간에 있어서도 농촌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이 이농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보다 오히려 길었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총노동시간 대비 농업노동시간의 비율에 있어서는 농번기 농업노동시간 비율에 있어서는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이 총노동시간 중 75.8%를 농업노동에 투입하고 이농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67.1%를 농업노동에 투입하고 있어 농촌에 계속 거주하기를 원하는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볼 때, 장시간의 노동에 따른 농업의 어려움이 여성들의 이주 의사를 가져오는 요인으로서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8> 농촌 거주/이농의사별 노동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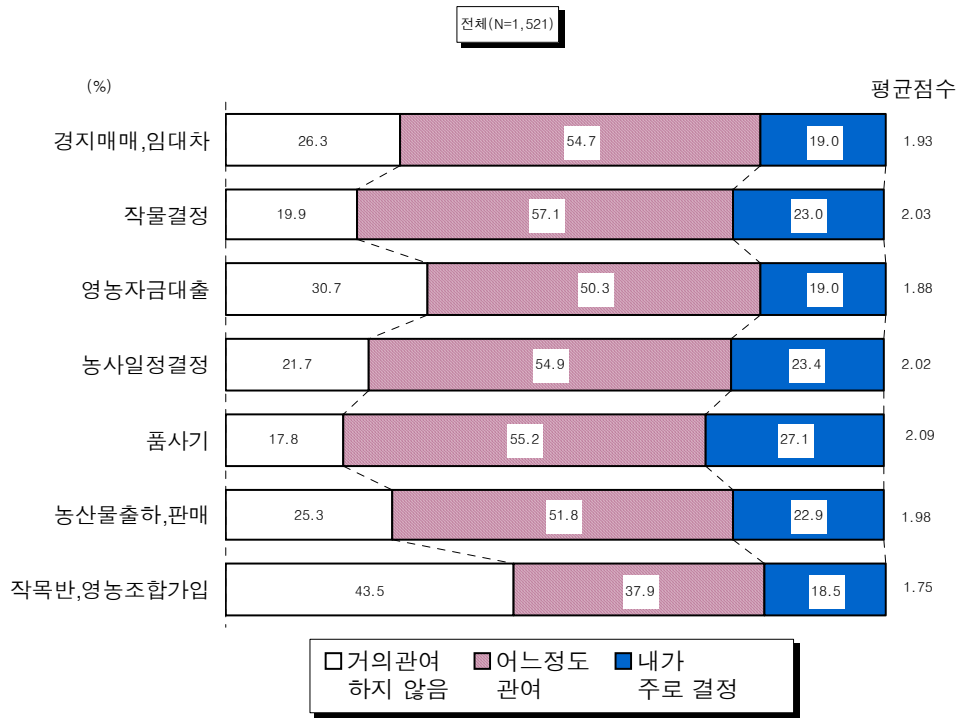
	농업노동시간 (시간:분)		총노동시간 (시간:분)		농업노동시간비율 (단위: %)	
	농번기	농번기/ 농한기 구분없음	농번기	농번기/ 농한기 구분없음	농번기	농번기/ 농한기 구분없음
농촌계속거주	9:36	8:20	13:26	13:03	75.8	69.1
이농희망	8:49	9:02	13:13	13:00	67.1	68.0
	F=6.737 df=1 p=.000	F=1.020 df=1 p=.314	F=0.976 df=1 p=0.323	F=0.01 df=1 p=0.920	F=36.27 df=1 p=.000	F=0.089 df=1 p=0.766

4.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농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에 여성농업인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논밭의 판매나 구매, 임대차에 대해서는 26.3%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54.7%는 ‘어느정도 관여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19.0%는 ‘내가 주로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작물 결정에 있어서는 19.9%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57.1%가 ‘어느정도 관여한다’, 23.0%가 ‘내가 주로 결정한다’고 하여 경지의 판매나 구매, 임대차와 관련된 사안 보다는 여성들의 의사결

정 참여도가 높았다. 영농자금을 빌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30.7%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50.3%는 '어느정도 관여한다', 19.0%는 '내가 주로 결정한다고 하여 거의 관여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의 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농사일정을 짤 때에는 21.7%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54.9%는 '어느정도 관여한다', 23.4%는 '내가 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품을 살 때에는 27.1%가 '내가 주로 결정한다'고 하였고 55.2%가 '어느정도 관여한다'고 하여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았다. 이에 비해, 거의 관여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은 17.8%로 다른 항목에 비해 관여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이 적었다. 농산물 출하 및 판매에 관해서는 25.3%가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51.8%는 '어느정도 관여한다', 22.9%는 '내가 주로 결정한다'고 하였다. 작목반과 영농조합에 가입할 때에는 43.5%에 이르는 여성농업인이 거의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점에 대해서는 여성농업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매우 낮았다. 이 문제 관해 어느정도 관여하는 여성은 37.9%였으며, 자신이 주로 결정하는 여성은 18.5%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품사기나 작물 결정, 농사일정 결정 등 농업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에는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조직 관련 의사결정, 영농자금 조달이나 농지의 판매·구매, 임대차 등의 주요 생산수단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2> 농업경영 의사결정참여도

항목별로 ‘거의 관여하지 않음’을 ‘1’, ‘어느정도 관여함’을 ‘2’, ‘내가 주로 결정한다’를 ‘3’으로 점수화하여 그 평균점수를 연령대별로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서 39세 미만 여성들의 평균점수가 가장 낮아 농업경영과 관련된 각종 의사결정 참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40대, 50대, 60대 순으로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아졌으며 70세이상의 고령층이 농업관련 의사결정 참여도가 가장 높았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연령대별 평균점수의 차이는 모든 항목에서 통계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9> 연령대별 의사결정 참여도 평균점수

	경지매매, 임대차	작물결정	영농자금 대출	농사일정 결정	품사기	농산물 출하, 판매	작목반,영 농조합 가입
39세미만	1.70	1.76	1.65	1.72	1.84	1.77	1.52
40대	1.76	1.87	1.72	1.87	1.99	1.82	1.58
50대	1.88	1.98	1.87	1.98	2.06	1.94	1.71
60대	2.01	2.12	1.96	2.10	2.16	2.05	1.81
70세이상	2.09	2.19	2.01	2.17	2.21	2.13	1.96
F	5.63	8.16	4.27	6.50	3.85	4.11	5.44
df	4	4	4	4	4	4	4
p	.000	.000	.002	.000	.004	.003	.000

7문항을 종합해 하나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Cronbach α 계수가 .9575 수준으로 매우 높아 농업경영관련 의사결정 참여도를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었다. 그에 따라 7문항을 표준화한 후 Z점수로 평균을 내어 척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우선 주영농형태에 따라 척도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작을 주로 하는 농가의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채소, 논벼, 특작, 과수, 축산, 화훼의 순이었다.

<표 III-20> 주영농형태별 의사결정참여도

	논벼	과수	채소	화훼	전작	특작	축산	F=1.86 df=6 p=0.08
의사결정참여도 척도점수	1.91	1.89	2.02	1.37	2.17	1.90	1.75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 의사결정 참여도는 가구유형이나 규모에 따라서도 비교되는데, 단독가구의 경우 의사결정 참여도 척도점수가 2.91로 그 외의 가구형태에 속해있는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도의 편차가 매우 심했다. 따라서 본인이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단독가구주 여성농업인을

제외하면 여성농업인의 전반적인 의사결정 참여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표 Ⅲ-21> 가구유형별 가구원수별 의사결정참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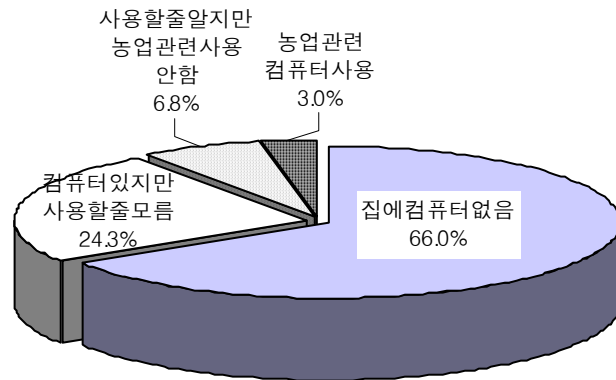
가구유형	단독가구	부부가구	부부자녀가 구	3대가구	기타	F=181.01 df=4 p=.000
의사결정참여도 척도점수	2.91	1.80	1.87	1.82	2.11	
가구원수	1인	2인	3-4인	5인이상	F=240.11 df=3 p=.000	
의사결정참여도 척도점수	2.91	1.85	1.84	1.74		

농업노동참여정도와 의사결정참여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두 변수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r=0.68$, $p=.000$). 또한 농업노동시간과의 상관관계분석을 시행한 결과, 농번기, 농한기,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 모두 절대적인 농업노동시간 자체는 여성농업인의 농업관련 의사결정 참여도와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번기 전체 노동시간 중 농업노동시간의 비율은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r=0.082$, $p=.003$)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5. 컴퓨터 이용 현황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이 중요해지고 각종 농업정보가 발달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농업인이 컴퓨터를 어느정도 활용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그런데, 그 결과, 3.0%만이 현재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6%는 집에 컴퓨터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며, 24.3%는 집에 컴퓨터가 있지만 자신은 사용할 줄 모르고 있어 여성농업인 중 90% 가량

이 컴퓨터이용 기술을 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6.8%는 컴퓨터는 사용할 줄 알지만, 농업과 관련해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13> 컴퓨터 이용 현황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의 여성농업인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향이 뚜렷했으며, 40대의 경우에는 컴퓨터 보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여성농업인 자신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여성은 39세 이하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으며, 농업과 관련해 사용하는 비율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높은 편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39세 이하의 비교적 저연령층에서도 46.5%의 여성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알면서도 농업과 관련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2>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컴퓨터 이용현황

단위: 명(%)

	컴퓨터있지만 사용할줄모름	알지만 농업관련 사용않음	농업관련사용	컴퓨터없음	계
■연령별■					
39세이하	17(19.8)	40(46.5)	18(20.9)	11(12.8)	86(100.0)
40대	130(50.6)	41(16.0)	19(7.4)	67(26.1)	257(100.0)
50대	126(30.6)	17(4.1)	5(1.2)	264(64.1)	412(100.0)
60대	63(11.4)	5(0.9)	3(0.5)	481(87.1)	552(100.0)
70세이상	33(15.4)	-	-	181(84.6)	214(100.0)
■교육수준별■					
초등졸이하	241(20.6)	13(1.1)	9(0.8)	909(77.6)	1172(100.0)
중졸	88(42.7)	32(15.5)	15(7.3)	71(34.5)	206(100.0)
고졸 이상	40(28.0)	58(40.6)	21(14.7)	24(16.8)	143(100.0)

컴퓨터 이용과 농업정보 이용에 관한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여성농업인과 경험이 없는 여성농업인의 컴퓨터 이용현황을 비교해 보면, 전체 여성농업인 중 5.1%만이 컴퓨터이용 및 농업정보 이용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 이들 가운데 28.6%가 농업과 관련해 사용하고 있어 교육 경험이 없는 여성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예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용하더라도 농업과 관련해서 사용하지는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컴퓨터 이용 및 농업정보 이용에 관한 교육 기회가 제한되어 있고 교육을 받아도 실제 생활에서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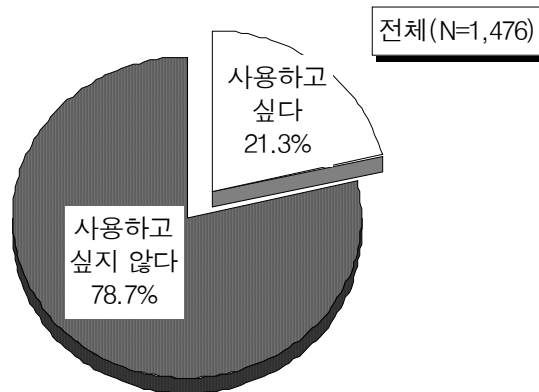
<표 Ⅲ-23> 컴퓨터 교육참여 경험과 컴퓨터 이용 현황

단위: 명(%)

	컴퓨터있지만 사용할줄모름	알지만 농업관련 사용않음	농업관련사용	집에 컴퓨터없음	계
교육경험 있다	17(22.1)	28(36.4)	22(28.6)	10(13.0)	77(100.0)
없다	352(24.4)	75(5.2)	23(1.6)	994(68.8)	1444(100.0)
	369(24.3)	103(6.8)	45(3.0)	1004(66.0)	1521(100.0)

$\chi^2=319.4$ $df=3$ $p=.000$

현재 컴퓨터가 없거나 있더라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여성농업인, 사용할 줄 알지만 농업과 관련해 사용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에게 앞으로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은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21.3%가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78.7%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14> 농업관련 컴퓨터 이용의사

향후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이용할 의사는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3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61.8%, 40대 연령층에서는 57.1%가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 이용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에 비해, 50대에서는 26.3%가 향후 이용 의사가 있다고 하였으며, 60대에서는 4.7%, 70세이상에서는 1.4%만이 이용의사를 밝혔다.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에서는 12.0%만이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이용하고 싶다고 한데 비해, 중졸에서는 50.3%, 고졸 이상에서는 60.8%가 이용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이용할 의사는 비교적 저연령층의 여성농업인, 고졸이상의 여성농업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표 Ⅲ-24>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농업관련 컴퓨터 이용 의사
단위: 명(%)

	사용하고 싶음	사용하고 싶지 않음	계	
■연령별■				
39세이하	42(61.8)	26(38.2)	68(100.0)	x ² =395.6 df=4 p=.000
40대	136(57.1)	102(42.9)	238(100.0)	
50대	107(26.3)	300(73.7)	407(100.0)	
60대	26(4.7)	523(95.3)	549(100.0)	
70세이상	3(1.4)	211(98.6)	214(100.0)	
■교육수준별■				
초등졸이하	140(12.0)	1023(88.0)	1163(100.0)	x ² =287.6 df=2 p=.000
중졸	96(50.3)	95(49.7)	191(100.0)	
고졸 이상	78(63.9)	44(36.1)	122(100.0)	

향후 농업관련 컴퓨터 이용 의사 여부에 따라 컴퓨터 및 농업정보 이용 관련 교육 희망 여부를 비교해보면, 향후 이용의사가 있는 여성농업인 가운데 60.8%가 컴퓨터이용 및 농업정보 이용에 관한 교육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컴퓨터 이용의사와 교육희망
단위: 명(%)

	교육희망	희망하지않음	계
사용하고 싶음	191(60.8)	123(39.2)	314(100.0)
사용하고 싶지 않음	57(4.9)	1105(89.9)	1162(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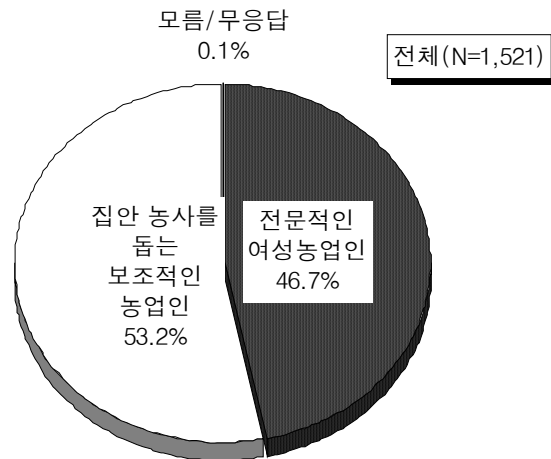
x²=553.0 df=1 p=.000

6. 여성농업인 의식

가. 농업인 정체성

농업인으로서 자신이 전문적인 여성농업인인지 아니면 집안농사를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인지에 대해, 46.7%가 전문적인 여성농업인이라고 응답했으며

53.2%는 집안농사를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림 III-15> 농업인 정체성

연령대별로 39세 이하에서는 18.6%만이 자신을 전문적인 여성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81.4%가 집안 농사를 짓는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문여성농업인으로 규정하는 경향은 현저히 제한되어 있으며 보조농업인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이에 비해, 40대층에서는 44.4%가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보고 있으며, 44.5%가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여 39세 이하의 연령층과는 대조를 보였다. 특히, 50대와 60대에서는 각각 52.4%, 50.3%가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그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 7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보는 경우가 41.1%, 보조농업인으로 보는 경우가 58.8% 있었다.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은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서로 비교되는데,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49.2%가 자신을 전문적인 여성농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50.8%가 보조 농업인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중등학교 졸업자 가운데에는 48.5%가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51.5%가 보조농업인과 동일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

성농업인 가운데에서는 24.5%만이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보고 있어 다른 학력층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이 농업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바는 연령과 교육수준별로 차이를 보이는데, 저연령층의 여성농업인과 고졸 이상의 비교적 고학력 여성농업인들 사이에서는 자신을 전문 농업인으로 보는 경향은 제한되어 있는 반면 집안 농사를 돕는 보조농업인으로 보는 경향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자신을 전문적인 여성농업인으로 보는 경향은 40대-60대의 연령층, 초등학교 졸업 이하와 중등학교 졸업자에게서 보다 뚜렷했다.

이외에, 농업만을 하는지, 아니면 농업과 농외취업을 함께 하는지에 따라라도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서로 비교되는데, 농업전업자들이 겸업자에 비해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보는 경향은 높고 보조농업인으로 보는 경향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6> 주요특성별 농업인 정체성

단위: 명(%)

	전문여성농업인	집안농사 돕는 보조농업인	계	
■연령별■ 39세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16(18.6) 114(44.4) 216(52.6) 277(50.3) 88(41.1)	70(81.4) 143(55.6) 195(47.4) 274(49.7) 126(58.9)	86(100.0) 257(100.0) 411(100.0) 511(100.0) 214(100.0)	$\chi^2=39.0$ $df=4$ $p=.000$
■교육수준별■ 초등졸이하 중졸 고졸 이상	576(49.2) 100(48.5) 35(24.5)	594(50.8) 106(51.5) 108(75.5)	1170(100.0) 206(100.0) 143(100.0)	$\chi^2=31.7$ $df=2$ $p=.000$
■전겸업■ 농업전업 농업+농외겸업	658(48.0) 53(35.6)	712(52.0) 96(64.4)	1370(100.0) 149(100.0)	$\chi^2=8.4$ $df=1$ $p=.004$

자신을 전문적인 여성농업인으로 보는 여성농업인과 집안농사를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의 농업 참여도가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농업노동시간을 비교분석 해 본 결과, 자신을 전문여성농업인과

동일시한 여성농업인은 농번기에 하루 평균 10시간10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고 있어 자신을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한 여성농업인의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8시간 58분)에 비해 길었으며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도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이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는 여성농업인보다 길었다.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 이에 더해 농외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농외노동시간까지 포함해 하루 평균 총노동시간 역시 농번기와 농번기,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를 막론하고 자신을 전문농업인으로 규정한 여성농업인의 총노동시간이 보조농업인으로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에 비해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자신을 전문농업인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이 보조농업인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에 비해 보다 긴 시간동안 농업노동을 하고 총 노동시간도 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전문여성농업인으로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은 농번기의 경우 전체 노동시간의 78.4%,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한 경우에는 71.8%를 농업노동에 투입했으며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인식한 여성농업인은 총노동시간의 74.9%,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는 여성농업인은 총노동시간의 63.48%를 농업노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인으로서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보는 여성들이 총노동시간 가운데 보다 많은 비율을 농업노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7> 농업인 정체성과 노동시간

	농업노동시간 (시간:분)		총노동시간 (시간:분)		농업노동시간비율 (%)	
	농번기	농번기/ 농한기구분 없음	농번기	농번기/ 농한기구분 없음	농번기	농번기/ 농한기구분 없음
전문여성농업인	10:10	9:37	12:53	12:18	78.4	74.9
보조농업인	8:58	7:19	12:34	10:49	71.8	63.5
	F=16.11 df=1 p=.000	F=8.15 df=1 p=.005	F=11.96 df=1 p=.001	F=6.80 df=1 p=.010	F=61.52 df=1 p=.000	F=24.49 df=1 p=.000

농업종사경력에 따라서는 농업에 종사한지 21-30년 된 여성농업인의 53.2%, 31년 이상 된 여성농업인의 50.8%가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규정하는데 비해, 11년-20년 동안 농업에 종사해온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38.6%, 6-10년 된 경우에는 25.6%가 자신을 전문여성농업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5년 이하된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15.1%만이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인식하고, 84.9%가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한지 얼마되지 않는 여성농업인은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한데 비해, 농업종사경력이 긴 여성농업인일수록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노동기여도에 있어서도 농가의 농업노동을 거의 전담하는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69.6%, 80% 정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64.6%, 50% 정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47.6%가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규정한 데 비해, 30% 정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19.2%, 거의 하지 않는 여성농업인 중에는 5.0%만이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노동 기여도가 큰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 기여도가 적은 여성농업인에 비해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현저히 컸다. 이에 비해, 농업노동 기여도가 적은 여성농업인은 자신을 집안 농사를 돕는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표 III-28> 농업종사경력 및 농업노동기여도와 농업인 정체성

단위: 명(%)

		전문여성농업인	집안농사돕는 보조농업인	계	
농업종사 경력	5년이하	11(15.1)	62(84.9)	73(100.0)	x ² =59.3 df=4 p=.000
	6-10년	20(25.6)	58(74.4)	78(100.0)	
	11-20년	69(38.6)	110(61.5)	179(100.0)	
	21-30년	173(53.2)	152(46.8)	325(100.0)	
	31년이상	483(50.8)	425(49.3)	863(100.0)	
농업노동 기여도	거의 전담	249(69.6)	109(30.5)	385(100.0)	x ² =211.5 df=4 p=.000
	80%	71(64.6)	39(35.5)	110(100.0)	
	50%	320(47.6)	353(52.5)	673(100.0)	
	30%	68(19.2)	287(80.9)	355(100.0)	
	거의 안함	1(5.0)	19(95.0)	20(100.0)	

자신을 전문여성농업인으로 보는 여성농업인과 보조농업인과 동일시 한 여성농업인이 농업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한 결과, 자신을 전문여성농업인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이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는 여성농업인에 비해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29> 농업인 정체성과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전문여성농업인	보조농업인	
농업경영 의사결정참여도 척도점수	2.17	1.77	F=43.42 df=1 p=.000

농업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따라 농촌 거주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의 91.6%, 보조농업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88.0%가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전문 여성농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이 자신을 보조농업인으로 인식하는 여성농업인에 비해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며, 반면 이농을 희망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0> 농업인 정체성과 농촌거주/이농 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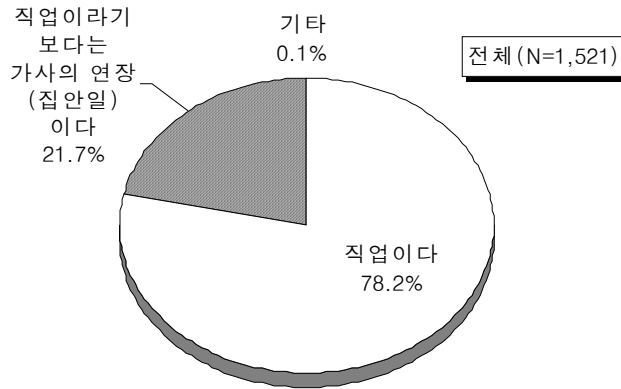
단위: 명(%)

	전문여성농업인	보조농업인	계
농촌계속거주	651(91.6)	711(88.0)	1362(89.7)
이농희망	60(8.4)	97(12.0)	157(10.3)
계	711(100.0)	808(100.0)	1519(100.0)

$\chi^2=5.2$ df=1 p=.023

나. 농업관

농사일이 직업인지 아니면 가사의 연장인지에 대해서 78.2%가 ‘직업’이라고 응답해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이 농업을 직업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1.7%는 ‘직업이라기 보다는 가사의 연장(집안일)’이라고 응답했다.



<그림 III-16> 농업관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농업을 직업으로 보는 비율이 비교적 낮았으며 가사의 연장으로 보는 경향이 높았다. 이에 비해, 40대에서는 77.0%가 농사일을 직업으로 보아 39세 이하 연령층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특히 50대와 60대 층에서는 농사일을 직업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이 각각 83.7%, 80.6%에 달했다.

교육수준별로는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층에서는 80.6%가 농사일을 직업으로 보았으며, 중등학교 졸업자 가운데에는 71.6%가 직업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54.5%만이 농사일을 직업으로 보고 있어 비교적 고학력의 여성농업인들 사이에서 농사일을 직업으로 보는 경향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농업전업자 가운데에는 79.8%, 농업과 농외취업을 함께 하는 겸업자 중에는 64.4%가 농사일을 직업으로 보고 있어 전업자가 농업을 직업으로 보는 비율이 높았다.

<표 III-31> 주요특성별 농업관

단위: 명(%)

	농사일은		계	
	직업	가사의 연장		
■연령별■ 39세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46(53.5) 198(77.0) 345(83.7) 445(80.6) 156(73.2)	40(46.5) 59(23.0) 67(16.3) 107(19.4) 57(26.8)	86(100.0) 257(100.0) 412(100.0) 552(100.0) 213(100.0)	$\chi^2=43.5$ $df=4$ $p=.000$
■교육수준별■ 초등졸이하 중졸 고졸 이상	944(80.6) 168(71.6) 78(54.5)	227(19.4) 38(18.4) 65(45.5)	1171(100.0) 206(100.0) 143(100.0)	$\chi^2=52.4$ $df=2$ $p=.000$
■전겸업■ 농업전업 농업+농외겸업	1094(79.8) 96(64.4)	277(20.2) 53(35.6)	1371(100.0) 149(100.0)	$\chi^2=18.7$ $df=1$ $p=.000$

여성농업인의 농업관은 농업에 투신하는 정도에 따라 비교될 것으로 기대되어 농업종사경력 및 농업노동기여도와 농업관을 교차분석하였다. 먼저 농업종사 경력에 따라서는 농업경력이 5년 미만인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43.8%가 농업을 직업으로 보는 데 비해, 56.2%는 직업이라기 보다 가사의 연장으로 보았다. 그리고 6-10년 정도 농업을 해온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53.9%가 직업으로, 46.2%가 가사의 연장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농업경력이 11년 이상된 여성농업인들 사이에서는 농업을 직업으로 보는 경향이 보다 뚜렷해, 11-20년의 농업경력을 지닌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76.5%, 21-30년의 농업경력이 있는 여성농업인의 81.9%, 31년 이상된 여성농업인 중에는 82.5%가 농사일이 직업이라고 응답해 농업종사경력이 길수록 농업을 직업으로 보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농업을 가사의 연장으로 보는 경향은 적었다.

또한 농업노동기여도에 따라서도 집 농사를 거의 전담하는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82.4%, 농사일의 80%정도를 담당하는 여성 가운데에는 83.6%, 농사일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의 82.5%가 농업을 직업으로 보았다. 이에 비해, 30% 정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과 거의 하지 않는 여성농업인 중에는 그 비율이 각각 65.6%, 55.0%로 농업노동기여도가 50% 이상인 여성농업인에 비해 농업을 직업으로 보는 비율은 낮고 농업을 가사의 연장으로 보는 비율은 높았다.

<표 Ⅲ-32> 농업종사경력 및 농업노동 기여도와 농업관

단위: 명(%)

		농사일은		계	
		직업	가사의 연장		
농업종사경력	5년이하	32(43.8)	41(56.2)	73(100.0)	x ² =90.4 df=4 p=.000
	6-10년	42(53.9)	36(46.2)	78(100.0)	
	11-20년	137(76.5)	42(23.5)	179(100.0)	
	21-30년	266(81.9)	59(18.2)	325(100.0)	
	31년이상	713(82.3)	151(17.5)	864(100.0)	
농업노동기여도	거의 전담	295(82.4)	63(17.6)	358(100.0)	x ² =52.2 df=4 p=.000
	80%	92(83.6)	18(16.4)	110(100.0)	
	50%	556(82.5)	118(17.5)	674(100.0)	
	30%	233(65.6)	122(34.4)	355(100.0)	
	거의 안함	11(55.0)	9(45.0)	20(100.0)	

농업을 직업으로 인식하는 여성농업인과 가사의 연장으로 규정하는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농번기와 농번기/농한기 구분 없는 경우 모두 농업을 직업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시간이 가사의 연장으로 보는 여성농업인보다 길었으며, 총노동간도 같은 양상을 나타냈다. 그리고 전체 노동시간 가운데 농업노동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농번기의 경우 농업을 직업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이 전체 노동시간의 77.5%를 농업노동에 투입하는데 비해, 가사의 연장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은 65.9%를 농업노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도 농사일을 직업으로 보는 여성들이 총노동시간의 76.7%를 농업노동에 투입하는데 비해, 가사의 연장으로 보는 여성들은 53.8%만을 농업노동에 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농업관과 노동시간

	농업노동시간 (시간:분)		총노동시간 (시간:분)		농업노동시간비율 (%)	
	농번기	농번기/농한 기 구분없음	농번기	농번기/농한 기 구분없음	농번기	농번기/농한 기 구분없음
농업은 직업	9:56	9:04	12:43	12:42	77.5	76.7
가사의연장	8:02	5:46	11:59	11:22	65.9	53.8
	F=30.98 df=1 p=.000	F=9.34 df=1 p=.003	F=11.53 df=1 p=.001	F=8.77 df=1 p=.003	F=135.45 df=1 p=.000	F=46.17 df=1 p=.000

또한 농업관에 따라 의사결정 참여도 척도점수를 비교해 보면, 농사일을 직업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이 가사의 연장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에 비해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았다.

<표 III-34> 농업관과 의사결정 참여도

	농사일은		
	직업	가사의연장	
농업경영 의사결정참여도 척도점수	2.01	1.76	F=11.17 df=1 p=.001

농업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보는지,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는지에 따라 농업관을 비교해 보면,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으로 보는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96.8%가 농사일을 직업으로 보았으며 가사의 연장으로 보는 경우는 3.2%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자신을 집안 농사를 돕는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62.1%가 농사일을 직업으로 보고 37.9%가 가사의 연장으로 인식하고 있어 농업인으로서 적극적인 정체성을 지니는 여성농업인이 농업관 역시 적극적이며, 반면 자신을 보조 농업인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은 농업관 역시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5> 여성농업인 정체성과 농업관

단위: 명(%)

	농사일은		계
	직업	가사의 연장	
전문여성농업인	688(96.8)	23(3.2)	711(100.0)
보조농업인	501(62.1)	306(37.9)	807(100.0)
전체	1189(78.3)	329(21.7)	1518(100.0)

$\chi^2=267.8$ df=1 p=.000

여성농업인의 농업관에 따라 농촌 거주 내지 이농의사를 비교해 보면, 농업을 직업으로 보는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91.5%가 농촌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했으며 8.5%가 이농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비해, 농사일을 가사의 연장으로 보는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83.0%가 농촌에 계속 거주할 의사를, 17.0%는 이농의사를 밝혀 농업을 직업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에 비해 이농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36> 농업관과 농촌거주/이농 의사

단위: 명(%)

	농촌계속거주	이농희망	계
농업은 직업	1089(91.5)	101(8.5)	1190(100.0)
가사의 연장	274(83.0)	56(17.0)	330(100.0)
전체	1363(89.7)	157(10.3)	152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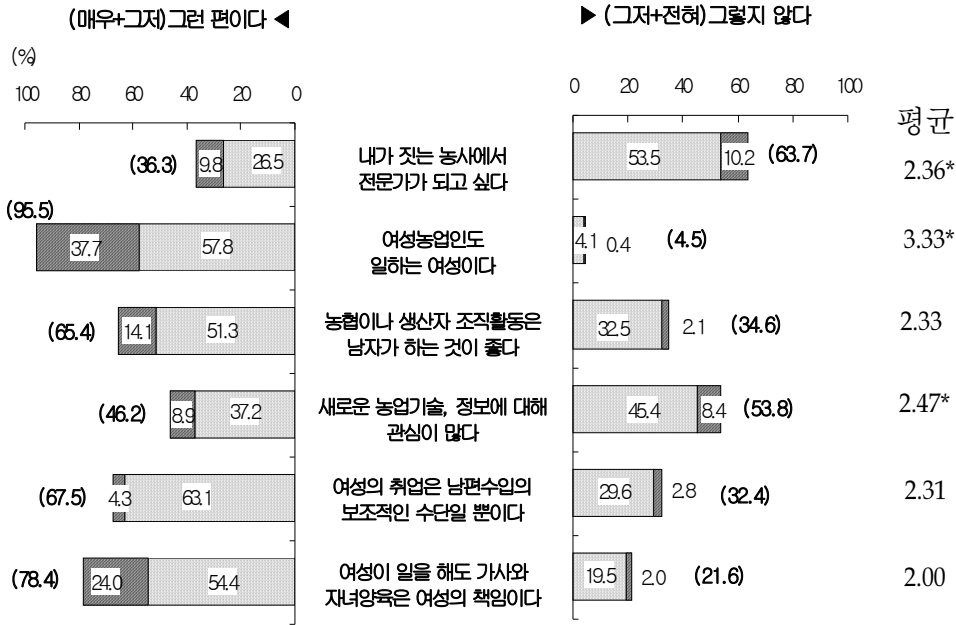
$\chi^2=20.1$ df=1 p=.000

다. 여성농업인 의식

여성농업인의 성역할 관념과 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 등을 중심으로 여성농업인의 의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내가 짓는 농사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여성농업인도 일하는 여성이다],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 [여성의 취업은 남편수입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여성이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

다] 등 각각의 항목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정말 그렇다', '그런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등의 4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내가 짓는 농사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9.8%가 '전혀 아니다', 53.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63.7%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이에 비해 '그런 편'이라는 여성농업인은 26.5%, '정말 그렇다'는 여성농업인은 9.8%였다. [여성농업인도 일하는 여성이다]에 대해서는 37.7%가 '정말 그렇다', 57.8%가 '그런 편'이라고 하여 95.5%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에 비해 '그렇지 않다' 또는 '전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진 여성농업인은 4.5%에 불과했다. [농협이나 생산자조직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에 대해서는 14.1%가 '정말 그렇다', 41.3%가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응답한 여성농업인은 32.5%, '전혀 아니다'는 의견을 보인 여성농업인은 2.1%였다.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은지]에 대해서는 8.9%가 '정말 그렇다'라고 응답했으며, 37.2%가 '그런 편'이라고 하여 46.2%가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데 비해, 45.4%는 '그렇지 않다', 8.4%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였다. [여성의 취업은 남편수입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4.3%가 '정말 그렇다', 63.1%가 '그런 편이다'라고 하여 67.5%가 긍정적으로 응답한데 비해, 29.6%는 '그렇지 않다', 2.8%는 '전혀 아니다'라고 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여성이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라는 데 대해서는 24.0%가 '정말 그렇다', 54.4%가 '그런 편이다'라고 하여 78.4%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으며, 19.5%는 '그렇지 않다', 2.0%는 '전혀 아니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여성농업인 의식수준이 낮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의식수준이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해당항목을 역부호화(reverse coding)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음.

<그림 III-17> 여성농업인 의식

6개 항목 각각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의식수준을 평균점수를 통해 비교해 보고자 했다. 조사에서 특정한 방향으로의 편향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을 혼합해 질문했기 때문에, 우선 일부 항목의 응답을 역부호화(reverse coding)하여 모든 항목에서 점수가 낮을수록 여성농업인의 의식수준이 낮고 높을수록 의식수준도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조정하여 1점에서 4점까지 점수를 매긴 후 평균점수를 구하였다. 그 결과, 6개 문항 가운데 [여성농업인도 일하는 여성이다]라는 항목의 평균점수가 4점 만점에 3.33점으로 여성농업인의 의식 수준이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 그 다음이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 2.47점, [내가 짓는 농사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2.36점의 순이었다. 이들 항목은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과 관련된 항목으로서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 면에서는 응답자들의 의식 수준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2.33점, [여성의 취업은 남편수입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2.31점, [여성이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 2.00-점 등으로 성역할 의식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의식수준이 비교적 낮았으며,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여성이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라는 항목에 대한 여성농업인의 의식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항목 가운데 [여성의 취업은 남편수입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여성이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에 대해서는 2002년 한국여성개발원이 실시한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에서도 전국의 15세이상 65세 미만의 여성 4,758명을 대상으로 의견을 물은바 있다. 물론 본 조사에서는 4점 척도로 응답문항을 제시한데 비해,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에서는 응답항목을 5점척도로 하였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힘들지만, 일반 여성들의 성역할 관념과 본 조사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전체 여성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의식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고자 했다.

그 결과,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에서는 [여성의 취업은 남편수입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에 대해 17.2%가 ‘매우 그렇지 않다’, 30.3%가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하여 47.5%가 여성취업을 남편수입의 부조적인 수단으로 보는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같은 항목에 대해 32.4%만이 부정적 의견을 보였다. 또한 [여성이 일(취업)을 해도 가사(집안일)과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에 대해서는 본 조사에서는 21.6%만이 부정적 의견을 보인데 비해,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에서는 16.9%가 ‘매우 그렇지 않다’, 26.0%가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하여 가사와 자녀양육을 여성의 책임으로 돌리는 성역할 분리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이러한 점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성역할 관념은 우리 사회 일반의 여성들보다 낮은 수준으로 비교적 많은 여성농업인이 가내 영역을 여성의 역할로 돌리고 집 밖에서의 활동, 특히 경제활동은 남성이 중심이 되는 것으로 보는 성역할 분리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37>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2002)」의 관련항목 조사 결과
단위: 명(%)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여성의 취업은 남편수입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819 (17.2)	1440 (30.3)	1211 (25.5)	1101 (23.2)	179 (3.8)	4750 (100.0)
여성은 취업을 해도 집안일과 자녀양육은 여성책임이다.	803 (16.9)	1233 (26.0)	1000 (21.1)	1358 (28.6)	351 (7.4)	4745 (100.0)

자료: 한국여성개발원(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p.45

여성농업인 의식 수준을 연령층별로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과 성역할 의식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을 나타내는 항목, 즉 [내가 짓는 농사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여성농업인도 일하는 여성이다],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등의 항목에서는 60대와 70세 이상 고령층의 의식수준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39세이하, 40대, 50대 여성농업인은 이 세 항목에서 고령층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의식수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40대 연령층에서 그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에 비해, 성역할관념에 있어서는 39세 이하의 연령층이 40대 이상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적극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에 비해 성역할관념에 있어서는 40대 연령층의 의식수준이 다른 연령층과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종합해 보면, 39세 이하의 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성역할 관념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데 비해,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은 그리 높지 않은 특징이 있다. 이에 비해, 40대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은 비교적 높지만, 성역할 관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과 성역할관념 모두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여성의 취업은 남편수입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라는 항목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중졸 학력자들의 의식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

의 학력자나 고졸 이상의 학력자보다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의식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와 고졸 이상의 학력자 가운데에는 항목에 따라 고졸이상 학력자의 의식수준이 높거나 비슷한 정도였다.

<표 III-38>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여성농업인 의식

단위: 명(%)

	내가 짓는 농사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					평균점수*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연령별■							
39세이하	11(12.8)	26(30.2)	37(43.0)	12(14.0)	2.42	F=21.19 df=4 p=.000	
40대	42(16.3)	83(32.3)	113(44.0)	19(7.4)	2.58		
50대	51(12.4)	137(33.3)	198(48.1)	26(6.3)	2.52		
60대	38(6.9)	121(21.9)	337(61.1)	56(10.1)	2.26		
70세이상	7(9.8)	36(16.8)	129(60.3)	42(19.6)	2.04		
■교육수준별■							
초등졸이하	91(7.8)	296(25.3)	669(57.1)	116(9.9)	2.31	F=18.71 df=2 p=.000	
중졸	45(21.8)	66(32.0)	77(37.4)	18(8.7)	2.67		
고졸 이상	13(9.1)	41(28.7)	68(47.6)	21(14.7)	2.32		
여성농업인도 일하는 여성이다 *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평균점수*		
■연령별■							
39세이하	37(43.0)	46(53.5)	3(3.5)	-	3.40	F=8.34 df=4 p=.000	
40대	124(48.2)	122(47.5)	10(3.9)	1(0.4)	3.44		
50대	169(41.0)	232(56.3)	11(2.7)	-	3.38		
60대	184(33.3)	345(62.5)	21(3.8)	2(0.4)	3.29		
70세이상	60(28.0)	134(62.6)	17(7.9)	3(1.4)	3.17		
■교육수준별■							
초등졸이하	404(34.5)	716(61.1)	47(4.0)	5(0.4)	3.30	F=8.69 df=2 p=.000	
중졸	103(50.0)	95(46.1)	7(3.4)	1(0.5)	3.46		
고졸 이상	67(46.9)	68(47.6)	8(5.6)	-	3.41		
농협이나 생산자 조직활동은 남자가 하는 것이 좋다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평균점수		
■연령별■							
39세이하	8(9.3)	32(37.2)	41(47.7)	5(5.8)	2.50	F=6.12 df=4 p=.000	
40대	39(15.2)	106(41.2)	102(39.7)	10(3.9)	2.32		
50대	62(15.0)	203(49.3)	139(33.7)	8(1.9)	2.23		
60대	73(13.2)	315(57.1)	160(29.0)	4(0.7)	2.17		
70세이상	32(15.0)	125(58.4)	52(24.3)	5(2.3)	2.14		

■교육수준별■ 초등졸이하 중졸 고졸 이상	169(14.4) 24(11.7) 21(14.7)	646(55.1) 83(40.3) 52(36.4)	343(29.3) 89(43.2) 62(43.4)	14(1.2) 10(4.9) 8(5.6)	2.17 2.41 2.40	F=15.11 df=2 p=.000
새로운 농업기술, 정보에 대해 관심이 많다 *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평균점수 *	
■연령별■ 39세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17(19.8) 59(23.0) 38(9.2) 19(3.4) 3(1.4)	37(43.0) 115(44.7) 181(43.9) 174(31.5) 59(27.6)	25(29.1) 74(28.8) 166(40.3) 306(55.4) 120(56.1)	7(8.1) 9(3.5) 27(6.6) 53(9.6) 32(15.0)	2.74 2.87 2.56 2.29 2.15	F=42.15 df=4 p=.000
■교육수준별■ 초등졸이하 중졸 고졸 이상	61(5.2) 45(21.8) 30(21.0)	414(35.3) 94(45.6) 58(40.6)	592(50.5) 58(28.2) 41(28.7)	105(9.0) 9(4.4) 14(9.8)	2.37 2.85 2.73	F=45.60 df=2 p=.000
여성의 취업은 남편 수입의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평균점수	
■연령별■ 39세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3(3.5) 15(5.8) 19(4.6) 21(3.8) 8(3.7)	37(43.0) 166(64.6) 254(62.0) 374(67.8) 129(60.3)	40(46.5) 66(25.7) 127(31.0) 147(26.6) 70(32.7)	6(7.0) 10(3.9) 10(2.4) 10(1.8) 7(3.3)	2.57 2.28 2.31 2.26 2.36	F=5.43 df=4 p=.000
■교육수준별■ 초등졸이하 중졸 고졸 이상	44(3.8) 14(6.8) 8(5.6)	765(65.3) 126(61.5) 69(48.3)	336(28.7) 61(29.8) 53(37.1)	26(2.2) 4(2.0) 13(9.1)	2.29 2.27 2.50	F=7.96 df=2 p=.000
여성이 일을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여성의 책임이다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아니다	평균점수	
■연령별■ 39세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14(16.3) 63(24.5) 104(25.2) 139(25.2) 45(21.0)	30(34.9) 124(48.2) 226(54.9) 315(57.1) 133(62.1)	37(43.0) 59(23.0) 78(18.9) 95(17.2) 28(13.1)	5(5.8) 11(4.3) 4(1.0) 3(0.5) 8(3.7)	2.38 2.07 1.96 1.93 2.00	F=8.53 df=4 p=.000
■교육수준별■ 초등졸이하 중졸 고졸 이상	292(24.9) 44(21.4) 29(20.3)	661(56.4) 114(55.3) 53(37.1)	204(17.4) 45(21.8) 48(33.6)	15(1.3) 3(1.5) 13(9.1)	1.95 2.03 1.95	F=17.02 df=2 p=.000

* 모든 항목에 대해 평균점수가 낮을수록 여성농업인 의식수준이 낮고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의식수준도 높은 것을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 해당 항목의 응답을 역부호화하여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음. 평균점수 분포는 1.00점에서 4.00점까지임.

여성농업인의 의식과 관련된 6개 항목을 종합해 하나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뢰도를 검증하였는데, Cronbach α 계수가 .4957 수준으로 6개 항목을 모두 종합해 척도점수로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 대신 6개 문항을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에 관한 3개 문항과 성역할관념에 관한 3개 항목으로 나누어 각각의 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여성농업인의 진취성에 관한 3개 문항의 Cronbach α 계수가 .6429로 높지는 않지만, 척도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그에 따라 해당되는 3개 문항을 표준화한 후 Z점수로 평균을 내어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을 나타내는 척도 점수를 산출하여 다른 변수와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먼저 여성농업인 진취성 척도점수와 농업노동시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농번기 및 농번기/농한기 구분이 없는 경우 모두 농업노동시간과 여성농업인 진취성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으며 관계의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그리고 총노동시간중 농업노동시간 비율에 있어서도 농번기 및 농번기/농한기 구분이 없는 경우 모두 농업노동시간비율과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 간에는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은 농업경영과 관련된 의사결정 참여도와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9> 여성농업인 진취성 척도점수와 관련변수의 상관관계

농업노동시간		총노동시간중 농업노동시간비율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농번기	농번기/농한기구 분없음	농번기	농번기/농한기구 분없음	
r=0.197 p=.000	r=0.273 p=.000	r=0.155 p=.000	r=0.218 p=.001	r=0.139 p=.000

농업노동 기여도에 따라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을 비교해 보면, 80% 정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이 가장 진취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그 다음이 절반 정도 담당하는 여성농업인, 거의 전담하는 여성농업인의 순으로 진취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업노동의 30% 정도 담당하거나 거의

하지 않는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0> 농업노동기여도와 여성농업인 진취성 척도점수

농업노동기여도	여성농업인진취성 척도점수	
거의전담	2.70	F=8.36 df=4 p=.000
80%정도	2.82	
절반정도	2.78	
30%정도	2.59	
거의안함	2.57	

농업인 정체성에 따라서는 자신을 전문여성농업인과 동일시하는 여성농업인이 보조농업인으로 규정하는 여성농업인보다 여성농업인으로서 진취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농업관에 있어서도 농업을 직업으로 보는 여성농업인이 가사의 연장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 진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41> 여성농업인 정체성 및 농업관과 여성농업인 진취성 척도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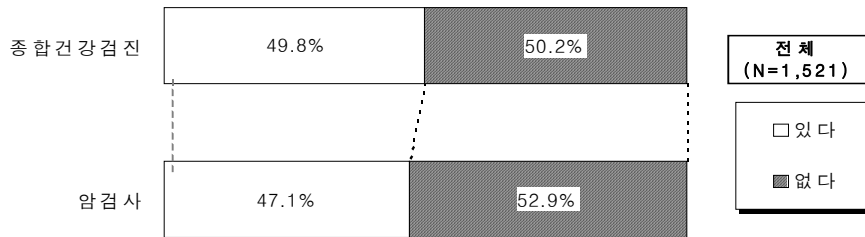
		여성농업인 진취성 척도점수	
농업인 정체성	전문여성농업인	2.88	F=51.15 df=1 p=.000
	보조농업인	2.58	
농업관	직업	2.81	F=100.91 df=1 p=.000
	가사의 연장	2.39	

IV. 여성농업인의 복지실태

1. 건강복지

가. 건강검진

지난 2년 동안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49.8%가 ‘있다’고 응답하였고, 50.2%가 ‘없다’고 하여 절반 정도의 여성농업인이 지난 2년동안 종합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에게 흔한 유방암, 자궁암, 위암 등을 포함한 암검사 역시 47.1%가 지난 2년동안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52.9%가 받은 적 ‘없다’고 응답해 절반 가량이 2년동안 암검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1> 건강검진 현황

연령별로는 3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단지 17.4%만이 지난 2년동안 종합건강검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해 비교적 저연령층의 여성농업인들이 건강검진을 받는 기회가 크게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암검진의 경우에는 70세 이상의 연령층에서 28.5%만이 지난 2년동안 검사를 받은 것으로 응답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소수만이 암검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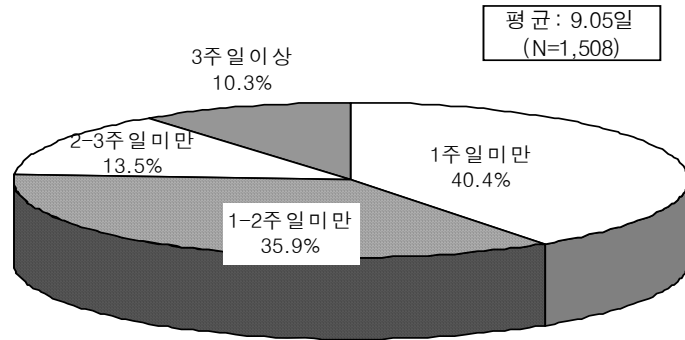
<표 IV-1> 연령대별 건강검진 현황

단위: 명(%)

	종합건강검진		계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39세 이하	15(17.4)	71(82.6)	86(100.0)	x ² =55.19 df=4 p=.000
40 대	107(41.6)	150(58.4)	257(100.0)	
50 대	233(56.6)	179(43.4)	412(100.0)	
60 대	300(54.3)	252(45.7)	552(100.0)	
70세 이상	103(48.1)	111(51.9)	214(100.0)	
	암검진		계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39세 이하	42(48.8)	44(51.2)	86(100.0)	x ² =54.77 df=4 p=.000
40 대	141(54.9)	116(45.1)	257(100.0)	
50 대	234(56.8)	178(43.2)	412(100.0)	
60 대	239(43.3)	313(56.7)	552(100.0)	
70세 이상	61(28.5)	153(71.5)	214(100.0)	

나. 산후조리

조사대상자 본인이 출산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99.1%가 '있다'고 응답하여 거의 모든 여성농업인이 출산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경험이 있는 이들에게 출산 후 농사일을 하지 않고 산후조리를 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평균적으로는 출산 후 9.05일 동안 농사일을 하지 않고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40.4%가 채 1주일이 되지 않는 기간동안 산후조리를 했으며 35.9%가 1주일에서 2주일미만의 기간동안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 76.3%의 여성농업인이 출산 후 2주일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만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주일-3주일동안 조리를 한 여성이 13.5%, 3주일 이상 산후조리를 한 경우는 10.3%였다.



<그림 IV-2> 산후조리기간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출산후 평균 6.58일 동안 산후조리를 했으며, 60대에서는 7.05일, 50대에서는 8.73일, 40대에서는 12.60일 동안 농사일을 하지 않고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평균 19.34일 동안 산후조리를 하여 연령층이 낮을수록 산후조리기간이 현저히 길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 연령대별 산후조리기간

단위: 명(%)

	1주일미만	1-2주일미만	2-3주일미만	3주일이상	계	평균(일)
39세 이하	5(6.1)	15(18.3)	35(42.7)	27(32.9)	82(100.0)	(19.34)
40 대	50(19.5)	104(40.6)	55(21.5)	47(18.4)	256(100.0)	(12.60)
50 대	168(41.1)	155(37.9)	147(11.5)	39(9.5)	409(100.0)	(8.73)
60 대	276(50.2)	193(35.1)	50(9.1)	31(5.6)	550(100.0)	(7.05)
70세 이상	110(52.1)	74(35.1)	16(7.6)	11(5.2)	211(100.0)	(6.58)

우리나라의 15-44세 사이 유배우 여성들의 평균 산후조리기간이 1.4개월인 것과 비교하면⁴⁾ 여성농업인들의 평균 산후조리기간은 그 1/5 수준밖에 되지 않으며, 39세 미만의 여성농업인들의 산후조리기간도 고연령층에 비해 많이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 평균과 비교하면 1/2도 되지 않는 수준이다.

4) 김승권 외(2000), 『2000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222-224

2. 보호노동 및 보육

가. 요보호 가구원 현황

가구 내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 장애인, 만 6세미만의 아동과 같이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원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19.3%가 적어도 한명 이상의 노인이나 장애인, 6세미만 아동이 가구 내에 있다고 응답하여 5명 중에 1명 정도가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40.7%가 보호를 요하는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그 비율이 높았다.

<표 IV-3> 요보호 가구원 현황

단위: 명(%)

	있다			없다	계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	장애인	만6세 미만의 아동		
■ 전 체 ■	123(8.1)	83(5.5)	90(5.9)	1243(81.7)	1521(100.0)
■ 연 령 별 ■					
39세 이하	4(4.7)	1(1.2)	33(38.4)	(59.3)	86(100.0)
40 대	19(7.4)	11(4.3)	8(3.1)	(86.4)	257(100.0)
50 대	29(7.0)	30(7.3)	24(5.8)	(81.1)	412(100.0)
60 대	51(9.2)	33(6.0)	18(3.3)	(82.1)	552(100.0)
70세 이상	20(9.3)	8(3.7)	7(3.3)	(85.5)	214(100.0)

여성농업인 가운데 가구 내에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이 있는 경우는 8.1%였으며,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5.5%였다. 만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는 5.9%로, 주로 3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가구 내에 아동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도 6세 미만의 아동이 가구 내에 있는 경우가 나타났다는데, 이 경우 손자녀를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보육 현황

현재 6세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N=90) 보육시설에 보내는지 집에서 돌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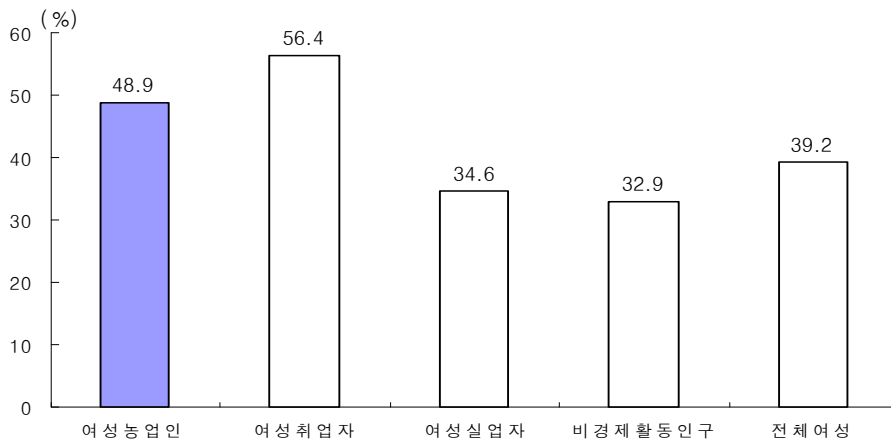
지를 질문한 결과, 48.9%가 보육시설에 보내고 있으며, 51.1%는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 6세미만 아동의 보육 방식

단위: 명(%)

	보육시설에 보낸다	집에서 돌본다	계
■ 전 체 ■	44(48.9)	46(51.1)	90(100.0)
■ 연 령 별 ■			
39세 이하	20(60.6)	13(39.4)	33(100.0)
40 대	3(37.5)	5(62.5)	8(100.0)
50 대	7(29.2)	17(70.8)	24(100.0)
60 대	8(44.4)	10(55.6)	18(100.0)
70세 이상	6(85.7)	1(14.3)	7(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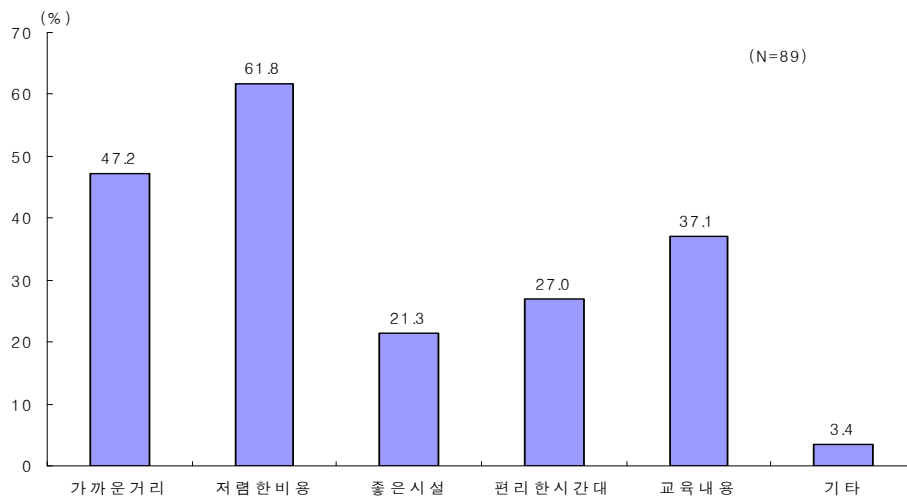
6세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농업인의 보육시설 활용도는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전체 여성(39.2%)보다는 높은 수준이지만, 여성취업자 전체의 보육시설 활용도(56.4%)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 여성취업자, 여성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전체 여성의 보육시설활용도는 한국여성개발원(2002), 『제4차 여성의 취업실태조사』, p.158.

<그림 IV-3> 여성농업인과 일반 여성의 보육시설 활용도

6세미만의 아동을 둔 여성농업인들이 농촌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여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두가지를 고르도록 하여 복수응답으로 처리한 결과, 저렴한 비용이 중요하다는 여성농업인이 61.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47.2%가 가까운 거리를 꼽았다. 그리고 ‘교육내용이 좋아야 한다’는 여성농업인이 37.1%, ‘맡기는 시간이 길고 종일반, 야간반, 휴일반 등이 있어야 한다’는 응답자가 27.0%, ‘시설이 좋아야 한다’는 여성농업인은 21.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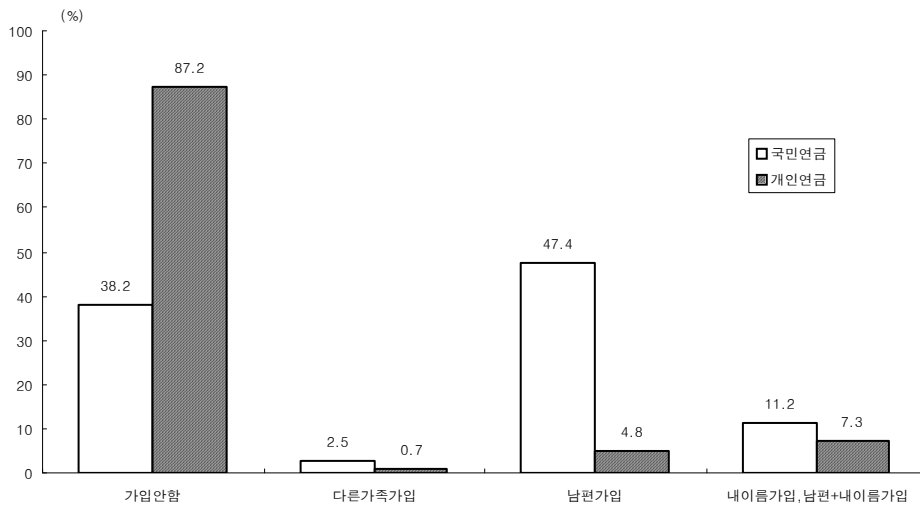
* 복수응답임.

<그림 IV-4> 농촌보육시설의 주요 요건

3. 연금가입

국민연금에 가입했는지, 가입했다면 가족 중 누구의 이름으로 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38.2%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61.8%가 해당가구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남편 명의로 가입한 경우가 47.4%로 가입자 대부분이 남편의 명의로 가입하였으며, 그 외의 다른 가족이 가입한 경우가 2.5%였다. 조사대상 여성농업인 자신의 명의로만 가입하거나 남편 가입과 함께 여성농업인 자신의 명의로도 가입한 경우는 11.2%였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는 87.2%가 가입하지 않았고 12.8%만이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0.7%는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가입했으며 4.8%는 남편의 명의로 가입했고, 여성농업인 본인의 명의로만 가입하거나 남편 가입과 함께 여성농업인 자신의 명의로도 가입한 경우는 7.3%였다.



<그림 IV-5> 연금가입 현황

연금가입여부는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여 70세 이상에서는 77.6%, 60대에서는 49.1%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노년층에서는 대다수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39세 이하의 연령층에서는 18.6%, 40대에서는 16.3%, 50대에서는 20.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60대 이상의 연령층 보다는 가입률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50대 이하 층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대부분 남편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9세 이하 층에서는 74.4%, 40대에서는 76.3%, 50대에서는 68.0%가 남편명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다. 이에 비해, 여성농업인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하거나 남편도 가입하고 본인도 가입한 경우는 39세 이하 연령층에서 2.3%, 40대에서는 7.0%, 50대에서는 9.5%였으며, 이에 비해 60대에서는 19.2%가 본인이름으로 가입하여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본인 명의

로 가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 가운데에는 33.5%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데 비해, 무배우자 가운데에는 58.6%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 무배우자의 가입률이 유배우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입한 경우 유배우자들은 대부분 남편 명의로 가입하고, 무배우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 연령대별, 혼인상태별 연금가입 현황

단위: 명(%)

	국민연금				계
	가입하지 않았	다른 가족이 가입했다	남편이 가입했다	내이름가입, 남편가입+내이름가입	
■ 연 령 별 ■					
39세 이하	16(18.6)	4(4.7)	64(74.4)	2(2.3)	86(100.0)
40 대	42(16.3)	1(0.4)	196(76.3)	18(7.0)	257(100.0)
50 대	86(20.9)	7(1.7)	280(68.0)	39(9.5)	412(100.0)
60 대	271(49.1)	8(1.4)	167(30.3)	106(19.2)	552(100.0)
70세 이상	166(77.6)	18(8.4)	14(6.5)	16(7.5)	214(100.0)
■ 혼인상태별 ■					
유 배 우	414(33.5)	17(1.4)	710(57.4)	95(7.7)	1236(100.0)
무 배 우	167(58.6)	21(7.4)	11(3.9)	86(30.2)	285(100.0)
	개인연금				계
	가입하지 않았	다른 가족이 가입했다	남편이 가입했다	내이름가입, 남편가입+내이름가입	
■ 연 령 별 ■					
39세 이하	60(69.8)	-	18(20.9)	8(9.3)	86(100.0)
40 대	186(72.4)	1(0.4)	24(9.3)	45(17.5)	256(100.0)
50 대	357(86.7)	1(0.2)	19(4.6)	35(8.5)	412(100.0)
60 대	520(94.2)	4(0.7)	9(1.6)	19(3.4)	552(100.0)
70세 이상	203(94.9)	4(1.9)	3(1.4)	4(1.9)	214(100.0)
■ 혼인상태별 ■					
유 배 우	1057(85.6)	4(0.3)	73(5.9)	101(8.2)	1235(100.0)
무 배 우	269(94.4)	6(2.1)	-	10(3.5)	285(100.0)

개인연금은 39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69.8%가 가입하지 않았으며 40대에서는 72.4%, 50대에서는 86.7%, 60대에서는 94.2%, 70세이상의 연령층에서는 94.9%가

가입하지 않아 연령이 높을수록 가입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9세 이하층에서는 20.9%가 남편이 가입했으며, 여성농업인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경우는 9.3%였다. 이에 비해, 40대에서는 남편이 가입한 경우가 9.3%,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한 경우가 17.5%로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가 남편이 가입한 경우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연령층에 비해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연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구원 중 누군가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여성농업인의 연금가입률은 63.8%로 나타났으며 36.3%는 가족원 그 누구도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층의 연금가입률이 24.8%로 가장 낮았으며, 60대의 가입률은 52.5%, 50대는 80.3%, 40대는 86.3%, 39세미만층에서는 86.0%의 가입률을 보였다. 그리고 혼인상태별로는 유배우자의 연금가입률은 68.7%로 무배우자의 가입률 42.1%보다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 연령대별, 혼인상태별 연금가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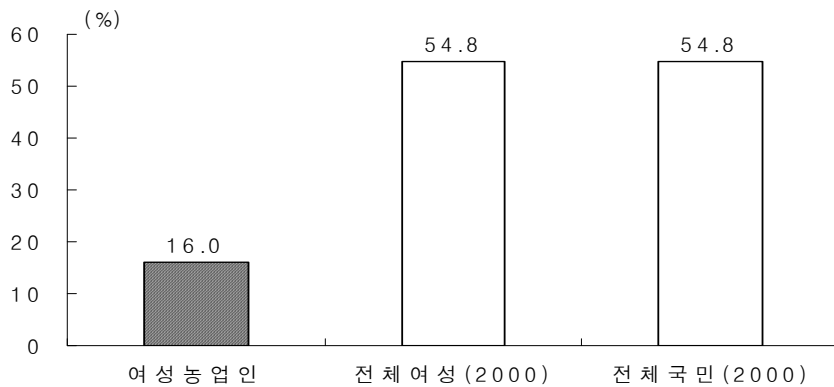
단위: 명(%)

	국민연금 또는 개인연금		계
	가입	비가입	
■ 전 체 ■	969(63.8)	551(36.3)	1520(100.0)
■ 연 령 별 ■			
39세 이하	74(86.0)	12(14.0)	86(100.0)
40 대	221(86.3)	35(13.7)	256(100.0)
50 대	331(80.3)	81(19.7)	412(100.0)
60 대	290(52.5)	262(47.5)	552(100.0)
70세 이상	53(24.8)	161(75.2)	214(100.0)
■ 혼인상태별 ■			
유 배 우	849(68.7)	386(31.3)	1235(100.0)
무 배 우	120(42.1)	165(57.9)	285(100.0)

4. 문화향수

가. 문화행사 참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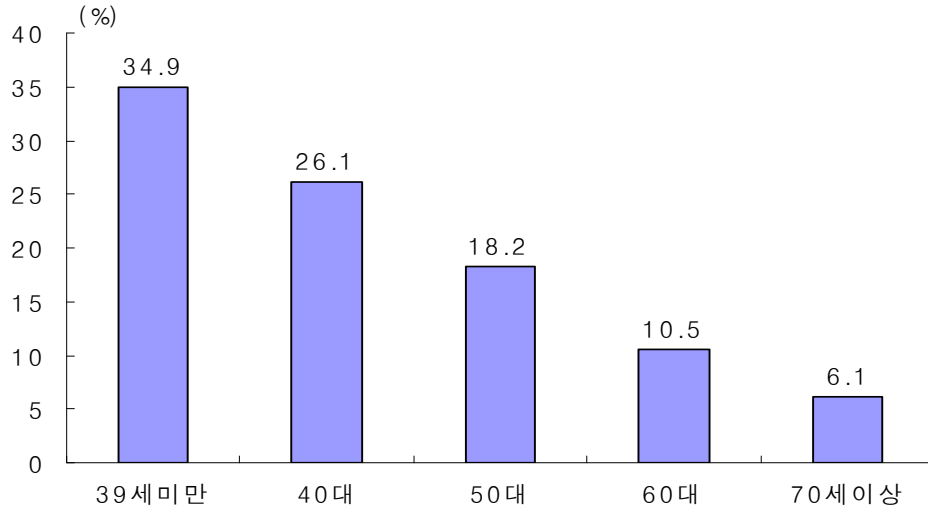
지난 1년 동안 문학행사나 전시회, 국악·민속놀이공연, 음악공연, 연극, 영화, 무용공연, 연예(쇼) 공연 등의 문화행사를 관람(참석)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84.0%가 '관람한 적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관람한 적이 있다'는 여성농업인은 16.0%에 불과했다. 2000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국민과 여성의 문화행사 참석률은 각각 54.8%로, 여성농업인의 문화행사 참석률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 전체여성(2000)과 전체국민(2000)의 문화행사 참석률은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0), 「문화향수실태조사」, pp.28-29.

<그림 IV-6> 여성농업인과 전체 여성의 문화행사 참석률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 여성농업인 가운데 34.9%가 지난 1년간 각종 문화행사에 참석한 경험이 있으며, 40대에서는 26.1%, 50대에서는 18.2%가 참석한 경험이 있으며 60대는 10.5%, 70세 이상은 6.1%만이 참석한 경험이 있어 여성농업인의 문화행사 참석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에서도 저연령층의 참석률은 비교적 높고 고연령층일수록 참석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7> 연령대별 문화행사 참석률

나. 문화시설 이용 현황

지난 1년 동안의 시·군·구민회관, 문화예술회관, 복지회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도서관 등 각각의 공공 문화시설을 이용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시·군·구민회관의 경우 11.8%의 여성농업인이 지난 1년간 1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질문 대상이 된 공공 문화시설 가운데 이용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은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 등의 복지회관으로 6.7%의 여성농업인이 1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예술회관 이용률은 4.6%, 공공도서관 이용률은 1.3% 수준이었다. 시설별 1인당 평균이용횟수는 복지회관이 0.49회로 가장 높았으며 시·군·구민회관은 평균 0.38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예술회관은 평균 0.10회 이용하였으며, 공공도서관의 평균 이용횟수는 0.08로 가장 낮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는 시·군·구민회관의 경우 13.5%의 국민이 이용한 경험이 있으며, 평균 이용횟수도 0.63회에 달했다. 문화예술회관의 경우에는 14.0%가 이용한 적이 있으며, 평균적으로는 1인당 0.36회를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복지회관의 경우 이용률은 8.3%이며 평균이용횟수는 0.55회였

다. 도서관은 12.3%의 국민이 이용한 바 있으며 1인당 평균 1.37회씩 이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여성농업인의 공공 문화시설 이용률은 국민 전체의 수준과 비교하면 매우 낮으며, 평균이용횟수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에 포함된 모든 공공 문화시설에서 공통적이었으며, 특히 도서관의 경우 여성농업인의 이용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문화시설 이용률 및 이용횟수

	여성농업인		일반국민(2000)	
	이용률(%)	이용횟수(회)	이용률(%)	이용횟수(회)
시·군·구민회관	11.8	0.38	13.5	0.63
문화예술회관	4.6	0.10	14.0	0.36
복지회관(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6.7	0.49	8.3	0.55
·공공도서관	1.3	0.08	12.4	1.37

* 일반국민(2000)의 문화시설 이용률과 이용횟수는 한국문화정책개발원(2000), 「문화향수실태조사」, pp.96-99.

연령대별로는 모든 문화시설에서 39세 이하의 연령층과 40대 층의 이용률이 비교적 높으며 평균 이용횟수도 비교적 많았다. 시설 가운데, 시·군·구민회관의 경우에는 40대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평균 이용횟수도 많았다. 그 외에 문화예술회관과 복지회관,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39세 미만층의 이용률이 가장 높고 평균 이용횟수도 많았다. 이에 비해, 60대 이상의 여성농업인, 특히 70세 이상 연령층의 문화시설 이용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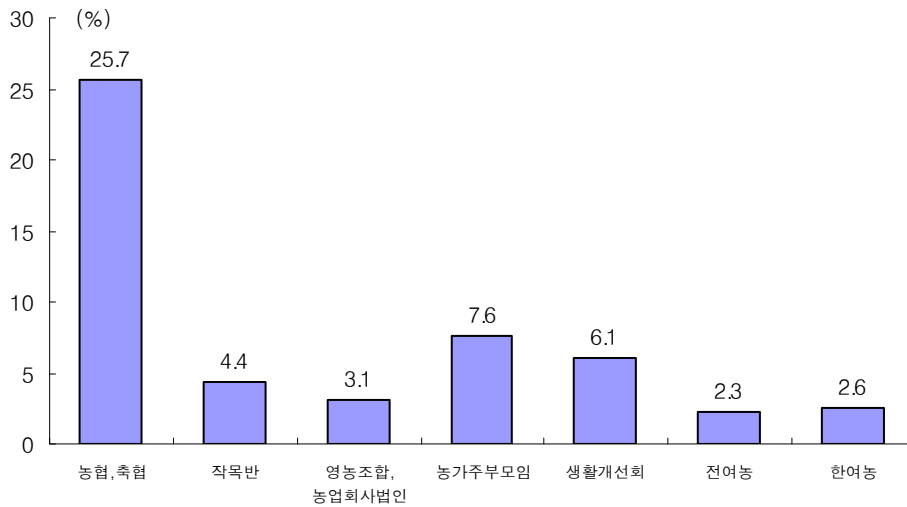
<표 IV-8> 연령대별 문화시설 이용률

단위: 명(%)

시·군·구민회관						
	이용한적 없다	연간 1회이용	연간 2회이용	연간 3회이상 이용	계	평균(회)
39세이하	70(81.4)	5(5.8)	4(4.7)	7(8.2)	86(100.0)	(0.51)
40대	208(80.9)	19(7.4)	15(5.8)	15(5.8)	257(100.0)	(0.67)
50대	353(86.1)	24(5.9)	18(4.4)	15(3.6)	410(100.0)	(0.50)
60대	503(91.1)	28(5.1)	10(1.8)	11(2.0)	552(100.0)	(0.26)
70세이상	206(96.3)	6(2.8)	1(0.5)	1(0.5)	214(100.0)	(0.07)
문화예술회관						
	이용한적 없다	연간 1회이용	연간 2회이용	연간 3회이상 이용	계	평균(회)
39세이하	74(86.0)	2(2.3)	4(4.7)	6(7.0)	86(100.0)	(0.34)
40대	238(92.6)	8(3.1)	4(1.6)	7(2.8)	257(100.0)	(0.19)
50대	389(95.1)	11(2.7)	3(0.7)	6(1.4)	409(100.0)	(0.10)
60대	535(97.3)	9(1.6)	3(0.5)	3(0.5)	550(100.0)	(0.05)
70세이상	210(98.1)	3(1.4)	-	1(0.5)	214(100.0)	(0.03)
복지회관						
	이용한적 없다	연간 1회이용	연간 2회이용	연간 3회이상 이용	계	평균(회)
39세이하	76(88.4)	4(4.7)	2(2.3)	4(4.7)	86(100.0)	(0.81)
40대	228(88.7)	7(2.7)	6(2.3)	16(6.2)	257(100.0)	(0.50)
50대	379(92.2)	4(1.0)	8(1.9)	20(4.8)	411(100.0)	(0.70)
60대	525(95.5)	11(2.0)	5(0.9)	9(1.6)	550(100.0)	(0.29)
70세이상	207(97.2)	2(0.9)	-	4(1.9)	213(100.0)	(0.48)
공공 도서관						
	이용한적 없다	연간 1회이용	연간 2회이용	연간 3회이상 이용	계	평균(회)
39세이하	80(93.0)	2(2.3)	1(1.2)	3(3.5)	86(100.0)	(0.58)
40대	251(97.7)	2(0.8)	1(0.4)	3(1.2)	257(100.0)	(0.17)
50대	406(99.3)	1(0.2)	-	2(0.5)	409(100.0)	(0.04)
60대	547(99.5)	1(0.2)	1(0.2)	1(0.2)	550(100.0)	(0.01)
70세이상	212(99.1)	1(0.5)	1(0.5)	-	214(100.0)	(0.01)

5. 조직가입 및 활동

여성농업인이 농협과 축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의 농업인조직에 남편 명의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여성농업인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해 있는지, 그리고 농협의 농가주부모임, 농촌진흥청의 생활개선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한여농) 등의 여성농업인과 관련된 주요 조직에 가입해 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농협 또는 축협에 자신의 명의로 가입한 여성농업인은 25.7%였다. 그 외에 조직별 가입률은 10%에 이르지 못했는데, 작목반에는 4.4%,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는 3.1%의 여성농업인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관련 조직에서는 농협 농가주부모임에 7.6%, 생활개선회에 6.1%의 여성농업인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에는 2.4%,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에는 2.6%의 여성농업인이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⁵⁾



<그림 IV-8> 농업인 및 여성농업인 관련 조직 가입률

5) 응답자가 기억하는 대로 조직가입 여부를 응답하도록 했기 때문에 조직에 가입하고도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조직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조직가입률은 이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경우 가입 사실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형식적 가입에 불과하며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는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조직에서 40대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농협 또는 축협, 농가주부모임, 생활개선회, 전여농, 한여농에서는 60대와 특히 70세 이상 층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이들 고령층보다 39세 이하 연령층의 가입률이 오히려 낮아 이들 연령층이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조직 참가에 매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조직에 가입한 경우 이름만 올려 놓았는지 아니면 적극 활동하고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는, 농협과 축협에서는 21.7%가 ‘이름만 올려놓았다’고 응답하였으며, ‘적극 활동하고 있다’는 여성농업인은 3.9%에 불과해 가입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이 농협이나 축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작목반에 가입한 4.4%의 여성농업인 가운데 3.0%가 ‘이름만 올려놓았다’고 했으며, 1.4%만이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에 가입한 3.1%의 여성농업인 가운데 2.0%는 ‘이름만 올려놓았다’고 응답했으며, 1.1%만이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농가주부모임의 경우에는 가입한 여성농업인(7.7%) 가운데 3.6%가 ‘이름만 올려놓았다’고 했으며, 4.1%가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하여 가입률은 농협이나 축협에 비해 현저히 낮지만 ‘적극 활동하고 있는’ 여성농업인은 오히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생활개선회에 가입한 7.1%의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2.5%가 ‘이름만 올려놓았다’고 응답했으며, 3.6%가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하였다. 전여농과 한여농의 경우에는 각각 1.3%와 1.1%의 여성농업인이 ‘이름만 올려놓았다’고 하였으며, 1.1%와 1.5%가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IV-9> 연령대별 조직 가입 및 활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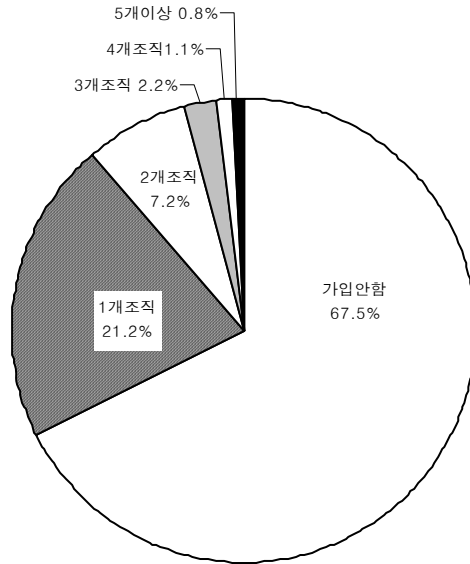
단위: 명(%)

	농협 또는 축협			계
	가입하지 않았다	이름만 올려놓았다	적극 활동하고 있다	
■ 전 체 ■	1129(74.3)	330(21.7)	60(3.9)	1519(100.0)
▣연 령 별▣				
39세이하	62(72.1)	20(23.3)	4(4.7)	86(100.0)
40대	178(69.5)	64(25.0)	14(5.5)	256(100.0)
50대	305(74.0)	85(20.6)	22(5.3)	412(100.0)
60대	417(75.7)	117(21.2)	17(3.1)	551(100.0)
70세이상	167(78.0)	44(20.6)	3(1.4)	214(100.0)

작목반				
	가입하지 않았다	이름만 올려놓았다	적극 활동하고 있다	계
■ 전 체 ■ □연 령 별□	1449(95.6)	46(3.0)	21(1.4)	1516(100.0)
39세이하	85(98.8)	-	1(1.2)	86(100.0)
40대	233(91.7)	16(6.3)	5(2.0)	254(100.0)
50대	390(94.7)	13(3.2)	9(2.2)	412(100.0)
60대	535(97.1)	10(1.8)	6(1.1)	551(100.0)
70세이상	206(96.7)	7(3.3)	-	213(100.0)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가입하지 않았다	이름만 올려놓았다	적극 활동하고 있다	계
■ 전 체 ■ □연 령 별□	1472(96.9)	30(2.0)	17(1.1)	1519(100.0)
39세이하	85(98.8)	1(1.2)	-	86(100.0)
40대	249(97.3)	3(1.2)	4(1.6)	256(100.0)
50대	395(95.9)	8(1.9)	9(2.2)	412(100.0)
60대	533(96.7)	14(2.5)	4(0.7)	551(100.0)
70세이상	210(98.1)	4(1.9)	-	214(100.0)
농가주부모임				
	가입하지 않았다	이름만 올려놓았다	적극 활동하고 있다	계
■ 전 체 ■ □연 령 별□	1402(92.4)	54(3.6)	62(4.1)	1518(100.0)
39세이하	76(88.4)	7(8.1)	3(3.5)	86(100.0)
40대	213(83.2)	16(6.3)	27(10.5)	256(100.0)
50대	373(90.5)	18(4.4)	21(5.1)	412(100.0)
60대	526(95.6)	13(2.4)	11(2.0)	550(100.0)
70세이상	214(100.0)	-	-	214(100.0)
생활개선회				
	가입하지 않았다	이름만 올려놓았다	적극 활동하고 있다	계
■ 전 체 ■ □연 령 별□	1426(93.9)	38(2.5)	55(3.6)	1519(100.0)
39세이하	80(93.0)	2(2.3)	4(4.7)	86(100.0)
40대	212(82.8)	15(5.9)	29(11.3)	256(100.0)
50대	382(92.7)	14(3.4)	16(3.9)	412(100.0)
60대	538(97.6)	7(1.3)	6(1.1)	551(100.0)
70세이상	214(100.0)	-	-	214(100.0)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가입하지 않았다	이름만 올려놓았다	적극 활동하고 있다	계
■ 전 체 ■ ▣연 령 별▣	1483(97.7)	19(1.3)	16(1.1)	1518(100.0)
39세이하	85(98.8)	1(1.2)	-	86(100.0)
40대	241(94.1)	6(2.3)	9(3.5)	256(100.0)
50대	401(97.3)	7(1.7)	4(1.0)	412(100.0)
60대	543(98.5)	5(0.9)	3(0.5)	551(100.0)
70세이상	213(100.0)	-	-	213(100.0)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가입하지 않았다	이름만 올려놓았다	적극 활동하고 있다	계
■ 전 체 ■ ▣연 령 별▣	1477(97.4)	17(1.1)	23(1.5)	1517(100.0)
39세이하	81(94.2)	4(4.7)	1(1.2)	86(100.0)
40대	237(92.6)	5(2.0)	14(5.5)	256(100.0)
50대	401(97.6)	6(1.5)	4(1.0)	411(100.0)
60대	544(98.9)	2(0.4)	4(0.7)	550(100.0)
70세이상	214(100.0)	-	-	214(100.0)

여성농업인 1인이 이상과 같은 농업인 조직 및 여성농업인 관련 조직 가운데 몇 개의 조직에 가입해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67.5%는 조사에 포함된 어떠한 조직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32.5%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1.2%는 하나의 조직에 가입했으며, 7.2%는 2개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2%는 3개 조직에, 1.1%는 4개 조직에 가입하였다. 5개 이상의 조직에 가입한 경우는 0.8%였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0.52개의 조직에 가입해 있으며, 하나 이상의 가입자는 평균 2.69개의 조직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V-9> 가입조직수

연령대별로는 39세 이하에서는 1인당 평균 1.37개의 조직에 가입해 있으며, 40대에서는 1.82개, 50대에서는 1.79개, 60대에서는 1.42개, 70세이상에서는 1.18개의 조직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 40대와 50대 여성농업인이 비교적 많은 수의 조직에 가입한 데 비해, 70세이상의 고령층과 39세이하의 저연령층에서는 비교적 적은 수의 조직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교육수준별로는 초등졸 이하의 여성농업인이 1인당 평균 1.47개의 조직에 가입해 있는데 비해, 중졸 여성농업인은 1.78개, 고졸 이상의 학력을 지닌 여성농업인은 1.88개의 조직에 가입해 있어 학력이 높은 여성농업인들이 비교적 많은 조직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0> 연령대별, 교육수준별 가입조직수

단위: 개

	가입조직수	
■연령별■ 39세이하 40대 50대 60대 70세이상	1.37 1.82 1.79 1.42 1.18	F=4.68 df=4 p=.001
■교육수준별■ 초등졸이하 중졸 고졸이상	1.47 1.78 1.88	F=5.27 df=2 p=.005

여성농업인이 가입한 조직의 수와 관련변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농번기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은 각각 가입조직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농번기 농업노동시간이 길고 가사노동시간이 길수록 보다 많은 조직에 가입해 있으며 반면 농업노동시간과 가사노동시간이 짧을수록 보다 적은 수의 조직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농업노동시간과 가입조직수, 가사노동시간과 가입조직수가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농업노동기여도는 가입조직수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의미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조직에 가입하고 노동기여도가 낮을수록 적은 수의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업경영 관련 의사결정 참여도 역시 가입조직수와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여성농업인의 진취성과도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즉,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가 높을수록,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이 높을수록 보다 많은 조직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1> 가입조직수와 관련변수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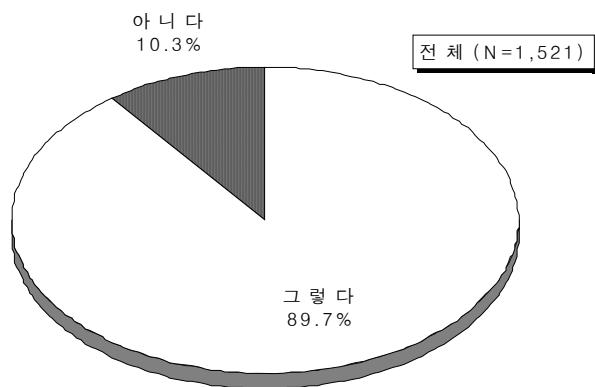
	노동시간				농업노동 기여도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여성농업 인진취성
	농번기		농번기,농한기 구분없음				
	농업노 동시간	가사노 동시간	농업노 동시간	가사노 동시간			
가입조직수와의 상관관계	r=0.071 p=0.01 (N=1301)	r=0.054 p=0.05 (N=1292)	r=-0.027 p=0.69 (N=219)	r=-0.035 p=0.61 (N=219)	r=0.106 p=.000 (N=1518)	r=0.138 p=.000 (N=1521)	r=0.222 p=.000 (N=1521)

V. 여성농업인의 정책수요

1. 농촌 거주 의향

가. 향후 농촌거주의향

앞으로도 계속 농촌지역에서 살고 싶은지 의향을 물어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여성 농업인이 '그렇다'(89.7%)고 응답하였다.



<그림 V-1> 향후 농촌거주의향

향후 농촌거주 의향은 가구형태, 전업농 여부, 지난 1년간의 영농기간 등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난다. 지난 1년간 영농종사기간이 6개월이고, 독신 및 부부가구일 때, 그리고 전업농일 때 향후 농촌거주 의사가 상대적으로 더 높다. 그러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연령과 학력변수였다. 즉 저연령층, 고학력일수록 농촌거주의사가 현저히 떨어진다. 우리나라 농업·농촌대책은 어떻게 하면 중장년층과 고학력층의 離農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표 V-1> 농촌거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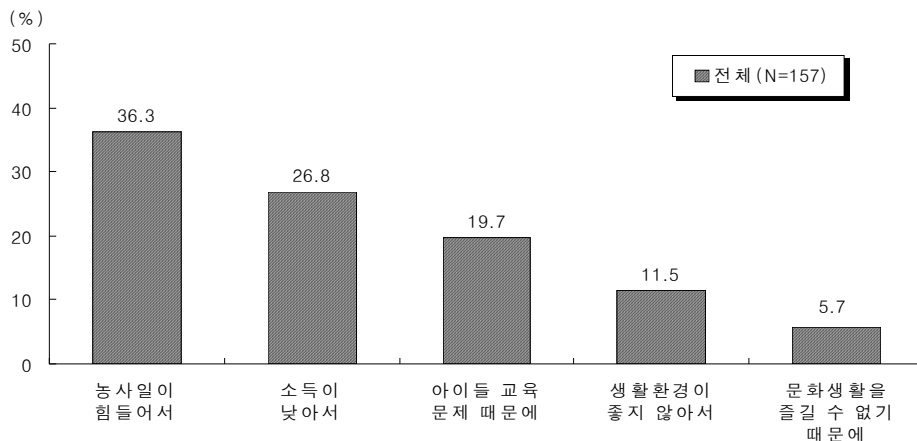
단위: %(명)

		살고 싶다	아니다	계
전체		89.7	10.3	100.0(1,521)
연령별	39세 이하	65.1	34.9	100.0(86)
	40대	79.4	20.6	100.0(257)
	50대	90.3	9.7	100.0(412)
	60대	95.5	4.5	100.0(552)
	70세 이상	95.8	4.2	100.0(214)
교육수준	초등졸 이하	93.3	6.7	100.0(1,172)
	중졸	84.0	16.0	100.0(206)
	고졸이상	67.8	32.2	100.0(143)
영농종사기간	6개월 미만	75.9	24.1	100.0(54)
	6개월 이상	90.2	9.8	100.0(1,467)
가구형태	독신가구	93.8	6.3	100.0(176)
	부부가구	93.8	6.2	100.0(633)
	2세대가구	84.2	15.8	100.0(449)
	3세대가구	86.4	13.6	100.0(243)
	기타	85.0	15.0	100.0(20)
전겸업유무	전업농	91.5	8.5	100.0(1,113)
	겸업농	84.8	15.2	100.0(408)

나.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 농업인(157명) 중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농사일이 힘들어서'(36.3%), '소득이 낮아서'(26.8%),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19.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연령과 가구형태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 40세 미만층의 경우 '아이들 교육문제'를 이유로 드는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40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낮거나' '농사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젊은 층에서 높고,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그림 V-2>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표 V-2> 주요 특성별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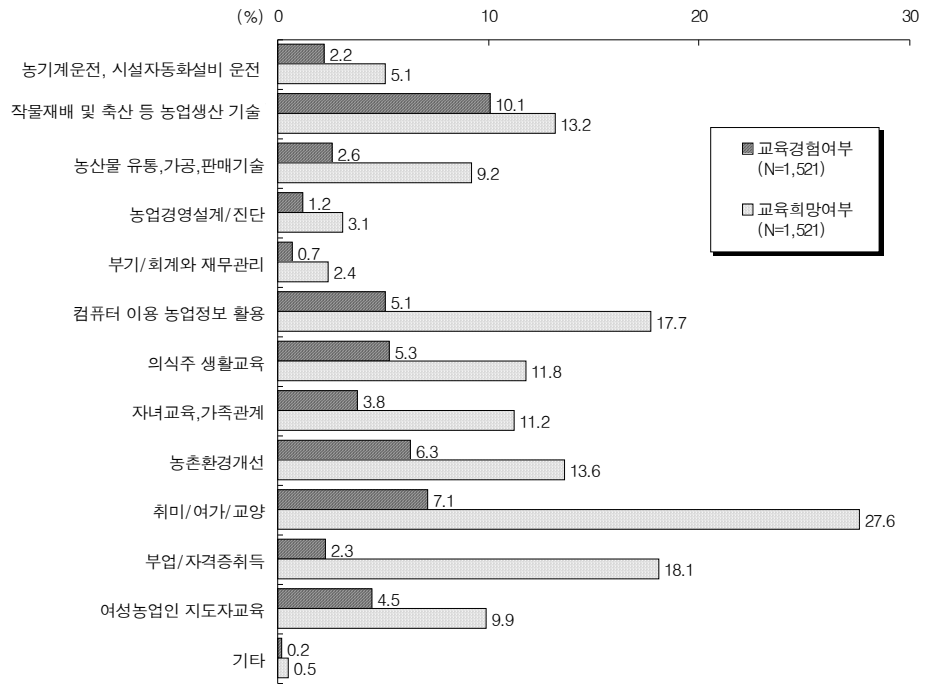
		계	농사일이 힘들어	소득이 낮아	자녀교육 때문에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어서
연령별	39세 이하	100.0(30)	3.3	13.3	66.7	6.7	10.0
	40대	100.0(53)	30.2	35.8	18.9	11.3	3.8
	50세 이상	100.0(74)	54.0	25.7	1.4	13.5	5.4
가구 형태별	독신, 1세대	100.0(53)	47.1	32.1	0.0	15.1	5.7
	2세대 이상	100.0(104)	30.8	24.0	29.8	9.6	5.8
전체		100.0(157)	36.3	26.8	19.7	11.5	5.7

2. 교육현황

가. 교육경험과 교육수요

여성농업인들이 지난 3년간 받은 바 있는 교육훈련경험을 살펴본 결과, <그림 V-3>과 같이 매우 저조하게 나타난다. ‘작물재배 및 축산등 농업생산기술’을 받

는 경험이 있는 여성이 10.1%를 넘을 뿐 그 밖의 교육의 경우 전체 여성중 교육 참가자의 비율이 10% 미만이다. 상대적으로 수혜율이 높은 교육은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10.1%), '취미/여가/교양'(6.9%), '농촌생활개선'(6.3%)인 반면, '부기/회계와 재무관리'(0.7%), '농업경영설계 및 진단'(1.2%), '농기계·시설자동화설비 운전기술'(2.2%), '농산물 유통·가공·매기술'(2.6%) 교육에 참여한 비율은 매우 저조하다. 반면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분야는 '취미/여가/교양'(27.5%), '부업/자격증 취득'(18.1%), '컴퓨터 이용 농업정보 활용'(17.7%)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V-3> 여성농업인의 교육경험과 교육수요

여성농업인의 교육수혜와 희망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하나는 교육경험율에 비해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림 V-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교육경험율을 나타내는 어두운 색 기둥이 교육희망률을 나타내는 밝은 색 기둥보다 짧다. 이것은 모든 교육과목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농업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보다 취미, 부업, 컴퓨터 교육 등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다는 것이다. 농업생산기술에서는 ‘작물재배 및 축산등 기술’과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기술’에 대한 수요가 10%전후로 그나마 높은 편이라 하겠다. 반면 ‘부기/회계와 재무관리’, ‘농업경영설계 및 진단’, ‘농기계·시설자동화설비 운전기술’에 대한 수요는 각각 2.4%, 3.1%, 5.1%에 그친다.

지난 3년간 여성농업인의 교육참가율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는 여성농업인의 연령과 학력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고학력층일수록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컴퓨터교육과 부업교육에서 그러하다. 그런데 농기계 및 설비운전 교육, 농업생산기술교육, 농산물 유통가공판매기술교육, 여성농업인 지도자 교육, 농촌환경개선교육 등에서는 40대 연령층의 참가율이 가장 높아, 여성농업인 교육의 주 대상층이 40대 층임을 알 수 있다.

고학력일수록 교육참가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사실 중졸과 고졸이상 간에는 큰 차이가 없다. 모든 교육과정에서 중졸이상 학력자의 참가비율이 높지만, 특히 ‘컴퓨터교육,’ ‘여성농업인지도자 교육’에서 두드러진다.

<표 V-3> 지난 3년간의 교육경험 여부

단위: %

	받은 적 있다														받은 적 없다
	소계	설비 운전	생산 기술	유통 가공	경영	재무 관리	컴퓨터	의식 주	자녀 교육	농촌 환경	취미	부업 자격	지도 자	기타	
계	22.4	2.2	10.1	2.6	1.2	0.7	5.1	5.3	3.8	6.3	7.1	2.3	4.5	0.2	77.6
연령계층별															
-39	40.7	2.3	7.0	2.3	1.2	3.5	18.6	10.5	7.0	7.0	15.1	9.3	4.7	0.0	59.3
40	40.1	5.4	17.1	6.6	3.5	1.9	14	12.8	9.3	14.4	16.7	5.4	11.3	0.4	59.9
50	26.2	2.4	12.6	3.2	1.5	0.2	5.3	6.1	4.4	7.8	6.8	2.2	5.1	0.5	73.8
60	14.7	1.1	8.2	1.1	0.4	0.2	0.5	2	1.6	3.4	3.3	0.5	2.4	0.0	85.3
70+	6.1	0.9	2.8	0.5	0.5	0	0	1.4	0.5	0.9	2.8	0.5	0.5	0.0	93.9
학력별															
초졸	17.5	0.9	9.4	1.3	0.6	0.2	1.8	3.2	2.4	4.8	4.2	1.0	3.0	0.2	82.5
중졸	37.9	8.3	14.6	7.3	3.4	2.4	14.1	12.6	8.7	12.1	15.5	4.9	10.7	0.0	62.1
고졸	39.9	4.2	9.1	6.3	3.5	2.1	18.9	12.6	8.4	10.5	18.9	9.1	7.7	0.7	60.1

주: 복수응답 항목임.

교육수요 역시 여성농업인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여성이 50%를 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이 현상은 반전된다. 예컨대 40세 미만 여성중에는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과 희망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75:25이다. 40세 중 여성의 수요도 이와 거의 유사하다(73:27).

이들 30-40대 여성농업인이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교육은 ‘취미·여가·교양’, ‘부업·자격증 취득’ 및 ‘컴퓨터 이용 및 농업정보 활용’으로서 희망자의 비율이 각각 50%에 육박한다. 한편 ‘농기계 운전’, ‘작물재배 등 생산기술’, ‘농산물 가공·유통·판매기술’, ‘회계 및 재무관리 교육’ 등을 희망하는 비율이 각각 10~20% 수준이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희망율은 다른 연령계층에서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따라서 향후 ‘농기계 운전’, ‘작물재배 등 생산기술’, ‘농산물 가공·유통·판매기술’, ‘회계 및 재무관리 교육’ 등의 교육은 아무래도 주대상층을 30~40대층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 접근일 것이다. 50대 농업인들도 ‘작물재배 등 생산기술’과 ‘농산물 가공·유통·판매기술’ 교육에 대해서는 희망률이 각각 19%, 13%로 높은 편이다.

좀 더 세분하여 특징을 살펴보면, 30세층 이하의 젊은 여성들은 ‘자녀교육, 가족관계’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40대 여성농업인은 ‘여성농업인지도자 교육’과 ‘컴퓨터 교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V-4> 향후 교육수요

단위: %

	교육을 받고 싶다														비 희망
	소계	설비 운전	생산 기술	유통 가공	경영	재무 관리	컴퓨터	의식 주	자녀 교육	농촌 환경	취미	부업 자격	지도 자	기타	
계	42.9	5.1	13.2	9.2	3.1	2.4	17.7	11.8	11.2	13.6	27.6	18.1	9.9	0.5	57.1
연령계층별															
-39	74.4	14.0	16.3	18.6	5.8	10.5	43.0	26.7	43.0	27.9	50.0	50.0	17.4	1.2	25.6
40	72.8	11.7	23.3	19.5	5.4	5.4	47.5	25.3	23.3	25.7	52.5	42.0	23.3	0.4	27.2
50	55.8	5.8	18.9	12.9	5.1	2.7	21.6	14.6	10.9	17.7	33.5	21.6	12.4	0.7	44.2
60	25.9	1.8	8.0	3.6	1.3	0.5	3.4	4.5	4.3	7.2	15.2	5.4	3.6	0.2	74.1
70+	13.1	0.5	2.3	0.5	0.0	0.0	0.9	2.8	1.9	1.9	9.3	2.3	1.9	0.5	86.9
학력별															
초졸	34.3	3.2	11.4	6.0	1.8	1.3	10.0	7.8	6.9	9.6	20.6	11.5	5.9	0.4	65.7
중졸	69.9	10.2	21.8	19.4	6.8	3.4	42.2	24.8	20.9	27.2	50.5	38.3	22.8	0.0	30.1
고졸	74.1	13.3	15.4	21.0	8.4	10.5	45.5	25.2	32.2	27.3	52.4	42.7	23.8	1.4	25.9

주: 복수응답 항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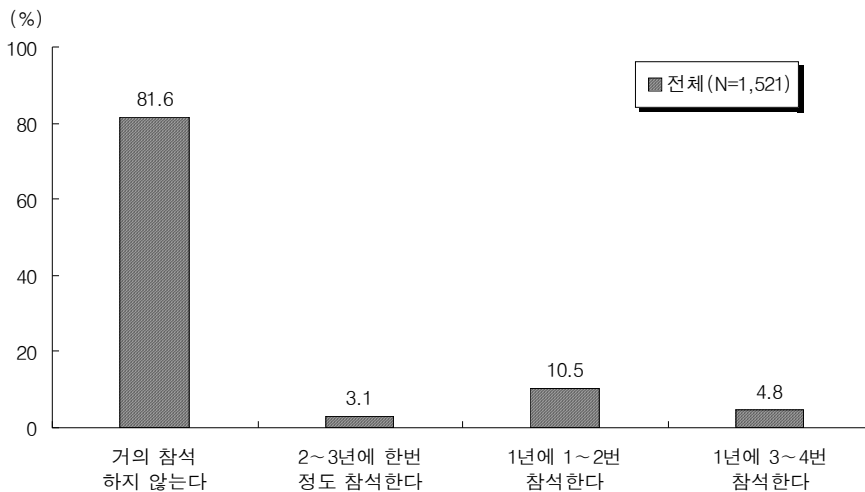
나. 교육 참석 빈도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은 평소 교육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81.6%)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2번 참석하는 여성농업인이 10.5%이고 1년에 3-4번 참가하는 여성은 4.8%에 그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여성이 교육의 주요 참가자임을 알 수 있다. 1년에 1-2번 내지 3-4번 참가한다는 여성의 비율이 33%를 넘는다. 30대 이하 여성의 교육참가가 그 다음으로 빈번하다. 1년에 1~4번 참석하는 비율이 30대 이하 여성층에서 24.5%이고, 50대 여성에서는 18.9%로 나타난다.

학력별로 분석하면 중졸이상 여성농업인의 교육참가가 상대적으로 활발한데, 특히 중졸 여성농업인이 좀 더 활발한 편이다.

여성농업인의 교육참가 빈도를 결정짓는 데에는 영농형태도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축산농가의 여성농업인들은 1년에 1-2번 참가하는 비율이 25.5%, 1년에 3-4번 참가하는 비율이 15.7%으로 어떤 영농형태보다도 교육참가가 활발하다. 그 다음으로는 과수, 화훼, 특작, 채소농가가 활발한 편이다. 반면 논벼 및 일반 밭작물일 경우 교육참가가 매우 저조한데, 이것은 이 작목에 종사하는 농가가 대체로 고령, 저학력층인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림 V-4> 교육 참석 빈도

<표 V-5> 주요특성별 교육참석 빈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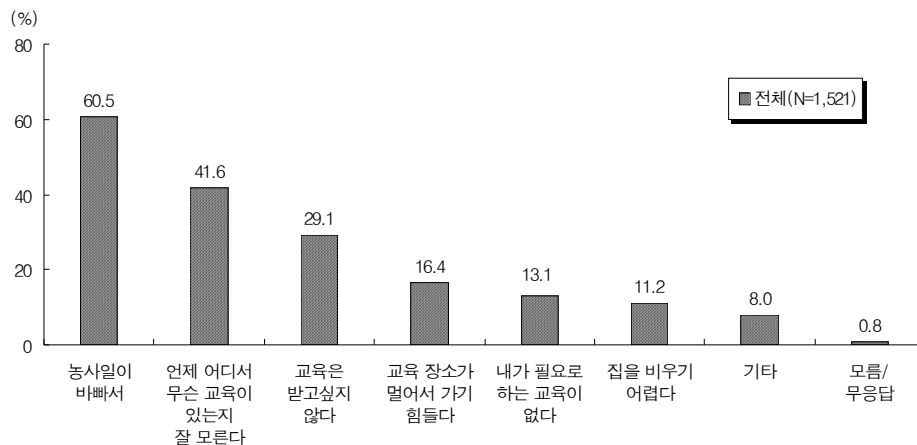
단위: %(명)

		거의참석 않음	2-3년에 한번	1년에 1-2번	1년에 3-4번	계
전체		81.6	3.1	10.5	4.8	100.0(1521)
연령별	-39	67.4	8.1	14.0	10.5	100.0(86)
	40	63.8	3.1	20.6	12.5	100.0(257)
	50	78.9	3.2	12.6	5.3	100.0(412)
	60	88.2	3.3	6.7	1.8	100.0(552)
	70+	96.7	0.5	2.8	0.0	100.0(214)
학력별	초졸	86.3	2.5	8.9	2.3	100.0(1172)
	중졸	65.5	3.9	17.0	13.6	100.0(206)
	고졸	65.7	7.0	14.7	12.6	100.0(143)
영농 형태별	논벼	83.8	2.7	9.4	4.1	100.0(854)
	전작	88.1	2.0	7.5	2.4	100.0(252)
	과수등	76.1	4.1	13.2	6.6	100.0(364)
	축산	51.0	7.8	25.5	15.7	100.0(51)

주: 과수 등에는 과수, 채소, 화훼, 특작, 기타가 포함됨.

다. 교육 참석시 불편사항

평소 교육에 참여하기가 어려운 이유로는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60.5%),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이 있는지 잘 모른다'(41.6%),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29.1%) 등을 언급하였다. '교육장소가 멀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없다' 및 '집을 비우기 어렵다' 등을 지적한 여성농업인의 비율도 10% 이상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결과라 하겠다.



주: 복수응답항목임.

<그림 V-5> 교육 참석시 불편사항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농사일이 바쁘고’ ‘정보를 모른다’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그 정도는 연령별로 구별된다. 예컨대 30대 이하 연령층은 ‘교육장소가 멀고’ ‘집 비우기 어렵다’를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40대층은 ‘집 비우기 어렵다’와 ‘필요한 교육이 없다’는 비율이 높다. 반면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40%를 넘는다.

학력별로는 중졸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사일이 바쁘다는 언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졸 여성농업인에서는 교육장소가 멀고,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여기서도 영농형태는 유의한 변수로 작용한다. 축산농가의 여성농업인에서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는 비율은 6.1%에 그치고, 농사일 바쁘고 정보를 몰라서, 그리고 교육장소가 멀거나 집비우기가 힘들어 교육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특작농가의 경우 필요한 교육이 없다고 지적한 여성농업인이 31.5%로서, 보다 관련교육이 특화되고 수요자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표 V-6> 교육 참석시 불편사항

단위: %

		계	농사일 이바빠	정보를 몰라서	받고싶 지않다	교육장 소가 멀다	필요한 교육이 없다	집 비우기 어렵다	기타
전체		100.0	61.0	41.9	29.3	16.5	13.2	11.3	9.0
연령별	-39	100.0	55.4	44.7	9.4	33.0	9.4	24.7	7.1
	40	100.0	77.6	43.7	10.6	20.4	13.4	20.9	3.1
	50	100.0	73.2	46.7	20.3	18.6	10.5	9.1	4.7
	60	100.0	54.8	39.0	40.1	13.4	13.9	8.2	11.1
	70+	100.0	35.8	37.2	49.0	9.0	17.5	7.1	19.4
학력별	초졸	100.0	59.7	41.8	34.4	13.7	13.3	9.1	10.2
	중졸	100.0	73.4	46.3	12.8	21.2	8.4	16.8	2.9
	고졸	100.0	53.5	37.2	11.4	33.6	19.3	21.5	7.9
영농형태	논벼	100.0	58.7	42.2	33.1	13.9	13.0	10.1	10.6
	전작	100.0	54.8	46.4	32.4	18.9	9.2	13.2	8.4
	특작	100.0	68.5	25.9	20.4	16.7	31.5	9.3	7.4
	축산	100.0	81.6	32.7	6.1	28.6	10.2	22.5	8.1
	과수등	100.0	67.7	41.8	22.1	19.8	14.3	12.0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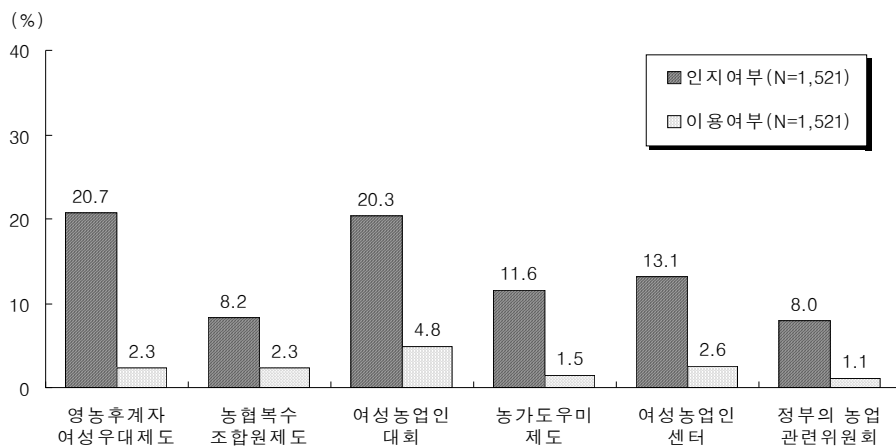
주: 무응답자 제외. 과수 등에는 과수, 채소, 화훼, 기타가 포함됨.

3. 여성농업인 제도인지 및 이용현황

여성농업인들은 정작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또 이용하고 있는가. 전반적으로 제도 인지율은 20% 미만이고, 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5%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이처럼 제도 인지율에 비해 실제 이용현황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여부는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20.7%), '여성농업인대회'(20.3%)가 가장 높았다. 한편 실제 이용여부는 '여성농업인대회'(4.8%), '여성농업인센터'(2.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연령과 제도 인지율은 정확하게 반비례하여, 젊은 층일수록 관련 제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40대 연령층 이하의 젊은 여성농업인은 각종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20%를 넘지만 유독 농협 복수조합원 제도와 농업관련 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1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학력별로는 중졸 여성농업인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또한 축산농가와 겸업농가의 제도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V-6> 여성농업인의 관련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현황

<표 V-7> 여성농업인의 관련제도에 대한 인지 정도

단위: %

	전체			각제도별 인지율						
	계	비인지	인지	여성농업인 후계우대	농협복수 조합원	여성농업인 대회	농가도우미	여성농업인 센터	농업관련위원회	
계	100.0	66.1	33.9	20.7	8.2	20.3	11.6	13.1	8.0	
연령별	-39	100.0	41.9	58.1	25.6	11.6	38.4	23.3	33.7	12.8
	40	100.0	41.2	58.8	37.0	14	39.7	22.2	22.6	12.5
	50	100.0	59.7	40.3	26.0	10.2	24.0	12.9	16.0	10.7
	60	100.0	79.0	21.0	13.4	5.1	10.7	7.1	7.1	4.5
	70+	100.0	85.0	15.0	7.9	4.2	7.5	3.3	3.7	4.7
학력별	초졸	100.0	73.9	26.1	15.5	6.3	14.3	7.3	8.6	5.4
	중졸	100.0	35.9	64.1	45.1	16.5	43.7	26.2	31.6	20.4
	고졸	100.0	46.2	53.8	28	11.9	35.7	25.2	23.8	11.9
영농형태	논벼	100.0	68.3	31.7	19.7	6.9	18.1	10.0	12.2	6.9
	전작	100.0	72.6	27.4	20.6	9.9	14.3	9.9	7.5	8.3
	축산	100.0	33.3	66.7	45.1	9.8	43.1	31.4	33.3	19.6
	과수등	100.0	61.1	38.9	19.7	9.7	26.4	13.6	16.4	8.9
농가	전업	100.0	69.1	30.9	18.7	7.5	18.4	10.2	12.5	7.3
	겸업	100.0	58.1	41.9	26.2	10.3	25.5	15.4	15	10

주: 영농특성에서 기타를 제외함.

전술한 바와 같이 여성농업인 관련 제도를 이용해본 여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즉 제도별로 그 이용률이 각각 5%미만인데 특히 농가도우미제도와 농업관련위원회의 이용률은 1% 대이다. 제도들에 대한 이용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대체로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다르게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여성농업인대회, 여성농업인센터의 이용률도 5% 미만인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한편 젊고 고학력층일수록 제도에 대한 이용률이 높다. 또한 축산농가와 겸업농가의 이용률이 높다.

<표 V-8> 여성농업인의 관련제도 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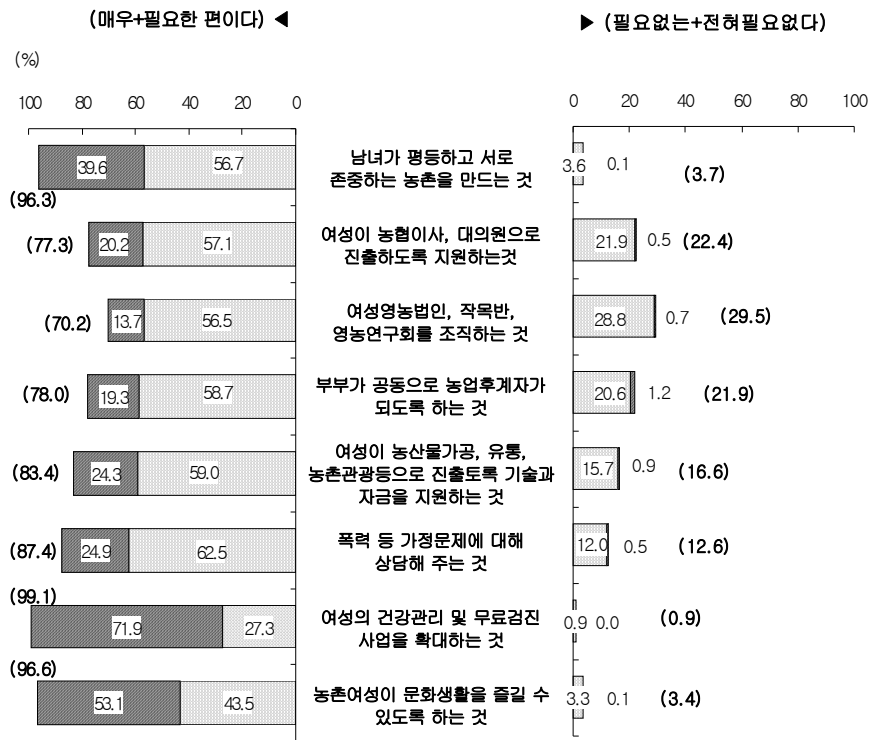
단위: %

	전체			각 제도별 이용률						
	계	비이용	이용	여성 농업인 후계 우대	농협 복수 조합원	여성 농업인 대회	농가 도우미	여성 농업인 센터	농업 관련 위원회	
계	100.0	92.0	8.0	2.3	2.3	4.8	1.5	2.6	1.1	
연령별	-39	100.0	82.6	17.4	2.3	2.3	9.3	2.3	7.0	0.0
	40	100.0	81.7	18.3	6.6	4.7	11.7	2.7	5.1	2.3
	50	100.0	91.0	9.0	2.2	3.4	6.6	1.7	3.4	1.5
	60	100.0	96.4	3.6	1.3	1.1	1.4	1.1	0.9	0.7
	70+	100.0	98.6	1.4	0.0	0.5	0.0	0.5	0.5	0.0
학력별	초졸	100.0	95.2	4.8	1.2	1.6	2.6	1.0	1.3	0.7
	중졸	100.0	81.1	18.9	6.8	5.3	13.6	2.4	6.8	2.9
	고졸	100.0	81.1	18.9	4.9	3.5	9.8	4.2	7.0	1.4
영농 형태	논벼	100.0	93.4	6.6	2.1	1.6	3.4	1.1	1.5	0.7
	전작	100.0	94.0	6.0	2.8	3.6	3.2	2.4	2.0	2.0
	축산	100.0	78.4	21.6	5.9	2.0	15.7	2.0	9.8	0.0
	과수등	100.0	89.2	10.8	2.0	3.1	7.5	1.7	4.2	1.4
농가	전업	100.0	92.8	7.2	2.2	2.0	4.8	1.3	2.3	1.2
	겸업	100.0	89.7	10.3	2.5	3.2	4.9	2.0	3.2	0.7

주: 영농특성에서 기타를 제외함.

4. 여성농업인을 위한 필요 사업

조사대상 여성농업인들은 본고가 제시한 모든 항목에 대해 압도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특히 ‘여성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사업을 확대하는 것’(99.1%), ‘농촌여성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96.6%),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농촌을 만드는 것’(96.3%) 등의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여성 농업인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V-7> 여성농업인을 위한 필요사업 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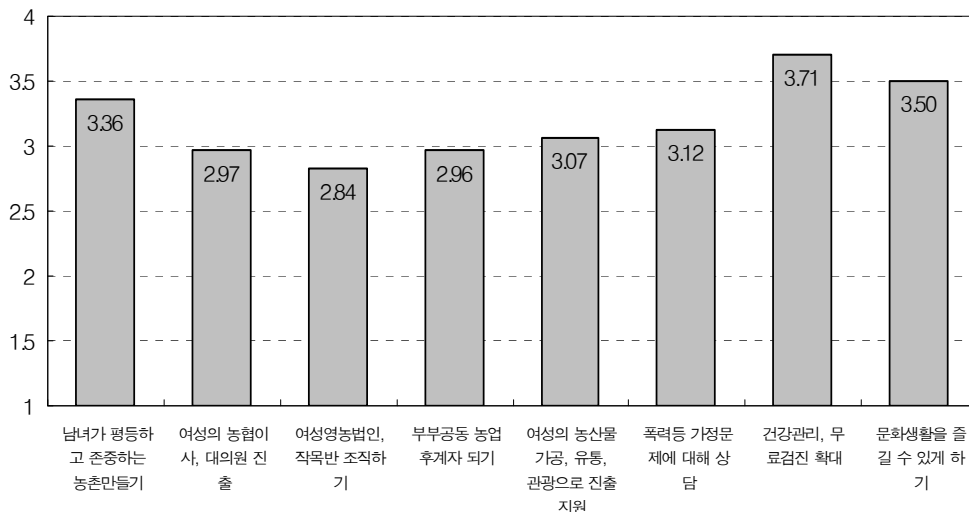
여기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여성영농법인, 작목반 등의 조직’, ‘부부 공동 영농후계자 제도’, ‘여성의 농협이사, 대의원 진출 지원’ 보다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농촌을 만드는 것', '폭력 등 가정문제 상담',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농촌여성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여성집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지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농촌을 만드는 것', '폭력 등 가정문제 상담',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농촌여성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지지하는 비율이 90%에 가깝거나 그 이상이라는 사실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사업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비율이 높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문항은 매우 필요하다에 4점, 필요한 편이다에 3점, 필요없다에 2점, 전혀 필요없다에 1점을 부여하는 4점 척도로 이루어졌다. 8개 문항간 타당성을 보여주는 Cronbach 계수가 0.8192로 높은 편이다. 8개 문항간 상관계수가 모두 $p < 0.0001$ 수준에서 유의하다. 매우 필요하다에 4점, 전혀 필요없다에 1점을 부여했으므로, 평균점수가 2.5 이상이면 해당 정책사업에 대해 필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V-8>에서 보는 바와 같이 8개 문항 모두 2.5 이상으로 여성농업인들은 각 문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느낀다. 특히 여성건강관리 및 무료검진사업에 대한 요구가 3.7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기에 3.50, 남녀가 평등하고 존중하는 농촌만들기에 3.36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는 <그림 V-7>의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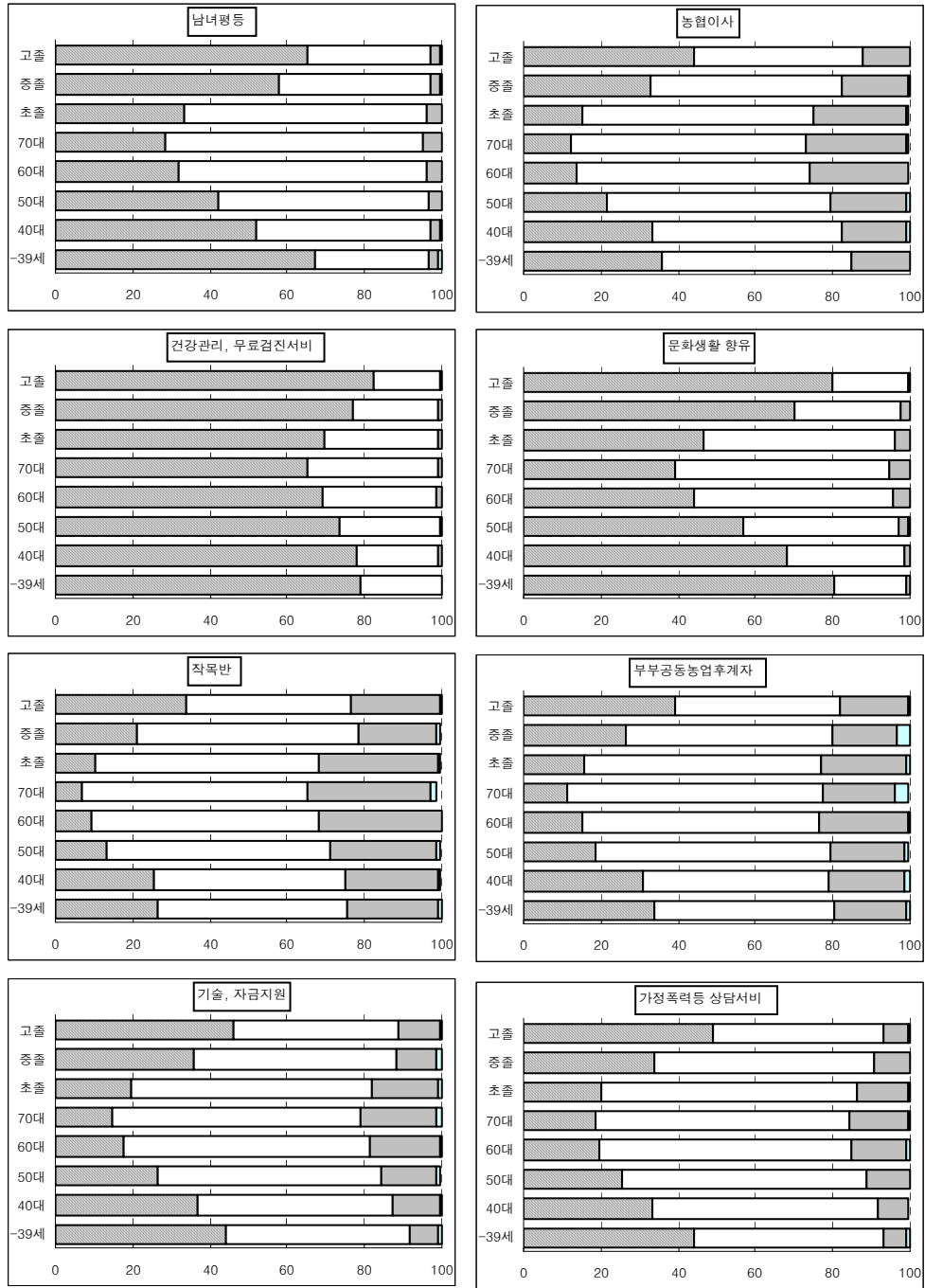
본 조사에서 여성농업인들의 수요가 높게 나타난 정책사업들, 즉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농촌을 만드는 것', '폭력 등 가정문제 상담',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농촌여성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등은 이제까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정부서에서 상대적으로 등한히 취급되어 온 것들이다. 이제는 여성의 문화 및 복지요구와 밀접히 관련되는 이들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사업화를 도모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된다.



<그림 V-8> 각 정책사업에 대해 여성농업인이 느끼는 필요성

<그림 V-9>는 각 사업에 대한 요구도를 여성농업인의 연령과 학력별로 나누어 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만한 사실은 두가지이다. 하나는 8개 사업 모두에 대해 젊고 고학력일수록 필요하다고, 특히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연령이나 학력과 무관하게 몇몇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인지되는 현상이다. 즉 ‘여성의 농협이사·대의원 진출지원’, ‘여성영농법인·작목반 조직’, ‘부부공동농업후계자 지원’ 등의 사업이 그것이다. 이로써 다시 한번 여성농업인들의 문화 및 복지관련 사업에 대한 보편적 수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바, 이들 사업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V-9> 각 정책사업에 대한 연령, 학력별 요구도

VI.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 연구개요

□ 연구목적

본 연구는 제2차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2006-2010년)의 수립을 앞두고 그간의 여성농업인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농업·농촌의 환경변화 속에서 여성농업인이 농업구조의 선진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요구를 발굴해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또한 급박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농업을 생산과 가공, 유통과 무역이 체계적으로 연계된 하나의 종합산업으로 보고, 그 산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의 성장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자율적 시장경제원리에 부합하는 농업정책으로서 미래농업을 담당할 인력구조 확보 등에 대한 관심이 다른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여성농업인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농업종사자 중 여성 인력은 50.7%로 절반을 넘는다. 영농형태도 논벼 위주에서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작목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들은 여성노동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작목이기 때문에 여성의 농업노동 참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발달, 상품의 포장과 마케팅 등 농업경영에 있어서도 여성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강점이 있으므로 점점 그 역할이 확대되면서 농업에 있어서 이들 여성의 역할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고, 이러한 여성농업인의 수요에 맞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간 여성농업인의 실태에 대한 조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으며, 각각의 연구목적에 맞춰 나름대로 기여한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특정 지역 또는 대상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만큼, 다양한 여성농업인의 모습을 하나의 그림으로 담아내지 못하였다. 연구내용에 있어서도 여성농업인의 대부분이 협업종사자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파악해내기가 까다로운 주제들, 예컨대 영농생산의 기여도, 농가자산중 여성소유 비중 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드물었

다. 이에 본연구는 체계적이며 신뢰할 만한 방법으로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정책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향후 관련정책을 입안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려는데 주목적이 있다.

□ 조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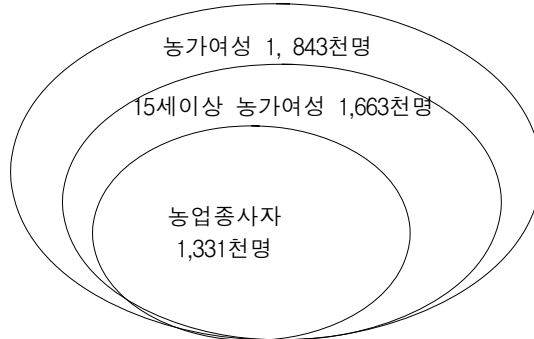
전국의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먼저 표본조사구를 지역과 영농형태별로 계통 추출하고, 선정된 표본조사구내에서 표본농가는 조사구내 농가들의 영농형태에 대한 분포를 고려하여 비례확률로 추출한다. 조사방법은 면접원의 직접방문에 의한 1:1 개별면접(face-to face personal interview) 방식이며, 조사는 2003.8.13~9.1까지 20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2. 주요 결과

□ 여성농업인력의 규모

15세 이상의 농가 여성인구 중에서 농업참여자 비율이 2002년 현재 80.0%로(통계청, 「2002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동일연도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48.8%(통계청, 「2002년 경제활동인구연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농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은 월등히 높은 편이다.⁶⁾ 또한 농업종사자 중 여성 인구 비중은 50.7%로 여성이 우리나라 영농인력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2년 여성농업인의 규모는 133만명이다.

6) 「농업기본통계조사」에서 '농업인'은 지난 1년간 농업활동 종사자이고,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경제활동인구'는 지난 1주일간 1시간 이상의 유급일 종사자이므로 두 개념간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농가여성의 높은 취업종사율은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유의미하게 높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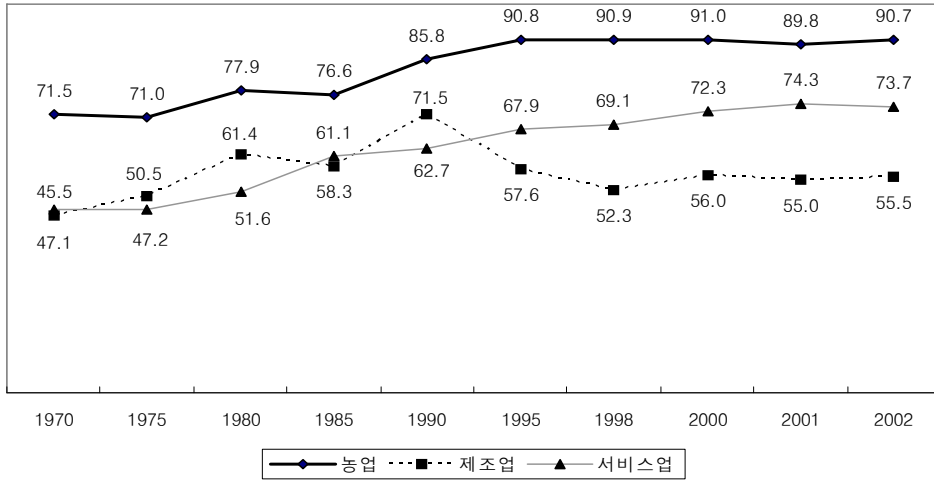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002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

<그림 VI-1> 여성농가인구와 농업종사자(2002년)

이러한 추이는 <그림 VI-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 30년간 강화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즉 제조업에 종사하는 남성대비 여성의 비율이 1990년 이래 급격히 감소하여 2002년에 55% 수준이 되는데 반해, 서비스업과 농림업에서는 남성취업자 대비 여성취업자의 비율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낸다. 특히 농림업의 경우 1970년에는 남성취업자 100명당 여성취업자수는 71.5명이었으나 2002년에는 90.7명으로 거의 동수에 진입하고 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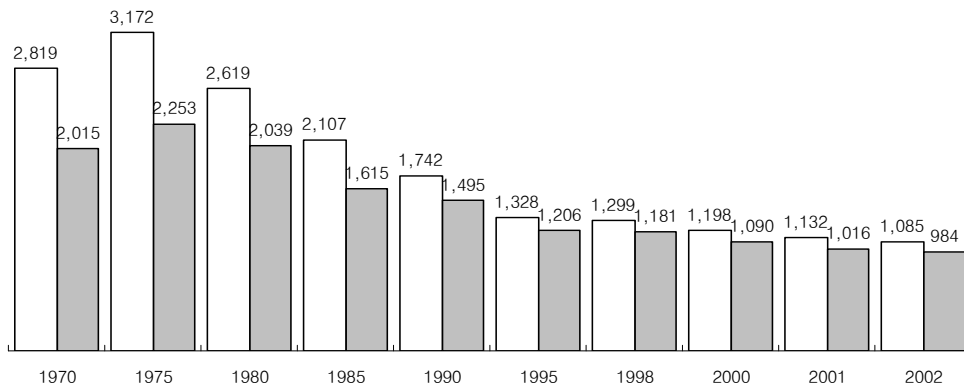
농림업 취업자의 절대수치는 <그림 VI-3>과 같이 남녀 모두 1975년 이래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남성취업자의 감소가 더 급격하게 나타난다. 이 현상을 놓고 여성의 이농현상이 완만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 농촌의 일손이 부족해지고, 영농형태가 변화함에 따라 그동안 비경제활동상태에 머물던 농가여성들이 농업에 진입하여 離農으로 발생한 빈자리를 메꾼 결과로 보는 것이 옳다.

7) 이것은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다. 「2002년 농업기본통계조사결과」에서는 여성농업인 비중이 50.7%로서 남성대비 여성의 비율이 100을 넘기 때문이다. 이는 전술한 바와 같이 두 조사에서의 취업자 정의가 다른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그림 VI-2> 산업별 남성취업자 대비 여성취업자 비율의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연도.

<그림 VI-3> 성별 농업취업자 수의 추이

□ 여성의 연령, 학력수준과 영농형태

여성농업인의 평균연령은 58.2세이고 초등학교 졸업의 저학력자이며 유배우자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연령층에 관계없이 조사대상 농가 중 논벼농가의 비중이 절반을 차지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현 농촌상황에서 젊은 층인 40대까지의

여성농업인들에서 채소, 화훼, 특작, 축산등을 주 영농형태로 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학력에 따른 주영농형태는 연령별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여성농업인의 학력이 중졸이상인 농가일수록 채소, 화훼, 특작의 비중이 높았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젊고 고학력층 농업인은 논벼, 전작과 같은 전통작목에서 벗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여성농업인과 경영주

여성농업인중 겸업종사자는 전체 여성농업인중 8.7%에 그치며, 이들의 겸업일 유형은 생산직 근로와 자영업이 많았다. 농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총괄하는 경영주가 남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8.4%로 가장 높았으며, 본인을 경영주로 여성 농업인은 27.7%로 나타났다. 나머지 3.9%는 아들, 시부모가 경영주라고 응답하였다. 본인을 경영주로 응답한 421명 여성농업인은 대체로 고연령이며 무배우자로서 이들 여성의 70%가 60세 이상이며, 61%가 무배우자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가는 남성경영주에 의해 대표되고, 여성이 경영주인 농가는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농가이다.

□ 영농규모 및 여성농업인의 농지 소유상태

농사규모를 살펴보면, 현재 경작지의 평균규모가 논 3,053평, 밭 1,229평, 과수원 2,125평, 하우스 1,684평으로 나타났다. 논, 밭, 과수원의 경우 경작지 면적이 소유지 면적보다 크다. 이러한 현상은 논에서 가장 두드러지는데, 논 소유지의 평균이 2,334평으로 약 700평 이상을 추가적으로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영농의 대규모화 추이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성농업인은 경영주 아니면 협업배우자의 지위를 갖고 농업에 종사한다. 따라서 이들이 생산자본의 소유자라는 지위에서는 어떤 모습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 결과는 농지의 일부라도 여성농업인 명의로 된 농가는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즉 논, 밭, 과수원을 소유한 농가중 여성농업인 소유의 농지가 있는 비율이 각각 19.3%, 16.4%, 12.7%이다. 그런데 이들 농가의 상당수가 소유농지 전체를 여성명의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여성독거노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들의 소유한 면적은 절대규모에서는 영세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여성농업인은 대다수가(80% 이상) 전혀 농지를 소유하지 않는다. 가구가 소유한 전체 농지를 자신의 명의로 하고 있는 여성이 약 10% 정도가 되고, 나머지 10% 미만은 일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여 농지중 여성이 소유한 농지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논, 밭, 과수원별로 각각 14.5%, 15.1%, 11.2%이다.

□ 여성농업인의 예금액

농가의 총 예금액 평균은 43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여성농업인 본인 예금액은 150만원으로 나타났다. 예금액이 '없다'라고 한 응답자가 51.7%로 과반수가 넘었으며 그 중 본인 예금액이 '없다'고 한 여성 농업인은 71.9%로 매우 높았다.

예금액이 있다고 응답한 654 가구의 예금액중 여성명의로의 예금액 비중은 평균 39.2%이다. 여성예금액 비중의 분포를 보면 여성명의로의 예금이 없는 가구가 40.4%이다. 나머지 가구들의 여성예금 비중은 다양하게 분포하는데 80% 이상인 가구가 30.5%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이 특이할 만하다. 이것은 대부분 여성 독거노인가구를 반영한 것이 아닌가 추정된다. 실제로 여성농업인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본인의 예금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여성독거가구에서 본인의 예금비중은 97.3%이어서 비독거가구의 여성예금액 비중인 20-30% 수준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여성농업인이 겸업종사자일 경우 본인의 예금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배우자와 같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여성은 대체로 협업 배우자의 형태로 결합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본인 명의로의 현금소득을 갖기 어려울 것이다. 반면 비농업부문에의 취업은 여성의 현금소득에 대한 접근을 높인다.

□ 농업종사경력

여성농업인은 평균 24.40세에 농업을 시작해 현재까지 33.8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농업에 종사해온 베테랑들이다. 연령대별로는 70세 이상의 여성농업인은 24.86세에 시작해 48.14년동안 농업을 하고 있으며 60대는 24.24세에서부터 현재

까지 40.58년동안 농업에 종사해왔다. 그리고 50대는 23.78세에 시작해 현재까지 30.99년 동안, 40대의 여성농업인은 25.16세에 시작해 20.00년 동안 농업을 하고 있다. 39세 이하층에서는 25.02세에 시작해 현재까지 9.35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고연령층에 비해 다소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 향후 농업계획

향후 농업규모에 대해서는 현행을 유지하겠다는 여성농업인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축소하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비해,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여성농업인은 소수에 불과했는데, 저연령층에서 확대하겠다는 의견이 비교적 많았다. 농업분야별로는 일반밭작물과 논벼, 노지채소 등의 전통적인 영농형태에 대해서는 확대계획보다 축소계획이 많아 여성농업인이 이 분야의 전망을 어둡게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축산과 시설채소, 화훼, 특용작물 등에 대해서는 축소계획보다 확대계획이 많아 전통적인 작물에 비해 그 전망을 비교적 밝게 보고 있다.

농산물 가공과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 농촌관광 등의 관련분야에 대해서는 농업생산분야 보다 진출할 의사가 높았으며, 특히 30-40대의 여성농업인 가운데에서 진출의사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

□ 농업노동 기여도

여성농업인 가운데 약 75%가 농업노동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면서 핵심적인 농업노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농업노동 기여도는 연령층에 따라 특정한 유형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 20대 중반에 농업을 시작한 이후 30대까지는 비교적 제한된 수준에서 농업노동에 기여하다가 40대 들어 농업노동 기여도가 현저히 증가해 전체 농업노동의 절반 정도를 담당하게 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러한 특징은 50대까지 계속된다. 60대들어, 특히 70세 이후에는 단독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전적으로 농사를 담당하고 가구 내에 다른 농업종사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농업노동 참여정도를 줄여 나가는 경향이 현저하다.

농업생산분야별로는 논농사일은 남편이 주로 하는데 비해, 밭농사는 여성농업

인이 주로 담당하는 식으로 전통적인 논/밭=남/여의 영역구분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시설채소나 화훼, 과수원, 축산 등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을 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 노동시간

농번기에 여성농업인은 하루 평균 9시간 32분의 농업노동을 하며 평균 2시간 38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고 있으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친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2시간 10분에 달했다. 이에 비해, 농한기에는 많은 여성농업인이 농업노동을 하지 않는다. 농업노동을 하는 경우에도 평균 농업노동시간은 3시간 13분으로 농번기에 비해 1/3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비해, 가사노동시간은 3시간 20분으로 농번기에 비해 42분 정도 늘어나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치면 하루 평균 6시간 33분 정도의 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번기와 농한기의 구분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 평균 농업노동시간이 8시간 25분, 가사노동시간은 2시간 59분이었으며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합친 시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24분이었다. 연령대별로는 농업노동시간은 40대와 50대가 가장 긴데 비해, 가사노동시간은 39세 이하의 저연령층에서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기혼취업여성의 경우, 하루 평균 6시간 2분을 취업노동에, 3시간 21분을 가사노동에 투입하여 총 노동시간이 9시간 23분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은 농한기를 제외하고는 하루 2시간 이상, 길게는 3시간 30분 정도 긴 수준이다. 특히 전체 기혼취업여성과 비교해 여성농업인들은 취업노동시간은 현저히 긴 반면, 가사노동시간은 짧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에 더해 농외노동까지 하는 겸업자와 농업노동과 가사노동을 하는 전업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을 비교해보면, 겸업자의 경우 농업노동시간은 현저히 적지만, 농외노동시간이 기간에 따라 적게는 하루 평균 6시간 22분에서 길게는 7시간 12분에 이르며, 따라서 전체노동시간은 농업전업 여성농업인에 비해 훨씬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농외취업은 여성농업인의 노동시간을 증가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겸업취업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흔히 장시간의 농업노동에 따른 육체적 부담이 여성들로 하여금 이농을 원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본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 생각과는 반대로 농촌에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이주를 희망하는 여성들 보다 오랜 시간 동안 농업노동을 하고 있으며, 총노동시간 대비 농업노동시간의 비율에 있어서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이 총노동시간중 보다 많은 시간을 농업노동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에서 장시간의 농업노동 자체가 여성들로 하여금 이농 의사를 갖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농업경영 의사결정 참여도

품사기나 작물 결정, 농사일정 결정 등 농업경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의사결정에는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참여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작목반이나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조직 관련 의사결정, 영농자금 조달이나 농지의 판매·구매, 임대차 등의 주요 생산수단과 관련된 의사결정에서는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39세 미만 여성들의 의사결정 참여도가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이 40대, 50대, 60대 순이었고 70세 이상의 고령층이 농업관련 의사결정 참여도가 가장 높았다.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참여도는 가구구조에 따라 편차가 커 단독가구주 여성농업인을 제외한 여성농업인의 의사결정 참여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그리고 농업노동 기여도, 농업노동시간 등과도 긍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농업노동에 적극적일수록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컴퓨터 이용 현황 및 활용 욕구

농업분야에서 새로운 정보와 기술이 중요해지고 각종 농업정보가 발달하고 있지만, 여성농업인 가운데에는 3.0%만이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어 농업정보 활용능력이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90% 가량은 컴퓨터이용 기술을 결여하고 있으며, 6.8%는 컴퓨터는 사용할 줄 알지만, 농업과 관

련해 이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이상의 여성농업인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향이 뚜렷했으며, 40대의 경우에는 컴퓨터 보급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으나, 여성농업인 자신은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컴퓨터를 사용할 줄 아는 여성은 39세 이하의 연령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컴퓨터를 농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경향은 제한되어 있다.

컴퓨터 이용과 농업정보 이용에 관한 교육 경험에 따라 컴퓨터 이용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면 교육을 받았던 여성농업인의 컴퓨터 이용률이 높기는 하지만,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여성들은 교육에도 불구하고 아예 사용할 줄 모르거나 사용하더라도 농업과 관련해서 사용하지 않는 실정으로 기존의 컴퓨터 이용 및 농업정보 이용에 관한 교육 기회가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교육을 받아도 실제 생활에서의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농업과 관련해 컴퓨터를 사용하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21.3%가 사용하고 싶다고 하였으며 78.7%는 사용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컴퓨터 활용의 사는 비교적 저연령층, 고졸이상의 여성농업인에게서 두드러지게 높았다.

□ 여성농업인 인식

농업인으로서 자신이 전문적인 여성농업인인지 아니면 집안농사를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인지에 대해, 46.7%가 전문적인 여성농업인이라고 응답했으며 53.2%는 집안농사를 돕는 보조적인 농업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농사일이 직업인지 아니면 가사의 연장인지에 대해서 78.2%가 '직업'이라고 응답해 대부분의 여성농업인이 농업을 직업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21.7%는 '직업이라기 보다는 가사의 연장(집안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연령별, 학력별로는 39세미만의 저연령층, 고졸 이상의 비교적 고학력 여성농업인들이 자신을 전문 여성농업인이라기 보다는 집안 농사를 돕는 보조적 농업인으로 보고 농업을 가사의 연장으로 보는 소극적인 태도가 현저해 40대 이상의 여성농업인, 비교적 학력이 낮은 여성농업인과 대조를 이루었다.

여성농업인의 성역할의식과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을 살펴보면,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은 비교적 높은 데 비해, 일반적인 성역할의식은 비교적 낮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여성과 비교해서도 성역할 분리에 관한 고정관념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층별로는 39세 이하의 연령층의 경우 성역할의식은 비교적 높은 데 비해,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을 그리 높지 않은 특징이 있었다. 이에 비해, 40대 여성농업인들은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은 비교적 높지만, 성역할 관념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의 연령층은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과 성역할관념 모두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학력자들의 의식수준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자나 고졸 이상의 학력자보다 높아 학력이 높을수록 의식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났다.

□ 건강복지

여성농업인 가운데 절반 정도는 지난 2년간 종합검진이나 암검진을 받은 경험이 없다. 연령층별로는 종합검진의 경우 비교적 저연령층의 여성농업인이 검진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암검진은 7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검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평균 산후조리기간은 9.05일이며, 연령이 낮을수록 조리기간이 길어지는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유배우 여성의 산후조리기간이 1.4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 보호노동 및 보육

여성농업인 5명 중 1명꼴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노인, 장애인, 만 6세미만의 아동과 같은 요보호 가구원이 있다.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48.9%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전체 여성의 보육시설 활용도(39.2%)보다는 높지만 전체 여성취업자(56.4%)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여성농업인들은 농촌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저렴한 비용을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가까운 거리, 교육 내용, 편리한 시간대 등이 중요한 것으로 응답했다.

□ 연금가입

국민연금이든 개인연금이든 연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가구원 중 누군가가 가입한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여성농업인의 연금가입율은 63.8%로 나타났으며, 36.3%는 어떠한 연금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특히, 70세 이상층, 무배우자의 가입율이 현저히 낮았다.

그리고 가입한 경우 대부분은 남편 명의로 가입했으며, 자신 명의의 연금에 가입한 여성농업인은 국민연금의 경우 11.2%, 개인연금 7.3%였다.

□ 문화복지

여성농업인의 문화행사 참석률은 16.0%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과 여성(각각 54.8%)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공공 문화시설 이용률 역시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공공 도서관의 이용률이 현저히 낮았다. 연령층별로는 저연령층에서 참석률이 비교적 높고 고연령층의 참석률은 매우 낮았다.

□ 조직활동

여성농업인의 67.5%는 농업인 조직과 여성농업인 관련 조직 가운데 어느 하나에도 가입하지 않았으며, 32.5%는 하나 이상의 조직에 가입해있으며 이들 가입자는 1인당 평균 2.69개의 조직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별로는 농협 또는 축협의 가입률이 25.7%로 가장 높았으며 그 외의 조직 가입률은 10%를 넘지 않았다. 그리고, 농협 또는 축협의 경우에도 가입자 대부분이 이름만 올려 놓았으며 적극 활동하는 경우는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연령대별로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40대의 가입률이 가장 높았다. 반면, 대부분의 조직에서 고연령층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았다. 특이한 것은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고연령층보다 39세 이하 연령층의 가입률이 현저히 낮아 저연령층 여성농업인이 농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조직 참가에

매우 소극적이라는 점이었다.

□ 향후 농촌거주의향과 떠나고 싶은 이유

앞으로도 계속 농촌지역에서 살겠다고 응답한 여성 농업인이 89.7%이다. 향후 농촌거주 의향은 고연령층, 저학력일수록 높다. 우리나라 농업·농촌대책은 어떻게 하면 중장년층과 고학력층의 離農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와 직결된다고 하겠다.

농촌을 떠나고 싶다고 응답한 여성 농업인(N=157) 중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농사일이 힘들어서’(36.3%), ‘소득이 낮아서’(26.8%),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19.7%)의 순으로 나타났다.

농촌을 떠나고 싶은 이유는 연령과 가구형태에 따라 극명하게 달라진다. 40세 미만층의 경우 ‘아이들 교육문제’를 이유로 드는 비율이 월등히 높지만 40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낮거나’ ‘농사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옮겨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는 젊은 층에서 높고, 생활환경에 대한 불만은 40대 이상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 여성농업인의 교육현황과 교육수요

여성 농업인들이 지난 3년간 받은 바 있는 교육훈련경험을 살펴본 결과, ‘작물 재배 및 축산등 농업생산기술’을 받는 경험이 있는 여성이 10.1%를 넘을 뿐 그 밖의 교육수혜율은 10% 미만이다. 상대적으로 수혜율이 높은 교육은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10.1%), ‘취미/여가/교양’(6.9%), ‘농촌생활개선’(6.3%)인 반면, ‘부기/회계와 재무관리’(0.7%), ‘농업경영설계 및 진단’(1.2%), ‘농기계 운전, 시설자동화설비 운전기술’(2.2%),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기술’(2.6%)에 참여한 비율은 매우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교육받기를 희망하는 분야로는 ‘취미/여가/교양’(27.5%), ‘부업/자격증 취득’(18.1%), ‘컴퓨터 이용 농업정보 활용’(17.7%) 등이 응답되었다.

여성농업인의 교육수혜와 희망 실태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두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다. 하나는 교육 경험율에 비해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모든 교육과목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다른 하나는 농업생산기술과

관련한 교육보다 취미, 부업, 컴퓨터 교육 등에 대한 교육수요가 높다는 것이다. 농업생산기술에서는 '작물재배 및 축산등 기술'과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기술'에 대한 수요가 10%전후로 그나마 높은 편이라 하겠다.

연령이 젊을수록, 그리고 고학력층일수록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높아진다. 특히 컴퓨터교육과 부업교육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농기계 및 설비운전 교육, 농업생산기술교육, 농산물 유통가공판매기술교육, 여성농업인 지도자 교육, 농촌환경개선교육 등에서 40대 층의 참가율이 가장 높아, 여성농업인 교육의 주 대상층이 40대 층임을 알 수 있다.

교육수요 역시 여성농업인의 연령과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여성이 전체의 50%를 넘지만, 연령이 낮을수록 이 현상은 반전된다. 예컨대 40세 미만 여성중에는 교육을 희망하는 여성과 희망하지 않는 여성의 비율이 75:25이다. 40세 층 여성의 수요도 이와 거의 유사하다.

이들 30~40대 여성농업인이 가장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교육은 '취미, 여가, 교양', '부업·자격증 취득' 및 '컴퓨터 이용 및 농업정보 활용'으로서 교육희망자 비율이 각각 50%에 육박한다. 한편 특히 30대 이하의 연령층 여성농업인들의 경우 '농기계·설비 운전', '작물재배 등 생산기술', '농산물 가공·유통·판매기술', '회계 및 재무관리 교육'을 희망하는 비율이 10-20% 수준이고 다른 연령계층에서의 비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향후 이들 교육의 주 대상층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평소의 교육참석 빈도

평소에 교육에 '거의 참석하지 않는'(81.6%) 여성 농업인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에 1-2번 참석하는 여성농업인이 10.5%이고 1년에 3-4번 참가하는 여성은 4.8%에 그친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 여성이 관련교육의 주요 참가자임을 알 수 있다. 1년에 1-2번 내지 3-4번 참가한다는 여성의 비율이 33%를 넘는다. 다음으로 30대 이하 여성으로 이 비율이 24.5%이고, 50대 여성에서는 18.9%로 나타난다. 학력별로 분석하면 중졸이상 여성농업인의 교육참가가 상대적으로 활발한데, 특히

중졸 여성농업인이 좀 더 활발한 편이다.

여성농업인의 교육참가 빈도를 결정짓는 데에는 영농형태도 한몫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축산농가의 여성농업인들은 1년에 1-2번 참가하는 비율이 25.5%, 1년에 3-4번 참가하는 비율이 15.7%으로 어떤 영농형태보다도 교육참가가 활발하다. 그 다음으로는 과수, 화훼, 특작, 채소농가가 활발한 편이다. 반면 논벼 및 일반 밭작물일 경우 교육참가가 매우 저조한데, 이것은 이 작목에 종사하는 농가가 대체로 고령, 저학력층인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 교육 참석시 불편사항

평소 교육에 참여하는데 어려운 이유로는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60.5%),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이 있는지 잘 모른다’(41.6%),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29.1%) 등을 언급하였다. (중복응답 기준) ‘교육장소가 멀다’ 그리고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없다’ 및 ‘집을 비우기 어렵다’를 지적한 여성농업인의 비율도 10% 이상으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결과라 하겠다.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농사일이 바쁘고’ ‘정보를 모른다’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높지만, 각각의 정도는 연령별로 구별된다. 예컨대 30대 이하 연령층은 ‘교육장소가 멀고’ ‘집 비우기 어렵다’를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40대층은 ‘집 비우기 어렵다’와 ‘필요한 교육이 없다’는 비율이 높다. 반면 6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교육을 받고 싶지 않다는 응답이 40%를 넘는다.

학력별로는 중졸 여성농업인은 농사일이 바쁘다는 언급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고졸 여성농업인에서는 교육장소가 멀고, 받고 싶은 교육이 없다는 비율이 높았다. 여기서도 영농형태는 유의한 변수로 작용한다. 축산농가의 여성농업인은 받고싶지 않다는 비율은 6.1%에 그치고, 농사일 바쁘고 정보를 몰라서, 그리고 교육장소가 멀거나 집비우기가 힘들어 교육에 참가하기 어렵다고 토로한다. 특작농가의 경우 필요한 교육이 없다고 지적한 여성농업인이 31.5%로서 보다 관련교육이 특화되고 수요자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 여성농업인 관련제도에 대한 인지와 이용현황

여성농업인 제도 중 인지도부는 ‘영농후계자 여성우대제도’(20.7%), ‘여성농업

인대회'(20.3%) 순으로, 실제 이용여부는 '여성농업인대회'(4.8%), '여성농업인센터'(2.6%) 순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여성농업인 제도 인지율에 비해 실제 이용현황은 다소 낮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제도 인지율은 20% 미만이고, 제도를 이용한 비율은 5% 미만으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연령과 제도인지율은 정확하게 반비례하여 젊은 층일수록 관련 제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 40대 연령층 이하의 젊은 여성농업인은 각종 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20%를 넘지만 유독 농협 복수조합원 제도와 농업관련위원회에 대해서는 인지율이 15%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학력별로는 중졸 여성농업인의 인지도가 가장 높았고, 축산농가와 겸업농가의 제도 인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 이용률이 농가도우미제도와 농업관련위원회에서 1% 대인 것은 대체로 동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별다르게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여성농업인대회, 여성농업인센터의 이용률도 5% 미만인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젊고 고학력층일수록 제도에 대한 이용률이 높다. 또한 주영농형태별로 보면 축산농가의 이용률이 높았다.

□ 여성농업인을 위한 필요 사업

여성농업인들은 특히 '여성의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사업을 확대하는 것'(99.1%), '농촌여성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96.6%),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농촌을 만드는 것'(96.3%) 등의 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여기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은 '여성영농법인, 작목반 등의 조직', '부부 공동 영농후계자 제도', '여성의 농협이사, 대의원 진출 지원' 보다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농촌을 만드는 것', '폭력 등 가정문제 상담',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농촌여성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자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 여성집단이 제한될 수밖에 없어 지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남녀가 평등하고 서로 존중하는 농촌을 만드는 것', '폭력 등 가정문제 상담', '건강관리 및 무료검진', '농촌여성이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등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확인한 것은 의미있다. 특히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매우 필요하다고 강력한 지지의사를 표시하는 비율이 높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각 문항에서 '매우 필요하다'에 4점, '필요하다'에 3점, '필요없다'에 2점, '전혀 필요없다'에 1점을 부여했을 때, 8개 문항 모두 2.5 이상으로 여성농업인들은 각 문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느낀다. 특히 여성건강관리 및 무료검진사업에 대한 요구가 3.7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게 하기에 3.50, 남녀가 평등하고 존중하는 농촌만들기에 3.36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들 사업은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농정부서에서 상대적으로 등한히 취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의 문화 및 복지요구와 밀접히 관련되는 이들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사업화가 필요할 것이다.

3. 정책시사점

가. 여성농업인력 개발정책의 방향

□ 대상 집단의 특화

농업노동력 가운데 여성농업인의 비중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여성농업인은 기술력과 인적자본 수준이 떨어지는 단순인력으로 취급되어 왔으며 이러한 집단을 전문농업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가정되어 왔다.

그러나 본 조사 결과, 여성농업인 대부분이 고연령층의 저학력자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저연령층이면서 고졸 이상의 비교적 높은 학력을 지닌 여성농업인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여성농업인 전체를 일반화시켜 질적으로 낮은 인력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핵심 농업인력으로서의 인적 자원을 갖춘 집단을 선별하여 이들을 핵심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VI-1> 여성농업인의 연령집단별 특성

		저연령층(-39)	중년층(40대-50대)	고령층(60세이상)
향후 계획		적극적	보통	매우 소극적
농업노동	시간	짧음. 가사노동비중높음	김 농업노동 중심	김
	기여도	낮음	높음	높음(단독가구)/ 낮음(동거가구)
의사결정참여		낮음	보통	높음

문제는 비교적 젊은 층의 고학력 여성들이 농업에 가치를 부여하고 농업인으로서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데 있다.

여기에는 우리 농업 전반이 직면해있는 한계와 함께 이들의 인적 자본 수준과 요구에 적합한 여성농업인 모델이 없었던 것도 하나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의 요구에 맞는 여성농업인의 전문 분야를 개발하고 체계적인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책이 요구된다.

□ ‘10만’ 여성 전문농업인의 역량 강화

<그림 VI-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2년 현재 여성농업종사자는 약 133만명에 이른다. 본 조사에서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부기/회계와 재무관리’, ‘농업경영설계 및 진단’, ‘농기계·시설자동화설비 운전기술’, ‘농산물 유통·가공·판매기술’ 등 복합산업으로서 농업관련 기술교육에 대해 수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여성농업인은 30~40대 연령층이었고 그 수요도는 10~20% 정도였다. 이 수치를 여성농업인 수에 대입하면, 전문여성농업인으로 개발될 수 여성농업인수는 대략 1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이 향후 고부가가치 농업·농촌발전의 주역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향후 전업농가는 약 10만호가 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가족경영체일 것이므로 여성농업인은 협업배우자 또는 공동경영주로서 농업생산, 농산물 가공·유통 등 각 부문, 각 단계에서 역량발휘가 기대된다.

그 동안 농업기반 투자가 쌀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시설원예(과수·채소·화

훼)와 양돈·양계 등 기타 작물의 경쟁력 향상 지원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본다.⁸⁾ 실제로 동일한 영농규모를 가지고도 경영체의 기술·경영능력(품질향상, 단수증대, 판로개선 등)에 따라 2.6배의 소득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상위10% 농가소득(1,006천원)은 평균 농가소득(738천원)의 1.4배이고, 하위10% 농가소득(380천원)의 2.6배이다.⁹⁾

이처럼 농업생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해 여성생산자의 역량 강화는 필수요건이 된다. EU의 여성농업인 정책도 이제 농가가구원의 일원으로 대우하는 차원에서 여성농업인 개개인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농업인에 대한 정책이 가족농내 가구원으로 보기 보다는 개별 농업인으로 대접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하여, 여성개인의 생산자 역량을 강화할 프로그램을 가동시켜야 할 것이다.

□ 창업 및 경영자금의 지원

본조사에서 젊고 고학력인 여성농업인들은 논벼, 전작과 같은 전통적인 작목에서 벗어나 소득탄성치가 높은 현금작물(Cash Crops)과 상업성이 높은 작물로 이동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농가경영주의 연령과 학력을 농가경영주의 인적자본을 측정하는 한 수단이라고 가정하면 고소득을 향유할 수 있는 현금작물과 자본집약적 영농형태로 유능한 젊은 인적 자본이 유입되고 있는 것이다.

화훼, 축산, 시설채소 등 자본집약적인 영농으로 젊고 고학력인 여성농업인들이 추가적 어려움이 없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경영마인드 및 경영전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또 초기자본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금지원정책 등이 필요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의 농업자금에 대한 접근을 높이려 최초로 고안된 정책은 여성농업인후계자 우대제도라고 할 수 있다. 농림부는 1994년부터 농업인 후계자 선정

8) '99~'01년 간의 품목별 투융자 실적을 보면, 쌀이 34.7%, 축산 9.5%, 임업 5.4%, 수산업 5.2%, 시설원에 3.6%, 공통 13.6%, 기타 28.0%이다. 농림부 자료

9) '02년 「쌀전업농 경영실태조사」, 단위: 소득/10a.

시 여성에게 총 700점 중 5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30세 미만의 미혼여성은 예비후계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농업고등학교나 농과대를 졸업한 여성을 우선 선정하도록 하는 조치를 도입했다. 이어 1997년에는 여성신청자의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농업인후계자 여성우대제도의 도입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발된 여성농업인후계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전체 후계자 중 여성의 비율은 1995년 5.6%에서 1998년에는 17.6%, 1999년에는 20.3%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별로 편차가 적지 않고 여전히 여성농업인들의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교육점수나 학력, 토지소유권 등의 후계자 자격조건을 갖추기 어려울 뿐 아니라,¹⁰⁾ 여성농업인들로서는 경영계획서 작성도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경영분담과 중복 지원 등에 대한 판정기준이 모호하고 신청한 후에도 선정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어 후계자 지정에서 여성들이 오히려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창업 및 경영자금을 도입할 때에는 여성농업인의 현황과 요구에 눈높이를 맞춘 성인지적(gender-sensitive) 접근이 요구된다. 예컨대 여성가산점제를 도입할 때에는 여성교육에 배당되는 점수의 상향조정, 경영계획서 작성 지원, 심사과정의 공개 등 지원 및 심사과정을 개선한다. 또한 자금지원 위주에서 경영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의 지원내용을 보강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가산점제보다는 할당제로 전환하여 여성농업인의 자금접근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

□ 다양한 교육훈련의 전문화

본 실태조사에서 30-40대의 젊고 상대적으로 고학력인 여성농업인들의 교육 수요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가족관계, 자녀지도 등 교양교육 분야와 정보교육에 대한 요구가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한 것은 중요한 연구성과라 보여진다. 여성농업인들의 교육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은 것을 고려하여 교양교육에서도 단편적 취미교육보다는 꼭 필요하며 수준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야

10) 여자들이 받는 교육은 당일교육이 대부분이고, 수료증 주는 교육은 거의 못받다고 한다. 그리고 토지소유면적 등 자격조건에 맞는 여자가 거의 없다(김영옥·김이선, 1999).

할 것이다.

교양교육이나 정보교육에 대한 요구보다는 그 정도가 약하지만 특히 젊고 고학력 여성농업인들은 신기술 등 전문적인 영농교육에 대한 요구를 현시하고 있다. 따라서 농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생산관련 기술, 농산물 수확후 관리·가공·유통관련 기술, 화훼와 축산 등 관련설비 운전조작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고, 공동경영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한 경영교육도 요구된다. 예컨대 농업일지와 회계의 관리, 생산자 홈페이지 관리, 시장정보·금융정보·기술정보 등 각종 정보습득 등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맞춰 여성농업인을 위한 경영기술과 경영마인드를 훈련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개설 못지않게 교육방법도 중요하다. 교육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이론보다는 실습 및 현장노하우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개편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교관의 양성, (이동)훈련장소와 교육시간대의 접근가능성 제고, 탁아시설 등 부대시설 등을 마련하여 교육과정에 대한 여성접근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 여성농업인 생산성 향상 전략의 수립

지금까지 여성농업인들은 농업부문에서 필수적인 노동력이지만, 그 기여도는 과소평가되어 왔으며 농업생산성도 낮은 것으로 여겨져 왔다. 여성을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의 생산성과 공헌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 남녀간 생산성과 여성농업인의 인적자본수준의 분석, 장애요인의 규명 결과에 기초하여 ‘여성농업인 생산성 향상 전략’을 수립하도록 한다.

□ 여성농업인의 IT능력 제고를 통한 생산성 향상

ILO는 정보접근 제고가 농업·농촌문제와 같이 대안이 많지 않은 곳에서 최고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Hafkin, N. & N. Taggart, 2001).

여성농업인은 중요인력임에도 자신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기여를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정보에의 접근은 가장 부족한 집단이다. 농촌여성에게 가용

한 정보자원이 부족함을 감안하면, 정보교환의 가장 빠르고 또 저렴한 수단인 IT는 여성농업인의 요구를 맞추고 또 농촌사회에 도움을 줄 잠재력이 크다.

특히, 저연령층 여성농업인들은 컴퓨터 활용능력을 어느정도 갖추고 있으며 농업관련 정보에 접근하여 이를 실제로 활용하려는 욕구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신작물 재배기술, 판매, 시장개척, 친환경 재배 기법, 식품저장 및 보관, 상거래법 등에 대해 정보와 지침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농업인 정보화 교육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된다.

<표 VI-2> 여성농업인의 정보화능력 현황 및 개발가능성

		저연령층	중년층	고연령층
컴퓨터 및 농업정보 활용	활용능력	높음	보통	낮음
	활용의사	높음	보통	낮음
	능력개발가능성	높음	보통	낮음

또한 정보화 추이 속에서 농산물 전자상거래는 전체 인터넷거래의 6%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급속도로 증가할 전망이다.¹¹⁾ 여성농업인도 이런 추세에 편승할 수 있도록 개별 홈페이지를 개발·구축하여 농산물 사이버마켓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홈페이지 구축 농가간의 지역별, 품목별 공동체 형성을 유도하고 농업인 사이버동호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한다.

나. 여성농업인 의식증진의 방향

여성농업인의 의식수준을 전반적으로 평가해보면,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은 높지만, 성역할의식은 낮은 특징이 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향후 여성농업인 의식개발의 주요 목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 집단별로도 이러한 불균형이 나타나는데, 중년층과 고연령층의 경우 여성농업인으로서 자신을 전문농업인으로 평가하고 농업을 직업으로 보며

11) 농산물 전자상거래 규모는 '99) 250 → (2000) 500 → (2001)1,000 → (2002) 2,1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도 높는데 비해, 일반적인 성역할의식에서는 고정된 역할관념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저연령층의 여성농업인들은 성역할의식은 비교적 높지만, 농업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며 여성농업인으로서의 진취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농업인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집단의 특수성에 맞는 의식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표 VI-3> 여성농업인의 의식 수준

	저연령층	중년층	고령층
농업인정체성	보조농업인	전문농업인	전문농업인
농업관	가사의 연장	직업	직업
여성농업인 진취성	낮음	높음	높음
성역할의식	높음	낮음	낮음

다. 여성의 농외소득 제고

□ 다양한 농외소득원의 개발

농산물가격의 상대적 하락으로 농업소득의 신장이 매우 불투명하고¹²⁾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로 농공단지과 같은 피고용 취업형 농외소득 증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농촌지역의 고유한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농외소득원의 개발이 필요하다. 농공단지를 비롯한 농외소득 사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활용도와 소득 기여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생활 일정과 부합한 일감맞기 사업을 제공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도의 정착, 교통수단의 발달 등으로 새로운 농외소득개발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 및 녹색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자연경관과 전통, 향토문화에 대해 늘어나는 관심을 충족시켜 이를 상품화하고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녹색관광은 고령자와 여

12) '02년 농가소득은 농업소득 46%, 농외소득 33%, 이전소득 21%로 구성된다.

성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농촌인력이 농업경영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농촌과 도시의 물리적 접근추이와 농촌지역에 복지·휴양시설 및 편익시설의 건립 증가에 따라 다양한 고용기회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지역특화발전 등을 통해 농외소득원을 확충하게 되면 자기선택에 따른 탈농 또한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 수공업 창업기회의 활성화

독일의 경우 여성자영자의 상당수가 수공업 창업자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농촌이 보유하고 있는 의식주와 관련된 전통문화는 여성을 통해 전수되고 있다. 장류등 식품가공, 염료 등 전통적으로 전수된 농촌여성의 암묵적 지식(tacit knowledge)은 체계적으로 수집되어야 하기도 하지만, 산업자원화 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하다.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된다면 농촌여성은 전통지식의 상품화라는 창업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정부는 농촌의 전통문화 및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하고, 개발된 상품의 포장, 디자인 등의 인프라를 지원하는데 자원을 배치할 필요가 있다. 지방정부는 생산·가공품의 홍보 및 판로 개척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 (가칭) 농촌여성취업센터의 설치

전술한 바와 같이 농촌과 도시가 가까워지고 농촌지역에 다양한 복지시설, 휴양시설등이 들어섬에 따라 파생되는 취업기회에 대한 지역여성의 접근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설치되는 고속도로 휴게소는 적지않은 고용기회를 인근 지역주민에게 창출하고 있다.

따라서 (가칭) “농촌여성취업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취업정보, 직업상담, 직업훈련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직업알선 및 보도기능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도시지역의 “여성인력개발센터”와 같이 농촌여성의 다양한 직업능력을 개발·훈련시키는 (가칭) “농촌여성직업능력개발센터” 또는 (가칭) “농촌여성인력개발센터”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직을 신규로 설치하기보다는 기존의 시설과 인프라, 네트워크를 활용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읍면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여성농업인발전센터 등 기존시설과 연계 및 기능강화를 통한 방안을 일차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라. 여성농업인 복지정책의 본격적 실시

복지 수준에 있어 여성농업인 내부의 차이 보다 여성농업인과 전체적 복지수준의 차이가 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건강, 보호노동 및 보육, 문화향수 등 제반 측면에서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준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종 복지시설과 서비스가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촌지역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증진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여성 종합복지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여성 및 아동복지, 보건, 문화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농촌지역 종합복지서비스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후조리나 육아휴직 등 여성취업자들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부분에 대해서 여성농업인은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가도우미제도를 산후조리 지원사 제도로 전환, 정착시키는 한편 농촌형 보육체계도 시급히 개발해야 할 것이다.

<표 VI-4> 여성농업인의 복지실태 및 관련 요구

	저연령층	중년층	고령층
산후조리기간	다소 길어짐	짧음	짧음
국민연금	납편가입	납편가입	가입안함
문화향수 수준	비교적 높음	낮음	낮음
조직활동	보통. 다만 농업관련조직 참여율 매우 낮음	높음	낮음

□ 고령 여성농업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장치(safety net) 마련

본 실태조사를 통해 여성농업인들의 연금 가입율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고연령층, 무배우자의 가입율은 매우 낮은 실정이라서 농촌의 극빈계층을 양산할 우려가 큰 만큼, 노령 여성농업인과 독거 노인에 대한 생계보장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시장지향적 농정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보완수단으로 직접지불제 확대 및 경영체별 소득안정프로그램의 도입시 여성경영주 농가의 배제를 방지할 세심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여성농업인 명의로 연금에 가입하는 경우가 드물어 독자적인 연금수급 권도 제한되어 있으므로 여성농업인의 독자적인 연금가입을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특히 노령화되어 있는 자급농의 경우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지원해야 한다. 이들에게 농업소득까지 정부가 보장하려는 정책은 실효성 없는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처럼 농업정책은 산업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이 결합되게 되는데, 최소한 이전보다 사회복지정책의 요소가 강화될 필요가 있겠다.

정부가 농업 정책과 병행하여 농촌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촌의 복지, 교육, 생활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에서 2003년 10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안)」을 의결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다. 동 법안이 마련되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에서 농어촌 복지·지역개발 등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평가, 계획 심의, 실적 점검 등을 통하여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다.

동법안에 의거하여 향후 농업인 복지·교육여건의 개선, 농어촌 지역개발 등의 제도적 지원 시스템 마련 등 시책의 수행시, 본 연구에서 발견된 여성농업인의 복지요구가 높은 우선순위를 갖고 수렴되어야 한다.

□ 건강관리서비스

농업노동의 주년화와 시설재배의 증가로 여성농업인의 직업병이라고 할 만한 특정 증세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상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성농업인 건강문제의 중요성에 비해 구체적 대안 마련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본 조사에서 건강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난 것은 이러한 현실을 역설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우선 여성농업인의 즉각적인 보건수요 충족을 위해 기존의 행정서비스체계를 보완하여 수행할 수 있는 보건서비스 사업부터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농업인을 위한 건강검진서비스를 확대하고, 시·군단위 보건소에 ‘여성건강클리닉’을 설치하여 읍면지역으로 순회서비스를 펼치는 것이 한 예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농촌여성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체계를 개발하도록 한다.

□ 여성 농업인의 기여도 측정과 보상체계 마련

여성농업인의 기여에 부합하는 보상체계 마련은 그 자체로 여성농업인의 소득제고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의하면 여성농업인들의 농업 참여는 남성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고, 가사노동과 노약자 돌봄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재생산 활동을 통한 가구소득 기여분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여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자산이 여성농업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하다. 결혼으로 농사에 진입하게 된 여성농업인들은 처음에는 농촌 전체에 팽배한 가부장적 사고로 이러한 자산의 남성 세습을 당연히 여기다가도 20-30년 동안 농사를 짓고도 자신의 기여도가 아무런 형태로도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 허무하게 여긴다.

하지만 농업인 여성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¹³⁾와 여성 기여도를 측정할 평가 방식의 부재로 인해, 농촌의 남성 중심적 사고방식은 이들의 절망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이다. 일본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가족 협정”을 정부 기관이 장려하여 가족 구성원간에 평등한 소득 분배와 가사노동 분담을 이끌어 내고 있다. 이러한 모범 사례의 검토와 세제 정책의 개선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기여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제공될 때 여성농업인들의 농업 참여는 더욱 확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연금제도와 같이 여성농업인이 남성의 피부양자 지위로 노후소득을 보장받는 지금의 모델을 유지하면 상당수의 여성노인이 (많은 노동기여에도 불구하고)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협업배우자이지만 즉 여성의

13) 예컨대 남편이 부인에게 농지를 상속할 때 고액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수급권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주로 규정되는 상황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뒤 재혼하지 않았을 때만 기본연금액의 12-18%에 불과한 유족연금을 받는다. 이혼후 혼인기간에 대한 수급권은 인정되지만 이혼후 배우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의 분할청구권도 상실된다. 또 재혼해도 청구권이 제한된다.

농가 내에서 최근 도시에서 파급되고 있는 부부재산공동명의제와 같은 형태로 농가에서도 부부가 재산을 공동명의 혹은 분할 형태로 보유하도록 남녀의 인식제고 활동이 요구된다. 농협 등에서 여성 명의의 농산물 출하시에도 관행적으로 세대주의 계좌에 대금을 입금하는 사례 등도 있다는 점에서 여성농업인의 활동영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실무자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봉균. 2001. 6. 22. “한국 농업발전의 장기비전.” 농협 최고경영자 아카데미 강연
원고.
- 김경미. 2003. “여성농업인의 법적 지위의 문제와 인정방안,” 농촌생활연구소 주최
세미나 발표논문.
- 김영옥·김이선. 1999. 『21C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여성
개발원.
- 김영옥·양승주. 2000.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시안)』. 농림부 용역과제.
- 김영옥. 2000.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방안,” 『농촌사회』 11집. 농촌사회학회.
- 김영옥 외. 2001. 『여성농업인의 취업유형별 소득전망과 정책개발』. 농림부 용역
과제.
- 김이선. 1997. 『개방농정체제에서 여성의 농업참여에 관한 연구-충청남도 3개 마을
사례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박대석외. 2002. 『여성농업인 복지지표 개발 연구』. 농림부
- 이호철·최수영. 2001. “지역 여성농민의 실태와 정책적 대안 제시,” 경북대 경제
경영연구소(편), 경상논집, 제29권 제1권, 2001. 6.
-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한국여성농민연구소. 1997. 『'97 대선 여성농민 정책 과제』.
토론회 자료.
- 정기환. 1997. 『농가 여성의 노동력 구조와 경제활동 실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기환외. 2002. 『여성농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사회교육 방안』. 농림부 용역
과제.
- 한국여성농민연구소. 1997. 『21세기 한국농업과 여성농민』. 제2회 농업인의 날 기념
여성농업인 심포지엄 자료.
- 한얼경제사업연구원. 1999.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농림부
- 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ー. 2000. 3. 『酪農經營・果樹作經營における 女性の 資産形成』.
- 農村生活綜合研究センター. 2001. 3. 『家族經營協定の 实效性と 今後の 推進に 向けて』.

Alston, Margaret. 1995. "Women and Their Work on Australian Farms." *Rural Sociology* 60(3) : 521-532.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Agriculture. 2000. *Women active in rural development: Assuring the future of rural Europe.*

EU Common Agricultural Policy Studies. 1999. *Labor situation and strategies of farm women in diversified rural area of Europe.*

Gasson, Ruth. 1984. "Farm Women in Europe : Their Need for Off-Farm Employment." *Sociologia Ruralis*. Vol. XXX-3/4 : 216-227.

부 록

[별첨 1] 표본오차(Sampling Error) 공식

표본추출 사례를 토대로 모집단을 추정할 때 이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표본오차 (Sampling Error) 공식은 다음과 같다.

$$SE = \pm 1.96 \sqrt{\frac{P(100 - P)}{N}}$$

P : The Observed Percentage

N : The Sample Size

[별첨 2] 표본크기별 표본오차 예시

(95% 신뢰수준)

Observed Percentage	Sample Size					
	500 ± %	700 ± %	1,000 ± %	1,521 ± %	2,000 ± %	10,000 ± %
50	4.4	3.7	3.1	<u>2.5</u>	2.2	1.0
40 or 60	4.2	3.6	3.0	2.5	2.1	1.0
30 or 70	4.0	3.4	2.7	2.3	2.0	0.9
20 or 80	3.5	3.0	2.5	2.0	1.8	0.8
10 or 90	2.6	2.2	1.9	1.5	1.3	0.6

* 본 조사는 표본크기가 1,521명이므로 최대허용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서 ±2.5% 정도임.

[별첨 3]

설문지

Gallup 200316038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A1-5

--	--	--	--	--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면접원으로 일하는 ○○○입니다.
 이번에 저희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는 농림부와 한국여성개발원의 의뢰로 여성농업인의 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여성농업인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여러분의 진솔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작성하신 조사내용에 대한 비밀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통계법 제13조, 제14조)

□ 주영농 형태 : 1. 논벼 2. 과수 3. 채소 4. 특작 5. 화훼 6. 축산 7. 기타(적용 것: _____)16-17
 ※ 연간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가장 많은 분야의 영농형태를 골라주십시오.

조사시 유의사항

이번 조사의 대상은 여성 농업인 이며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농사일을 한 15세 이상 여성을 말합니다.
 만약, 해당구구에 두명 이상인 경우엔 농사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여성이 대상입니다.

I 가구 현황

문1)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 총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 총 _____ 명
 문2) 가족 개개인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18-19

가구원 번호	가구원	문2-1) 응답자 외의 관계	문2-2) 성별	문2-3) 연령 (만)	문2-4) 학력	문2-5) 지난 1년간 농업에 일미동안 종사 하셨습니까?	문2-6) 지난 1년간 농업이외의 일에 종사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2-6-1) (문2-6에서 2. 또는 3. 인 경우) 어떤일이었습니까?	
		0. 본인 1. 시아버지 2. 시어머니 3. 남편 4. 아들 5. 딸 6. 기타(적용것)	1. 남자 2. 여자		1. 초등학교 이하 2. 중학교 3. 고등학교 4. 전문대졸 이상	1.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2. 6개월 이상 3. 3개월 미만 4. 종사한적 없음	1. 종사한적 없음 2. 1개월미만종사 3. 1개월이상 종사	1. 자영업 2. 생산직 3. 사무직 4. 서비스직 5. 판매직 6. 기타	
1	당시자	0 20	2 21	22-23	24		25	26	27
2	가족원1		28	29	30-31	32	33	34	35
3	가족원2		36	37	38-39	40	41	42	43
4	가족원3		44	45	46-47	48	49	50	51
5	가족원4		52	53	54-55	56	57	58	59
6	가족원5		60	61	62-63	64	65	66	67
7	가족원6		68	69	70-71	72	73	74	75
8	가족원7		76	77	78-79	80	81	82	83
문2-7) 가구형태		1. 독신가구 5. 조부모+부부+자녀		2. 부부가구 6. 조부모+손자/녀		3. 부부+자녀 7. 기타(적용 것 : _____)		4. 편부모+자녀	

문3) 가족중 댁의 농사를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총괄하는 경영주는 누구십니까? (가구원 번호 기입)

B6

문4) 댁의 농사규모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4-1) 현재 댁에서 소유하고 있는 경지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문4-1-1) 이 중 본인 소유 토지는 얼마나 됩니까?		문4-2) 현재 댁에서 짓고 있는 농사는 얼마나 됩니까? 빌려준 것은 빼고 빌려서 짓는 것은 합쳐서 말씀해 주십시오.
	7-13	13-18	13-18	18-24	
㉠ 논	_____평	_____평	_____평	_____평	_____평
㉡ 밭	25-30	_____평	31-36	_____평	37-42
㉢ 과수원	_____평	43-48	_____평	49-54	_____평
㉣ 하우스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					_____평
㉤ 기타(_____) 67-68	_____평	69-74	_____평	75-80	_____평
㉥ 축산	소_____마리, 돼지_____마리, 닭_____마리, 기타(_____) _____마리				81-86

문5) 지난해 농축산물 판매대금 중 수입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일 큰 것부터 차례대로 2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C-6-7	8-9

- | | |
|----------|----------------------|
| 1. 논벼 | 6. 일반 밭작물 |
| 2. 과수 | 7. 특용작물(버섯 등) |
| 3. 노지채소 | 8. 축산물 |
| 4. 시설채소 | 9. 기타 (적을 것 : _____) |
| 5. 화훼(꽃) | |

문6) 현재 댁의 총예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예금, 적금, 계, 주식, 채권 등을 합쳐 말씀해 주십시오.

일억	천만	백만	십만	만원

10-14

문6-1) 그 가운데 본인 명의의 예금은 얼마나 됩니까?

일억	천만	백만	십만	만원

15-19

II 농업종사 현황

문7) ○○님께서 농사를 지으신지 총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_____년

문8) 앞으로 농사규모를 확대 또는 축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 현재 규모 유지 ☐ 문9)로 같 것
- 확대 ☐ 문8-1)로 같 것
- 축소 ☐ 문8-2)로 같 것

문8-1) (확대할 계획이라면)앞으로 어떤 농사를 확대할 계획입니까? (한 가지만)

- | | |
|---------|----------------------|
| 1. 논벼 | 6. 일반 밭작물 |
| 2. 과수 | 7. 특용작물 |
| 3. 노지채소 | 8. 축산 |
| 4. 시설채소 | 9. 기타 (적을 것 : _____) |
| 5. 화훼 | |

☐ 문9)로 같 것

문8-2)(축소할 계획이라면)앞으로 어떤 농사를 축소할 계획입니까? (한 가지만)

- | | |
|---------|----------------------|
| 1. 논벼 | 6. 일반 밭작물 |
| 2. 과수 | 7. 특용작물 |
| 3. 노지채소 | 8. 축산 |
| 4. 시설채소 | 9. 기타 (적을 것 : _____) |
| 5. 화훼 | |

문9) 앞으로 현재 하고 있는 농사 이외에 다른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 ◻ 문10)으로 갈 것

문9-1)(다른 농사를 짓고싶다면)

어떤 농사를 새로 하실 생각이십니까?
순서대로 두가지만 골라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
| 1. 논벼 | 6. 일반 밭작물 |
| 2. 과수 | 7. 특용작물 |
| 3. 노지채소 | 8. 축산 |
| 4. 시설채소 | 9. 기타 (적을 것 : _____) |
| 5. 화훼 | |

문10)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일하시거나 창업할 생각이 있습니까? 의향이 있으시다면 해당하는 항목에 ○표해 주십시오.

	있다	없다
㉠ 농산물 가공 (예: 장류, 액즙 등)	1	2
㉡ 농산물 및 가공식품류 판매 (직거래, 온라인 등)	1	2
㉢ 관광사업	1	2

문11) 댁의 농사일 전체를 100으로 볼 때 ○○님께서 어느 정도 담당하십니까?

1. 거의 모든 농사일을 맡아 한다
2. 80% 이상 담당한다
3. 절반정도 담당한다
4. 30% 정도 담당한다
5. 거의 하지 않는다

문12) 다음과 같은 일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삼꾼 등 고용노동력은 제외)

	주로 내가	주로 남편이	둘이 비슷하게	기타 가족이	이 농사를 짓지 않음
㉠ 논농사	1	2	3	4	5
㉡ 밭농사	1	2	3	4	5
㉢ 시설채소/화훼	1	2	3	4	5
㉣ 과수원	1	2	3	4	5
㉤ 축산	1	2	3	4	5
㉥ 농산물판매	1	2	3	4	5
㉦ 농산물가공	1	2	3	4	5
㉧ 기타(_____)	1	2	3	4	5

문13) 댁에서 주로 하시는 농사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따로 있습니까?

1. 있다
2. 없다.(축산등) ◻ 문13-3)으로 갈 것

문13-1) (구분이 있다면)농번기는 일년중 대략 며칠이나 됩니까?

일년에 _____ 일

문13-2,3) 귀하께서는 하루 평균 농사와 농사 이외의 일, 가사를 각각 얼마나 하십니까?

	농사	하루 _____ 시간
농번기	농사외의 소득있는 일	하루 _____ 시간
	가사	하루 _____ 시간
농한기	농사	하루 _____ 시간
	농사외의 소득있는 일	하루 _____ 시간
	가사	하루 _____ 시간

농사	하루 _____ 시간
농사외의 소득있는 일	하루 _____ 시간
가사	하루 _____ 시간

문14) 댁에서 다음과 같은 일을 결정할 때 ○○님께서 어느 정도 관여하십니까?

	내가 주로 결정	어느 정도 관여	거의 관여하지 않음
㉠ 논밭을 사고팔거나, 빌리고 빌려줄 때	1	2	3
㉡ 어떤 작물을 지을지 결정할 때	1	2	3
㉢ 영농자금을 빌릴 때 (액수나 시기 등)	1	2	3
㉣ 농사일정을 짤 때	1	2	3
㉤ 품을 살 때	1	2	3
㉥ 농산물을 출하, 판매할 때	1	2	3
㉦ 작목반, 영농조합에 가입할 때	1	2	3

문24) ○○님께서서는 지난1년 동안 다음과 같은 문화행사를 직접 관람(참석)하신 적이 있습니까?

문학행사, 전시회, 국악/민속놀이공연, 음악공연, 연극, 영화, 무용공연, 연예(쇼)공연

1. 관람(참석)한 적이 있다
2. 관람(참석)한 적이 없다

문25) ○○님께서서는 지난 1년동안 다음과 같은 문화시설을 몇회나 이용하셨습니다?

1. 시·군·구민회관 _____ 회 26-28
2. 문화예술회관 _____ 회 29-31
3. 복지회관 _____ 회 32-34
(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4. 공공도서관 _____ 회 35-37

문26) ○○님께서서는 다음의 단체 혹은 조직에 귀하의 이름으로 가입하셨습니다?

면접원 : (남편명의가 아니라 응답자 자신의 이름으로 가입했는지 여부를 감조할 것)

	가입 하지 않았다	이름만 올려 놓았다	적극 활동하 고있다
㉞ 농협 또는 축협	1	2	3
㉟ 작목반	1	2	3
㊱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1	2	3
㊲ (농협) 농가주부모임	1	2	3
㊳ (농진청) 생활개선회	1	2	3
㊴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전여농)	1	2	3
㊵ 한국여성농업경영인연합회 (한여농)	1	2	3
㊶ 기타(적을 것 : _____)	1	2	3

Ⅳ 정책수요

문27) ○○님께서서는 앞으로도 계속 농촌지역에서 살고 싶습니까?:

1. 그렇다 문28)로 같 것 2. 아니다

문27-1) (농촌을 떠나고 싶다면) 농촌을 떠나고 싶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생활환경이 좋지 않아서
2.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3. 농사일이 힘들어서
4. 문화생활을 즐길 수 없기 때문에
5. 소득이 낮아서
6. 기타 (적을 것 : _____)

문28) ○○님께서 최근 3년 동안 교육받은 적이 있는 과정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문28-1)앞으로 교육 받고 싶은 내용을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해당 여부를 OX로 표시해 주십시오.

	문28) 교육경험 여부	문28-1) 교육희망 여부
㉞ 농기계운전, 시설자동화설비운전		
㉟ 작물재배 및 축산 등 농업생산기술		
㊱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기술		
㊲ 농업경영설계·진단		
㊳ 부기·회계와 재무관리		
㊴ 컴퓨터 이용 농업정보 활용		
㊵ 의식주 생활교육		
㊶ 자녀교육, 가족관계		
㊷ 농촌환경개선		
㊸ 취미·여가·교양		
㊹ 부업·자격증취득		
㊺ 여성농업인 지도자교육		
㊻ 기타 (적을 것: _____)		

문29) ○○님은 평소 각종 교육에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1. 거의 참석하지 않는다
2. 2-3년에 한번 정도 참석한다
3. 1년에 1-2번 참석한다
4. 1년에 3-4번 이상 참석한다.

문30) 평소 교육에 참여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두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가장 _____ 그 다음 _____

1. 언제 어디서 무슨 교육이 있는지 잘 모른다
2. 내가 필요로 하는 교육이 없다
3. 농사일이 바빠서 시간 내기가 어렵다
4. 집을 비우기 어렵다
5. 교육장소가 멀어서 가기 힘들다
6. 교육기간이 너무 길다
7. 교육은 받고 싶지 않다.
8. 기타(적을 것: _____)

2003년 여성농업인 실태조사

2003년 11월 26일 인쇄

2003년 11월 28일 발행

발행처 : 농림부 여성정책담당관실
전화 / 02-500-1608

인쇄처 : 도서출판 한 학 문 화
전화 / 02-313-7593 (代)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